



## 제2장 고장을 빛낸 인물

### 제 1 절 고려조 문하시중(門下侍中) 평장사(平章事) 이림간(李林幹)

이림간(李林幹)공 하면 고려 충선왕(忠宣王 1309~1313)조에서 문하시중 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의 벼슬에 올라 우리고을에서 처음으로 정승(政丞)이 되었으며,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군(封君)됨으로서 관향을 장천(長川)으로 하여 우리고을 장수를 관향으로 쓰는 씨족이 두개의 문벌이 되었으니, 장수이씨(長水李氏)가문과 장수황씨(長水黃氏)가문이다. 두 가문이 각기 정승의 권좌를 누린 명인을 탄생시켰으니 장수이씨는 이림간(李林幹)공이요, 장수황씨는 황희(黃喜)공이시다. 황씨가문에서는 황수신(黃守身)공이 다시 정승에 올라 가문을 빛냈으며, 장수이씨 가문에서는 다시 정승은 배출하지 못했으나 이종무(李從武) 선생 같은 명현을 후세에 배출하여 명문가의 전통을 세웠다.

선생의 휘(諱)는 림간(林幹)이며 성씨(姓氏)는 이(李)이고 초휘(初諱) 령간(靈幹)이라 하고 아호(雅號)를 일현(逸軒)이라 불렀다.

선생께서는 1262년(高麗 元宗 3年 南宋理宗景定 3年 壬戌)에 출생하시고 어려서부터 신체가 현양(軒昂)하고 총민하며 특이한 풍채가 있어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일찍이 취학하여 학문에 정진하며 담양군(潭陽郡) 연동사(蓮洞寺)에서 수학 하던 중 달빛을 따라 절뚝편 암상에서 글을 읊으며 소풍할 때 신동(神童)을 만나 장기를 두며 즐기면서 노닐더니 신동이 한권의 신서(神書)를 선생에게 주면서 '이 책을 얻으면 조정에 그 이름이 가득할 것이며 공(功)이 한나라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신서를 속독하여 입신출세할 것을 권하였다. 선생께서는 신서를 도통하여 학문이 발전하고 훗날 왕조와 백성에게 공헌하여 명성이 천리에 퍼졌다. 신서와 더불어 노력한 보람이 있어 선생께서 20세가 되는 1262년(高麗忠烈王 8年 元世祖 19年 壬午) 12월에 과거에 급제하고, 비서소감(秘書少監)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올랐으며, 미구(오래지않아)에 한림학사(翰林學士)와 시독학사(侍讀學士)의 관직을 거쳐 1312년(高麗忠宣王 4年 元仁宗皇慶 1年 壬子) 7월에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임명되어 한림학사(翰林學士)를 겸임하였다.

고려지지(高麗地誌)에 기재된 이림간(李林幹)선생의 관련부분을 옮겨 참고할까 한다.

「高麗地誌云 牛峰郡本高句麗牛峰郡 有九龍山即國朝聖骨將軍祠在處 又號聖居山 有博淵上下測皆不測深 遇早祈雨輒應 上測心有盤石可得覽 忠宣王嘗登其上 忽然風雨暴作揚沙走石震動淵溢 王驚怖 公扈從在側 作書數龍之罪投于淵中 龍即出其背乃杖其背矣 少後淵水盡赤 其後俗云笞龍岩」

「고려지지에 이르기를 우봉군은 본시 고구려 우봉군으로 구룡산이 있으니 고려조의 성골장군의 사당이 있는 곳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성거산'이라 하더라. 산에 넓은 못이 있고 위아래 못이 모두 다 측량할 수 없이 깊었다. 가을 때를 만나면 기우제를 지내니 그럴 때 마다 비가 오더라. 뒷못의 가운데에 반석이 있으니 가히 관람할만하더라. 충선왕이 그 바위에 올랐는데 홀연히 바람과 비가 광폭하여 지며 모래가 날리고 돌이 구르니 바위가 진동하고 못물이 넘쳤다. 왕이 무서움에 놀라 하니 공이 시종하여 옆에서 지키다가 글을 써서 용의 죄를 헤아려 책망하는 글을 못 속에 던지니, 용이 즉시 나타나 등을 물위에 내놓았다. 공이 용의 등에 태장을 때리니 조금 뒤에 못의 물이 모두 다 붉었다. 속되게 말하여 '태룡암'이라 하더라.」

태룡암을 설명하는 기록으로 고려지지 우봉군편에 나오는 믿기 어려운 기록이나 사실 그대로 전재하여 번역하였다.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1346년(高麗忠穆王 2年 元順帝 6年 丙戌) 원나라 순제는 고려왕조에서 원나라 조정에 불경한 행동을 한다는 핑계로 고려 충목왕을 원나라 서울 연경으로 불러 죄를 추궁하게 되매 충목왕은 등극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처지에서 중진 이림간(李林幹)공을 대동하고 원나라에 들어갔다. 그 기록은 아래와 같다.

「不敬天朝之事 群小諸妄多有嚴劾 公須疏論 陰陽華夷之別 其疏略曰 皇明肇興我先  
賡服 帝常嘉之 滿朝諸賢群小諸妄莫不驚畏 無拘仍還 以賜田結五百 在長川 草莊一  
望在溪北面 陽岳里 堂底通案 三百結 在龍城」

「천자의 나라에 불경하였다는 이유로 무릇 신하들이 엄히 책망하니, 공이 음양의 이치와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이 있음을 변론하여 글을 올리니 글 중에서 ‘천명을 받아 창업의 황제로 등극하니 우리는 제일 먼저 성은에 감복하니 황제께서도 오히려 칭찬하셨더라.’ 하였더니 만조의 군신들이 두려움과 더불어 놀라워하지 않는 사람 없더라. 이내 구애받지 않고 돌아오니 왕이 봉토를 내리셨다. 오백무(五百畝, 장수에 있음) 초장 일망(草莊一望, 계북면 양악리 당저통안) 삼백결(三百結, 남원에 있음)」

충목왕은 원나라 황제의 횡포가 자심하든 때에 무사히 고려로 돌아옴은 그 공로가 이림간(李林幹)선생에게 있음을 포양하여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의 정승의 자리에 벼슬을 높이고,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군(封君)하였으며 전기와 같은 봉토와 초장을 내렸다.<sup>8)</sup>

선생에게 고려조정에서 내린 초장은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당저마을에 내려졌다. 선생께서는 관직을 사퇴하고 이 초장에서 노후를 보내셨다. 일망(一望)이란 직선거리로 한눈에 보이는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눈으로 보이는데 까지를 초장의 소유로 하는 것이다.

선생께서 내려진 초장이 옛 백이현이 있던 양악리이며 여기에 초장을 고려조에서 세워서 선생에게 하사(下賜)하는 이유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고증하기가 어려우나, 방촌 황희 상공이 장계면 도지촌으로 유배되는 것이나 황씨가문에 장천군(長川君)을 봉하여 장수황씨로 가문의 관향을 만드는 예를 고찰할 때 장수이씨 가문도 백이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 계북면 양악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선생께서는 1327년(高麗忠肅王 14年) 元泰定帝 4年 5월 24일 66세를

8) 초장 지금의 별장

일기로 세상을 떠나니 고려조정에서는 예관(禮官)을 시켜 조위하고 제사 지내게 하였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후록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언덕에 유택을 마련<sup>9)</sup> 하였으니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실전되어 찾을 수 없게 되자 후손들이 황공하게 생각하여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 안산에 설단을 모시고 선생의 영혼의 명복을 빌고 있으니 700년이 지나간 지금 선생의 전기를 쓰면서 생각하니 선생과 같이 위업을 후세에 남겨 고장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키워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9) 高麗地誌 東國輿地勝覽  
高麗史 李林幹 先生 묘  
갈명 長水李氏世譜

## 제 2절 고려조(高麗朝)의 수절신 백장(白莊)선생



호덕리 백충신묘

500년 고려사직(高麗社稷)이 망하고 조선(朝鮮)이 창업하자 뜻있는 고려의 신하들이 벼슬을 마다하고 두문동(杜門洞)으로 또는 불조현(不朝峴)으로 숨어들고 혹은 낙향하여 산수를 즐기며 여생을 마치는 수절신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고려 공민왕(恭愍王)조에서 광정대부(匡靖大夫) 이부전서(吏部典書)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의 높은 벼슬에 있었으나 이성계(李成桂)의 반정을 목도하고 조정과 사회가 문란함을 한탄한 백장(白莊)선생은 가솔을 거느리고 원주(原州)고을의 명산 치악산(雉岳山)으로 들어가 폐문 불출하며 성리학(性理之學)을 연찬하고 있었다.

조선조를 창업한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는 무력으로서 국권을 장악하였으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어진 재상들을 거느리지 못하여 민심도 수습



하지 못하고, 왕자들의 골육상잔으로 더욱 조정이 문란하였으니 낙향하거나 두문동에 들어간 어진 선비들을 회유하여 이조에 출사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첫번째 대상이 고려 때의 명재상 백장선생이었다.

칙사를 파견하여 치악산으로 백장선생을 찾았으나 선생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태조는 어명을 불복한 죄를 물어 충청도 해미(海美)땅에 유배시켜 불우한 신세가 되었다.

태종왕이 즉위하고 백장선생의 현명함을 듣고 백장선생의 유배를 사면하고 다시 이조판서(吏曹判書) 집현전대제학(集賢殿大提學)을 제수하고 출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선생께서는 역시 불응하였으므로 태종은 장수현 임현내면 호덕동 위동(長水縣 任縣內面 虎德洞 位洞)으로 다시 유배시켜 선생께서는 적소(謫所)에서 여생을 마쳤으나, 백이숙제에 못지않게 옛나라에 절개를 지켰던 선생의 절개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여말삼은(麗末三隱)인 야은(台隱) 길재(吉再), 목은(牧隱) 이색(李穡),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세 선생의 절개에 버금간다 할 것이다. 두문동(杜門洞)이나 불조현(不朝峴)에 은거한 현사(賢士)들의 지조에 견주어서 부족함이 있을 소나.

선생의 휘(諱)는 장(莊)이요 자(字)는 명윤(明允)이며 정신재(靜愼齋)는 호(號)이다. 성씨는 백(白)씨이며 관향(貫鄉)은 수원(水原)이니 상대 선조들은 당(唐)나라에서 살다가 휘 우경(宇經)에 이르러 신라(新羅)에 건너와 벼슬길에 올라 고관대작을 두루 거쳐 문경공(文景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자손들이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명문가를 이루었다. 고려조에 와서는 더욱 두드러져 휘 원정(元貞)은 상서성상장군(尙書省上將軍)에 위사공신(衛社功臣)으로 책훈되었으니 고조(高祖)가 되며 휘(諱) 천장(天藏)은 정당문학평장사(政堂文學平章事)의 벼슬에 오르고 수원백(水原伯)으로 봉후(封侯)되었으므로 마침내 관향을 수원으로 하였다. 다시 문익공(文翼公)으로 시호가 내려져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 휘 연(璉)은 추밀원좌승선(樞密院左承宣)의 벼슬에 올랐으니 바로 선생의 할아버지가 되며 아버지의 휘는 인경(仁景)이며 밀직부사(密直副使)의 관직에 있었다. 선생의 어머니는 태자대부(太子大傅)인 문정공(文貞公) 이장용(李藏用)의 딸이며 1342년(고려 충무왕 3년 壬午 元順帝至正 2年) 2월 수원부에서 공을 출생하였다.

선생은 낳으면서부터 용자가 순후하며 단정하였고,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을 즐기고 특히 역리(易理)를 깊이 탐구하였다.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선



생의 학식과 덕망을 흠모하여 스승으로 모시고 경학과 성리학(性理學)을 터득하였으며, 이때 포은선생의 영향을 받아 후세에 명성을 떨치는 치국경세(治國經世)의 도량과 백절불굴의 지조가 단련되었던 것이다. 선생께서는 고려국을 멸망시키고 반정을 꾀한 이성계(李成桂)의 불의(不義)에 동조할 수 없어 벼슬을 버렸으며 부귀영화 보다는 고통의 유배의 길을 택하였을 것이다. 선생께서는 16세나던 1357년(고려恭愍王 6年 丁酉)에 성균관(成均館) 진사시(進士試)에 참방(參榜)하였으며, 다시 원나라에 유학하여 학문과 견문을 넓혀 더욱 경륜을 쌓아 국가의栋梁이 될 기초를 가다듬었다. 25세 되는 1366년(恭愍王 15年 北元順帝 25年 丙午)에 원나라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狀元及第)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동방수재(東方秀才)라는 명성을 중원에 떨쳤다. 원조(元朝)에서는 한림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의 벼슬을 내려 머물게 하였으나 선생께서는 미구에 벼슬을 버리고 고려국으로 돌아왔다. 고려에서도 벼슬길에 올라 내외직을 거치는 동안 많은 치적을 남겨 광정대부(匡靖大夫) 이부전서(吏部典書) 보문각대제학(寶文閣大提學)의 높은 벼슬에 올랐으나 고려국의 국운이 쇠멸되어 이성계를 수반으로 하는 무신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고려왕조가 멸망하였으며, 존경하는 스승 정몽주선생마저 이방원(李芳遠)이 보낸 자객에 의하여 선죽교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됨으로 어지러운 나라의 정사에서 손을 씻고 가권을 인술하여 송도(松都)를 떠나 원주의 치악산으로 숨어들어 망국의 슬픔을 달래야 했을 것이다.<sup>10)</sup>

### 太祖 太宗의 부름을 거역

선생께서 개경(開京)을 떠나 치악산에 숨어든 뒤 그 소문이 널리 퍼져 선생의 학식과 덕망 굳은 절개에 절제할 줄 아는 조행을 존중하는 세상의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배움을 청하게 되었으니 선생택 문전에는 항시 저 자거리와 같이 붐볐다.

조선조 건국초 동요된 민심을 수습할 길이 없던 태조 이성계는 구조(舊朝)의 명관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선생께서는 부도덕한 군벌왕조에 출사하기를 불응 하였으니, 태조대왕은 해미땅(충청남도 서산군)으로 유배를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태종대왕의 회유에도 불응하매 조선왕조에서는 선생을 못 마땅히 여겨 장수땅으로 귀양 보내는 결과가 되었다. 장수땅에 발을 붙인 선생께서는 봉학(峰壑)의 아름다움과

10) 註 : 謫所-유배된 장소, 諡號-경상(卿相)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행적을 칭송하여 임금이 추증하는 사호

천석(泉石)의 가려(佳麗)함이며 민심의 순박함이 자손을 기르는데 적당하다 생각하고 자손까지도 이주시켜 장차 안주할 장소로 선택한 것이리라.

선생께서는 한들 서쪽 장계천이 굽이쳐 흐르는 언덕위에 청심정(淸心亭)이란 정자(亭子)를 세워 유유자적 하면서 유천 맑은 물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 한잔 술을 기울이며 망국한을 달래며 귀양살이의 설움을 되새겼을 것이다. 조선조 중엽의 대 문장가요 대사헌(大司憲) 형조판서(刑曹判書) 성균관제주(成均館祭主) 등 관직을 거친 홍직필(洪直弼)선생께서는 정신재 백장 선생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어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였다.

「遂移配于長水 時彫村黃翼成公亦謫居茲土 相與晨夕之樂 嘗勤黃公出而濟時 贈詩曰 何事非君又有尹 生逢堯舜是昌辰 春來獨取薇花露 賴彼西山餓死神 以伯夷之節自期 伊尹之事最黃公」

「마침내 유배지를 장수 땅으로 옮겼다. 그때 방촌 황희 상공 역시 이 땅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어 서로 더불어 아침저녁으로 만나 즐기며 일찍이 나라가 어려운 때를 구제할 것을 권하며 시 한귀를 지어 주었다. <또 다시 이윤 같은 사람이 있으니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라. 살아 요순과 같은 임금을 만나 창성할 때리니 봄이 오면 이슬 먹은 고사리 홀로 끊으며 저 수양산에서 굶어죽은 귀신 제사 지내려 하네.> 백이의 절개로서 스스로 기약하고 이윤의 옛일을 비교하여 황공에게 극진하였다.」<sup>11)</sup>

비문에는 다시 선생을 칭송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臣之事君 如女之適人 一與之有 終身不改 一食其祿 終身無貳 賣國販君 以賭其富貴者滔滔 如公者勵百死不移之操 拒兩朝必致之令 意不失神 靖獻于王朝 是所云遠不違君 死不忘國者也」

「신하가 임금을 섬김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과 같으니 한번 더불어 초례를 지내면 종신토록 바꾸지 아니하며 한번 그 녹을 먹었으면 종신토록 두마음을 갖지 않는다. 나라를 팔고 임금을 팔아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겨루는 사람 도도히 많거늘 공과 같은 사람은 백번 죽어도 지조를 옮기지 않는데 힘써 양조(太祖 太宗)가 반드시 불러들이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필경 신성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씨 조정에 충성을 바쳤으니 이것이 이른바 임금을 멀리 하여도 어김이 없고 죽어서도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니라.」

11) 註 : ① 伊尹 - 은나라의 유명한 재상으로 섬기던 나라가 망하자 개절하여 은나라 재상이 됨. ② 伯夷 - 은나라의 명관이었으나 나라가 망하자 주나라 녹을 먹지 않기 위해 수양산에 숨어 고사리를 꺾어먹고 살다 굶어 죽었음.

위의 홍직필선생이 쓴 신도비명에 보면 방촌 황희 상공이 우리고장에 귀양 와서 정신재선생과 조석으로 상봉하였음을 볼 수 있다. 황방촌상공(相公)은 1413년(太宗 13年) 세자 제(즉 讓寧大君)의 패세자 논의를 반대 하다가 태종대왕의 노여움을 사서 장수땅에 유배되어 1422년(世宗 4年)에 귀양에서 풀리고 다시 부름을 받아 등용되었다. 만 10년간을 장수에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방촌 황희선생이 귀양살이 하던 곳은 바로 장계면 월강리 도장마을이며 따라서 3대를 그 자리에서 살다가 손자 상(翔字引儀)에 이르러 외손 도암(陶岩) 이경광(李敬光)에게 넘겨주고 이 고장을 떠났다.

방촌선생은 도지촌(陶旨村)에서 멀지 않은 호덕동(虎德洞)에서 귀향 살이 하는 전왕조 때의 존경하는 선배 정신재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심방하여 국사를 논의하고 나라를 걱정 했던 것이며, 청심정에 올라 시를 읊으며 우국충정을 달랬을 것이다. 정신재 선생께서 별세하신 뒤 방촌선생께서는 정신재 선생의 묘갈명에 아래와 같은 글을 지었음으로 그 일부를 옮겨 보기로 한다.

「昔孟子論夷惠曰 人百世之師也 奮乎世之上 百世之下聞子莫不興起 頑夫廉儒夫立志 鄙夫寬薄夫敦 如靜慎齊 固聞風者也 百世之下 又其無聞公之風而興起焉者歟」  
「옛적에 맹자께서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를 논하여 가라사대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니라. 백세 위에서 크게 떨치면 백세 아래서 들은 사람 일어나지 않은 사람 없으니 완고하고 탐내는 사나이 청렴하여지고 나약한 사나이 뜻을 세우고 용열한 사나이 너그러워 지며 경박한 사나이 돈후해 지나니 정신재와 같은 사람은 진실로 그 유품을 들은 사람이니라. 백세의 아래에서 공의 그 유품을 들어 일어나는 사람이 어찌 없으리요.」<sup>12)</sup>

「中略 就江上立亭 名曰清心 夙詠講磨 喜以賤棕 忝左從遊 晨夕不離 一日置一絕詩于案上 使喜觀之詩曰〈何事非君又有尹…… 賴彼西山餓死神 因相與大笑而罷 未幾公損館〉」

「강상에 정자를 세워 이름 지어 청심정이라 하고 학문을 연마하고 시문을 읊었다. 황희 천종으로 욕되이 따라 노닐어 조석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하루는 한귀의 시를 책상위에 놓아 희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시에 가로되 〈또다시 이윤 같은 사람 있으니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라…… 저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귀신제사 지내리.〉 이것으로 인하여 서로 크게 웃으며 자리를 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은 세상을 떠났다.」<sup>13)</sup>

12) 註：柳下惠 - 노(魯)나라의 유명한 사사(寺師)로 지금의 재판장

13) 黃喜 撰 묘갈명



정신재 선생과 방촌선생은 19년의 연세 차이가 있었으나 기록으로 보면 정신재선생은 방촌선생을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으며 방촌선생은 정신재 선생을 스승이상으로 존경을 바친 것으로 표현되었다.

정신재선생을 모시고 교유하던 수년간이 방촌선생이 후세까지 추앙받는 경륜과 탁월한 인격을 도야한 완성의 시기가 되었으리라.

정신재선생과 방촌선생은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형편이었으니 정신재선생은 고려의 신하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충성심으로 조선(朝鮮)의 노여움을 사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며, 방촌 선생은 고려의 신하였으나 두문동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고 있던 것을 강제로 초빙하다시피 등용시켜 당초의 지조를 굽히고 출사하였으나 태종의 폐세자 논의를 반대하는 바람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상반되는 입장에 있으면서 한 고을 이웃마을에서 서럽고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항설에 의하면 태종대왕은 방촌선생을 장차 국가의 동량으로 보고서 중용(重用)하고자 정신재선생이 유배된 지방으로 유배지를 선택하여, 출사를 거부한 백장선생의 탁월한 경륜을 전수받게 하기 위한 고등 술수였다는 전설도 있으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위정자의 인재를 아끼고 존중하는 배려도 대단한데가 있었다.

정신재 선생 자신은 장안산(長安山)과 덕유산(德裕山)을 왕래하며 고사리를 꺾어 먹고 여생을 마칠망정 방촌 선생만은 세상에 내보내어서 제세구민(濟世救民)하는 이윤(伊尹)같은 명재상으로 만들어 국가와 민족을 반석위에 세우려는 선생의 높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장이라 할 것이다.

선생의 손녀서(孫女婿)에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내다 사직한 퇴휴재(退休齋) 송보산(宋寶山)과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다 낙향한 손재(遜齋) 김남택(金南澤)이 있었으니 두 분이 모두다 정신재선생의 고매한 정신을 흡모하여 술권하여 장수땅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선생을 따라 청심정에 노닐면서 소요영풍(逍遙詠豐)의 전원생활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선생의 학문과 유덕은 길이 이 고장의 전통을 이루고 세칭 전라좌동인맥(全羅左東人脈)의 기원으로 추앙 하고 있다. 정신재선생이 장수땅에 미친 영향은 면면히 현재까지 전승되어 장수 땅을 충절의 고장으로 적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조석으로 상봉하고 회포를 풀며 교유하던 방촌 황희선생이 귀향살이가

풀려 조정으로 돌아가니 정신재선생께서는 무척 반겼으나 내심으로는 백년 지기를 잃어버려 세상 살아갈 취미마저 잃어버렸을 것이다. 노령의 적소(謫所)에 불우한 생활에서 얻은 병환으로 신음하면서도 자손이나 제자에게 사후의 장사의 절차까지도 유언으로 남기는 자세함을 잊지 않았다. 선생께서는 장차 부고문에나 비석기문에 고려조의 관함(官銜)만을 쓸 것이며 왕조의 관직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여 죽어서 귀신이 된 후에 까지도 관직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얼마나 거룩한 정신이며 깨끗한 지조의 소유자인가.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뜻 깊은 배려였을 것이다.

선생께서는 1415년(太宗 15年 乙未) 10월 15일 한 많은 한평생을 마치고 이승을 떠났다. 태종대왕은 부음을 듣고 예관(禮官)을 장수에 파견하여 장사 지내게 하고 의정부 영의정 겸영중추부 돈령부 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대제학(議政府 領議政 兼領中樞府 敦寧府 春秋館 弘文館 藝文館 成均館 大提學)이란 여러 가지 관직을 증직(贈職)<sup>14)</sup> 하였다. 유족이나 지방의 제자들도 평소에 조선왕조의 벼슬을 거부하던 선생의 지조를 소중히 생각하여 고려국이부전서(高麗國吏部典書) 보문각대제학백공장지구(寶文閣大提學 白公莊之樞)라는 명정(名旌)을 사용하였으며 묘갈에도 역시 상기한 고려의 관직만을 사용하였으나 유명을 달리한 선생의 영혼인들 얼마나 흐뭇하였을 것인가. 선생의 유택은 장수군 장계면 금덕리 호덕동 뒷편 양지바른 언덕에 있으며 세칭 이 산소를 백충신묘라 말한다. 여기서 멀지 않은 대로변에 신도비가 서 있으며 백충신 신도비라 붙이고 있다.

1828년(純祖 28年 戊子) 유림의 발의로 월강사(月岡祠)를 창건하고 정신재선생 퇴유재선생 손재선생 일휴당선생을 배향하고 탁월한 선생님들의 유덕을 흠모 하고 있다. 원주(原州)의 선비들은 선생을 죽림서원(竹林書院)에서 제사 지내고 상덕사(尙德祠)라 편액(扁額)하였으니 이 모두가 정신재 백장선생님의 고매한 인격 탁월한 학문 불굴의 지조를 숭앙하는 소치라 할 것이다.<sup>15)</sup>

14) 贈職 : 국가에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죽은 뒤 품계 관직을 추증하는 제도가 있었음 (神道碑銘墓碣銘 月岡祠誌 長水誌 水原白氏譜)

15) 註 : 議政府 領議政 正一品 中樞府領事 敦寧府領事 正一品 春秋館領事 正一品 弘文館 藝文館 領事 正一品

- 16) 長水黃氏世譜 海東風雅  
滄溪書院誌 長水誌 湖南  
誌 國史大辭典 人物考 韓  
國史中近世編 李朝實錄

방촌선생동상

제3 절 유사 이래(有史以來)의 명현상(名賢相) 황희(黃喜)<sup>16)</sup>

방촌(龐村)상공하면 삼척동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우리들의 선현이며 우리나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큰 인물이며 장수가 낳은 역사적인 인물임을 세상이 증명하고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방촌 상공(相公)께서는 정승(政丞)의 직위에 24년간을 계시면서 19년을 영의정으로 봉직하여 재직기간 최장기록을 세웠다. 24년간의 재직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니 이것도 기록의 하나가

될 것이다.

또한 27세에 벼슬길에 올라 90세까지 관직에 있었으니 63년간 관직생활을 하였으니 이 또한 특이한 신기록에 해당될 것이다. 6인의 왕을 섬기고 녹을 먹은 것도 전대미문의 기록이 될 것이며, 청백리(淸白吏)로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 것도 유사 이래 획기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상공께서는 인간성이 인자하기로 유명하다. 퇴청하여 사저(私邸)로 돌아오면 종의 자식까지도 무릎에 기어올라 수염을 당기고 뺨을 비틀면 ‘오냐 오냐 하시고 웃으셨다. 세상 사람들이 웅야(翁爺)라는 별명을 지어 불렀으니 이것은 사람 좋기로 유명한 할아버지를 호호야(好好爺)라 하여 속 좋은 늙은이를 희롱하는 말이다. 무고한 백성들이 죄 없이 감옥에서 고생한다하여 전국의 죄수를 풀어주었으니 방촌 상공의 인자함은 세상의 칭송의 대상이었다. 중용지도(中庸之道)를 이도(吏道)에 접목시켜 실천하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기 드문 행정가요, 정치가요, 경영자였다. 그러나 이런 인자한 면이 있는가 하면 문무백관(文武百官)에게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서운 정승이었으니 그 위엄에는 백관뿐 아니라 온 백성이 순종하였을 것이다.

사납다는 함경도 여진족을 토벌 후 육진(六鎭)을 설치하고 개선한 병조판서 김종서(金宗瑞)장군같은 용장도 정청에서 방촌상공의 일침에 식은땀을 흘렸다고 술회하고 있으니 무서운 위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이다.



상공께서는 청백리록(淸白吏錄)에 오를 정도니까 말할 것도 없이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항시 여재라고는 없었으며 호구지책에 급급하였음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상공께서는 항시 단벌밖에 없는 옷을 세탁하여 입고 출입을 하였는데, 세탁하는 사이에 조금씩 입궁명령이 내려져 잠뱅이만을 걸치고 행전을 치고 관복을 입고 입궁하였다가 세종대왕에게 발각되었다는 일화가 있는가 하면 방촌선생의 부인과 자부가 윗옷 하나를 가지고 번갈아 입으면서 외출하였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궁색한 전설이라고 할까.

방촌선생께서는 공(公)과 사(私)를 분명히 하는 데는 남달리 분명하였다. 어느 판서가 ‘내일 모레가 소관의 자식 혼레이오니 왕림하여 주십시오.’라고 사청을 하였다 하여 대간(臺諫)의 논의를 거쳐 탄핵되어 사직하게 하였다. 공청에서 사사로운 일로 사청을 하였다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탄핵에 넘겼을 것이다. 방촌상공께서는 평생 동안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제대로 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극기복례지도(克己復禮之道)며, 그 강목에 비례물언(非禮勿言) 즉 예도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비례물청(非禮勿聽) 즉 예도가 아니면 듣지 말라는 교훈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성현의 경지에 들어간 위인들이 행하는 초인적인 행세라 할 것이다.

### 방촌선생의 가문과 출생과정

상공의 휘는 희(喜)이며 초휘(初諱)는 수로(壽老)이다. 자(字)는 구부(懼夫)이고 성은 황(黃)씨이며 방촌(邳村)은 선생의 아호(雅號)이다. 선조는 중국 한나라시대의 유신(儒臣)으로 교치국(交趾國 지금의 방글라데시, 버마근방)으로 사신으로 파견되어 갔으나 때마침 계절적 태풍을 만나 표류, 파선하여 신라의 동해안에 표착함으로서 신라에 귀화하고 벼슬길에 오른 황락(黃洛)을 동방황씨의 시조로 하여 그 아들 세분이 황씨의 시조가 되었다. 장자가 평해황씨(平海黃氏)의 시조가 되었고, 차자가 장수황씨(長水黃氏)로, 셋째가 창원황씨(昌原黃氏)의 시조가 되었다. 장수황씨의 시조들은 몇대를 거쳐 부족이 늘어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영토를 찾아 북상하기 시작하였으나, 적당한 곳을 얻지 못하고 소백산맥을 육십령(六十嶺)쪽으로 넘어 장계(長溪)에 이르러 눈이 확 트이는 분지를 발견하고 비로소 정착지를 마련하였다. 이 곳이 지금의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월강리 송천리 등지이며 이 앞들을 개안들

17) 註：李義方 - 고려 명종  
때 무신으로 무력으로 문  
신들을 몰아내고 집권한  
권간

(開眼)이라 명명하면서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 것이다.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차지한 황씨부족은 선진문명을 이용하여 근방의 토족들을 굴복시키고 황씨부족국가(黃氏部族國家)를 형성하여 무사히 약 300년의 영화를 누렸으리라 짐작된다. 장계부근에 남아있는 고적들이 이 부족의 유물로 추정되는 것이 허다하게 남아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증하기 위하여 장수황씨세계(長水黃氏世系) 시조편(始祖編)을 옮겨 살펴보기로 한다.

「後孫 公有事高麗明宗 官至殿中監 時權奸李義方稔國 因舊日孫秀之嫌 必欲 心見機 投佩 還長水故鄉 又避縣官之物色 梨家移于南原地」

「후손 공유 고려 명종인군을 섬겨 벼슬이 전중감에 이르렀으나 때마침 권세를 잡은 간사한 무리 이의방<sup>17)</sup>이 나라의 일을 주장하여 흉모가 무르익어 감으로 옛적에 손수와 같이 혐의를 뒤집어쓸까 걱정되며 반드시 이의방이 마음대로 할 것임으로 공은 기회를 보아 패인을 던지고 고향땅인 장수로 돌아 왔으나 다시 이의방이 현감을 물색함으로 이것을 피하여 가권을 이끌고 남원에 터를 잡아 이사하였다.」

휘 공유(公有)는 이의방의 난을 피하여 고향인 장수로 돌아왔다는 간단한 문구가 남아 있으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뒷받침이 된다 할 것이며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망남동과 계남면 고기마을의 고분군은 가야시대의 토기와 같이 출토되는 유물이 황씨 부족들의 장기간의 장계들에서의 거주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황씨의 중시조로 휘 경(瓊)은 신라조에서 벼슬이 시중에 올랐으며, 휘 공유(公有) 휘 석부(石富) 증이부참의(贈吏部參議)로 이어져 18대를 내려와 할아버지가 휘 균비(均庇)로서 증직으로 의정부 좌참찬(議政府 左參贊)이요, 아버지는 휘 군서(君瑞)로 강릉부사(江陵府使)의 벼슬에 있었고 후에 이부전서(吏部典書)에 올랐으며, 어머니는 용궁김씨(龍宮金氏)로 감문위호군(監門衛護軍)의 딸로 2남 3녀를 낳으셨으니 상공께서는 차남으로 태어났다.

학설에 의하면 상공의 부친 군서공이 백두서생으로 있을 때 노상에서 토호(土豪) 한 사람이 어느 노인의 먹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서 토호를 회유하여 사연을 물은 즉 '이자가 나에게 명당을 잡아준다고 많은 금품을 가져가고서 명당을 주지 않은 사기꾼이며 악당이다.' 고 하였다.

군서공은 노인의 정상이 불쌍하여 가져간 금품을 대신 변상해주고 구출하여 주었더니 그 노인이 남원군 대강면 풍산에 명당을 잡아주어 그 자리에 자

신의 부친 휘 균비(均庇)를 장사 하였다. 그때부터 발복하여 벼슬도 하고 방촌선생도 낳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믿을 만 한 것이 못되고 장수지방에 내려온 전설과 고적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한 근거가 인정될 것이다.

장수땅에는 진산(鎭山)이 둘이 있다. 그 하나는 장안산(長安山)이요 또 하나는 팔공산(八公山)이다. 풍수설(風水說)에 의하면 지리적 조건이 장수땅에서는 정승 두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고 정평이 있었다. 그러한 근거로 해서 장수땅에서는 두 분의 정승이 태어났으니 그 한분이 황방촌 선생이요, 또 한분이 류후조(柳厚祚)상공이시다. 또 특이한 것은 두 분의 상공이 공통된 흡사한 성격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륜과 인간성 등에서도 공통점이 많았으니 그것은 장수땅의 지리적 조건이 두 분과 같이 관후인자(寬厚仁慈)한 인물이 탄생된다는 것이다.

고려조 말엽의 장수현청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였으며 지금도 여기를 황정골이라 부른다. 이 자리에서 현청을 현재의 군청사로 옮긴 것이 조선태종(朝鮮太宗) 7년이니 1407년이 된다.

조선 3대왕 태종(太宗)년대에 세워진 장수향교도 구현터 옆 당골(堂谷)에 세웠다가 숙종(肅宗)년대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으며 구현터의 소재지는 고증할만한 문건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방촌선생의 아버지 군서공은 벼슬길에 오르면서 여러 가지 직위를 거쳐 장수현감으로 임명되어 장수땅에 부임하였다.

옛 선조들이 부족국가를 형성하였던 고향을 찾아온 것이 그 나름대로 충분한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 군서공은 장안산에서 팔공산으로 이어지는 중간봉우리 밑에 산제단(山祭壇)을 만들고 천지신명에게 ‘치국평천하 할 수 있는 큰 아들을 태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렸다.

그 후 이산의 이름을 황정산(黃政山)이라 부르고 산제단을 만든 골짜기를 황정골(黃政谷)이라 부른다. 군서공의 부인김씨는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명산 장안산에 찾아가서 즐기게 솟아나는 샘물을 물줄기가 마르도록 마셔버리는 꿈이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태기가 있었는데 또한 소동이 일어났다. 장안산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시냇물이 말라 버렸으나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씨부인이 방촌선생을 해산하고 난 다음에는 물이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내렸다는 불가사의한 전설이 전하여 오는 것이다.



## 장수현 내아(內衙)에서 출생

풍수설의 전설이나 장안산의 전설을 막론하고 군서공이 장수현감으로 부임하여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 당동에 있던 내아에서 1363년(恭愍王 12年 元順帝至元 23年) 2월 10일 사시(巳時)에 만세의 인걸 방촌선생이 탄생하였다.

상공께서는 1371년 8세에 취학하여 목은(牧隱) 이색(李穡), 야은(冶隱) 길재(吉再) 양선생의 문하를 거쳐 학문을 연마하였다. 1379년(己未)인 17세 되는 해 판사복사사(判司僕司事) 최안(崔安)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최씨부인은 딸 하나를 낳고 돌아가셨다.

1383년(癸亥)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385년(乙丑) 진사시(進士試)에 참방하였고, 1388년에 공부전서(工部典書) 벼슬에 있던 양진(楊震)의 딸에게 재취장가를 들었으니 이분이 청주양씨(淸州楊氏)부인으로 세 사람의 아들만 낳으시고 평생을 해로하였다.

이 무렵 방촌선생은 복안궁록사(福安宮錄事)로 재직하였다고 하나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 않으니 취업의 시기는 진사시 참방 이후가 되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1389년(고려 恭讓王 元年 己巳)상공의 연세 27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의 보직을 받았으며 이로부터 3년 후인 1392년(壬申) 이성계의 혁명으로 고려왕조가 몰락하였음으로 벼슬의 뜻을 버리고 개풍현(開豐縣) 광덕산록(光德山麓)으로 소풍영월(嘯風咏月)하면서 고려왕조에 충절을 바치며 수절하는 구조(舊朝)의 선배들과 교유하며 나날을 보냈다.

광덕산이란 개성에서 멀지 않은 산으로서 두문동(杜門洞)이 있어 세칭 두문동칠십이현(杜門洞七十二賢)이 숨어 살던 곳으로 유명하며, 개성의 부조현(不朝峴)과 더불어 고려의 수절신들의 집단촌이었으니 조선왕조에 신복(臣服)하지 않고 여생을 보냈으며 그들의 자손들도 거개가 조선왕조에 출사하지 않아 더욱 유명하다.

이성계는 무관들로 짜여진 심복만을 데리고는 구세제민(救世濟民)의 선정을 베풀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목은 선생의 문하생 정도전(鄭道傳), 하륜(河崐), 포은선생의 문하생 변계량(卞季良)등을 두문동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치국의 동량이 될 상재(相材) 세 사람을 하산시켜 줄 것을 설유하였다.

두문동 72현은 협의를 거쳐 중국고대의 은나라의 재상 이윤(伊尹)에 필적할 재상(宰相)이 될 인물을 한사람만 하산시키기로 타협이 성립되었는데, 그

하산의 대상자는 그때 불과 31세에 불과한 방촌 황희선생이 지목되었던 것이다. 두문동의 수절신들을 대표하여 하산한 방촌선생은 정변의 풍파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여 나라의 편안함을 꾀했으며, 방촌선생같은 훌륭한 분이 조정에 들어감으로 해서 두문동이나 부조현에 숨어사는 수절신들의 안전도 도모하게 되었다.

1393(太祖 2年 癸酉) 방촌선생이 하산하고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에 임명되어 드디어 양조(兩朝)를 섬기는 신하가 되었으니 조야(朝野)의 환영을 받았으며 태조의 신임이 두터웠다.

상공계서는 예문관(藝文館) 춘추관(春秋館)을 거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을 역임한 후 1399년(己卯) 형조(刑曹) 예조(禮曹)의 정랑(正郎)을 역임하고, 다음해 병조(兵曹) 이조(吏曹) 등을 두루 거쳐 사헌부대사간(司憲府大司諫)과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수습(修習)하면서 경륜을 축적하였을 것이다.

1409년(太宗 9년 己丑) 공조판서(工曹判書)에 발탁되었으며, 그 이후에 형조판서 2회, 병조판서 1회, 예조판서 3회, 이조판서 3회, 호조판서 1회, 평양감사, 강원감사, 참지사(參知事), 참찬(參贊) 2회, 찬성(贊成) 대사헌(大司憲) 3회, 한성판윤(漢城判尹) 등을 역임하였으니, 역사상 황상공과 같이 여러 직책을 역임한 관리는 없었을 것이다.

1413년(太宗 13년 癸巳)세자 제(후에 讓寧大君)의 폐세자 논의가 제기될 때 방촌선생께서는 ‘국가의 기강을 물란케 하여 장유의 구별을 가리지 못하면 나라의 체통을 잃어버리니 장자인 세자를 폐하고 아우를 세자로 책봉함은 불가하다.’고 반대하였으니 태종대왕의 노여움을 사서 장수현 임현내면 도지리(陶旨里)에 유배되었던 것이다.

### 양녕(讓寧)의 폐세자 반대로 유배당하다.

거개의 서적에 적남원(謫南原)이라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장수현이 남원부(南原府)의 속현(屬縣)이므로 남원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신재 백장선생의 신도비명 도암(陶岩) 이경광 선생의 문집 방촌선생 자신이 쓴 정신재 백장선생의 묘갈명 등을 참조해 보면 전기 도지촌(陶旨村)의 후손들이 거주한 저택이 배소였음이 증명되고도 남는다.<sup>18)</sup>

방촌선생은 여기에 오셔서 멀지 않은 호덕동(虎德洞)에서 귀양살이하는 구조의 수절신이며 선배인 정신재 선생을 만나고 부족국가를 형성하고 살았

18) 白莊先生編 李綱光先生編 參照

던 선조들의 유적을 찾아서 선조들의 상 업적을 흠모하였을 것이다. 귀양살이의 뒷바라지로 따라온 가족 중에서 손자 상(翔字引儀)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여 후손으로 신 경창(慶昌)등이 장수에서 살았으며, 5대손 공건, 6대손 덕장, 7대손 민후(敏厚) 등이 호덕동의 근처에 새터를 마련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황곡리(黃谷里)라 불렀다.

후자는 이 황곡리가 방촌선생의 태생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와전된 것이며 여러 가지 고증자료를 참조한 결과 방촌선생의 출생지와 유배지는 장수읍 선창리와 장계면 월강리 도장마을임에 틀림이 없었다.

유배기간은 각 서적마다 다르므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정원일기(議政院日記) 방촌집(邗村集) 한국사(韓國史) 등 문헌을 참고 연구한 결과 1413년부터 1422년(世宗 4年 壬寅)까지 10년간이 되었다. 유배기간을 4년으로 기록된 데도 있다.

태종대왕은 세종에게 양위한 후 4년간을 상왕으로 계시다가 승하 하였으며, 운명 전에 세종대왕에게 반드시 방촌선생을 불러 대용할 것을 일렀다.

이에 세종대왕은 방촌선생의 귀양을 풀고 좌참찬(左參贊)에 기용하고 바로 우의정(右議政)으로 승차하였으니 비로소 정승의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다시 방촌선생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다음해에 좌의정에 올랐으며 1431년(世宗 13年 辛亥) 영의정(領議政)의 권좌를 누렸다.

방촌 선생의 일화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전부를 소개할 수 없고 몇 가지만을 선택하여 소개하였다.

#### **쓸모없는 정원(政院)은 헐어야 한다.**

방촌선생이 퇴청하여 사저에 계실 때면 손자들은 물론 종의 자식까지도 선생에게 달려들어 갖은 장난을 하였다. 하리(下吏)가 사저에 와서 급한 국사를 논의하고 서역(書役)을 할 때 종의 자식이 오줌을 싸서 문서를 못 쓰게 만들어도 조금도 노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선생의 부인께서 이런 것을 보고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위엄이 없게 처세 하는데 그런 분이 정승자리를 맡아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하였다.

하루는 새벽에 입궐할 일이 생겨 관복을 정제하고 교의(交椅)에 앉아 계시니 부인이 밥상을 차려들고 오시다가 방촌선생의 위엄에 놀라 밥상을 떨어뜨렸다.

선생은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에야 재상의 위엄을 아셨구려.’ 하였



다. 선생께서는 평소에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였으나 정청에 앉아 집무할 때는 누구나 바로 쳐다 볼 수도 없는 위엄을 느꼈다는 것이다.

평양위(平壤尉) 조대림(趙大臨)은 태종대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기화로 마음대로 방자하고 분수를 모르는 사치와 법도를 넘는 행동으로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왕실의 사위라는 직위 때문에 아무도 탓하지 않았으나, 현장(憲長) 맹사성(孟思誠)과 지평(持平) 박안신(朴安信)이 태종대왕에게 주청하지 않고 이를 잡아들여 법으로서 심문하였던바 태종대왕이 크게 노하여 두 신하의 처형을 특명하였다.

방촌선생은 그 처형이 부당하다고 역설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방촌선생은 기발한 발상을 떠올리고 호조와 공조의 관원과 원리(院吏)를 불러 명령을 내렸다. ‘모두다 정원 지붕에 올라가 기왓장을 걷어 내려라.’ 영의정의 명령을 거역한 관리는 한사람도 없었다. 삼시간에 정원의 기왓장이 걷어지기 시작하였다. 내전에서 이것을 본 태종은 방촌선생을 불러 그 이유를 물었다. 방촌선생은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법을 집행한 충직한 신하를 죽이는 것을 보니 재차 정원에 들어와 충직하게 법을 집행하는 신하도 없을 것인즉 이제는 정원의 쓸모가 없어져 헐어버리려 한 것입니다.’ 하고 답변하였다.

이것은 결사적인 충간이었으며 만일 태종대왕이 크게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였으면 두 사람과 같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리라. 태종대왕은 크게 깨달아 방촌선생에게 사과하고 맹사성과 박안신의 처형을 취소하고 조대림을 하옥시키는 하교를 내렸다. 맹사성과 박안신은 방촌선생의 뒤를 이어 모두 정승의 직위에 오른 명관들이니 방촌선생이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거는 모험을 감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방촌선생의 아들 호안공(胡安公 諱致身)이 신문(新門)밖에 가대를 신축하고 낙성하니 만조백관이 모여 경하 하였다.

선생께서는 정무를 마치고 늦게야 당도하여 집의 구조를 살펴보고 연석에 참석하지 않고 떠나시었다. 그것은 집이 너무 과대함을 무언으로 책망한 것임으로 호안공은 그날부터 집을 헐어버리고 분수에 맞게 고쳤으니 가법(家法)의 엄함이 추상과 같았음을 말하고 있다. (長川世譜)

세종대왕 시 하루 정원에서 중신회의가 열려 당상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때마침 함경도를 어지럽힌 여진족을 토벌하고 육진을 설치하여 일시적인 영웅으로 평가받던 병조판서 김종서(金宗瑞)는 큰 공로를 세우고 개선하여 교만한 자태가 역연하였으며, 회의에서 교의(交椅)에 비스듬히 앉아 불안한 자

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던 방촌선생은 별안간 공조참의(工曹參議)를 회의장으로 불러 책망을 하였다. ‘공조에서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병조판서의 교의가 다리가 짧고 길어 병조판서가 앉으시기 불편하게 하였으니 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의를 완전하게 수선하라’ 하였다. 물론 교의가 고장 난 것이 아니고 병조판서의 자세가 흐트러졌었으니 병조판서 김종서는 깜짝 놀라 바른 자세가 되었다.

우의정 맹사성선생이 황 상공에게 “너무 과하신 처사가 아닌지요”하고 황 상공에게 말씀한 바 황상공께서는 “공의 자리나 내 자리가 바로 김종서가 앉을 자리요. 지금 교만함과 예기를 꺾어 놓지 못하면 후사가 걱정되어 경고한 것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회의가 끝나고 김종서 병조판서는 동료들에게 “여진족 수십만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두려움을 몰랐는데 방촌선생의 일갈에는 전신에서 식은땀이 흘러 속옷을 적셨다”고 술회 하였다.

김종서장군이 당시 방촌선생의 경고를 몸에 새겨두고 서둘지 않았으면 단종 폐위 때 수양대군의 몽둥이에 맞아 죽지 않았을 것이며 조선의 역사도 다소 변형되었을 것이다.

### 많은 일화를 남기고 선정을 베푼다.

상공께서는 입궐하신 후 양씨부인(楊氏夫人)께서는 좋은 배 두개를 선물 받았다. 부인께서는 친정댁에 가려든 참이어서 상공께서 거처하는 방안의 궤짝위에 놓고서 나가셨다. 대궐에서 퇴청하셔 쉬시던 상공께서는 기묘한 관경을 목도하였다. 쥐 한 마리가 배를 가져가려고 하나 둥글고 커서 가져갈 수가 없다. 조금 있으니 쥐 한 마리를 더 데려와서 두 마리가 되고, 한 마리는 배를 네 발로 껴안고, 한 마리는 배를 껴안은 쥐의 꼬리를 물고 끌어 배 두개를 모두 가져가 버렸다. 상공께서는 쥐의 지혜와 협동심에 놀라서 구경만 하고 감탄하고만 있었다. 이윽고 친정에서 돌아온 양씨부인은 배를 찾았으나 쥐가 하는 것을 구경만 하신 상공께서 안다고 할 수도 없었다. 불호령은 비녀(婢女)에게 떨어졌으며 배를 절취한 죄를 족장형(足杖刑)으로 다스렸다. 비녀는 불과 세대의 장형을 맞고 배를 훔쳐 먹었다 대답하였으며 장형 몇대를 더 맞고 이 사건은 끝이 났다. 그러나 매가 무서워 먹지도 않은 배를 훔쳐 먹었다고 토설하는 비녀를 보고서 황상공께서는 관원들의 욕사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다. 며칠 후 조회에 나간 상공께서는 세종대왕에게 사저에서

일어난 일을 예를 들어 전국에 계류 중인 옥사도 이와 같이 애매하고 억울한 사건이 많을 테니 모두 방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종대왕께서는 필시 억울하게 당하고 죽은 백성이 많을 것이라 하고 전국의 계류 중인 옥사를 방면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

이것이야말로 성군의 은덕이라고 칭송하였으나 실속 방촌 황상공의 은덕이었다는 것이 세상의 공론이었다. 이로 인하여 범죄가 없어지고 관원들의 토색질은 더욱 자취를 감추었다.

범인들이 사물을 보는 것과 위인들이 세상을 보는 것이 천양지차가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일을 보고서 나라의 대사를 생각하였으며, 용단을 내려 일거에 전국의 억울한 백성의 괴로움을 풀어 주었으니 범인으로서 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sup>19)</sup>

황상공의 적선과 자비는 하늘이 감동하여 학수(鶴壽)가 90 세에 이르게 하면서도 건강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 영의정 고령부원군(領議政 高靈府院君) 신숙주(申叔舟) 선생은 문집에 방촌선생의 기록을 남겼으니 다음과 같다. ‘충명이 감소되지 않았고 고려조의 전장(典章)이나 경사(經史)에 이르기 까지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밝게 그 수치까지 헤아렸으며 연기가 적고 강장한 사람도 역시 감히 미치지 못했다.’ 고 술회하고 있으니 선생의 건강은 천부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1428 년(世宗 10 年 戊申) 방촌선생은 청백리록(淸白吏錄)에 선록됨으로써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 청백리록에 선록되는 것을 상신록(相臣錄)이나 문형록(文衡錄)에 오르는 것 보다 더 영예롭게 생각하는 시대였으며, 조선 초기의 청백리 선발이란 지극히 어려웠으며 실제로 영의정 되기보다도 월등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태조 7 년간 정승은 4 인이 되었는데 청백리는 5 인이요, 정종 태종년간 18 년을 합쳐 정승은 15 인이 되었는데 청백리는 8 인이며, 세종년간 32 년에 정승은 15 인에 청백리는 방촌선생 외 14 인 밖에 선정되지 못했다. 문종, 단종, 세조년간 18 년에 정승 18 인에 청백리는 7 인이 선발되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선발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중엽부터 청백리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초기 청백리에는 현재까지도 절찬을 보내고 있으며 방촌선생은 장수 산천의 수려한 정기를 타고났기 때문에 평생 동안 오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1432 년(世宗 14 年 壬子)에 사계장(賜几杖)의 은전이 내려졌다. 사계장이

19) 林副學傳記



란 나이 많은 신하에게 지팡이를 하사하는 것으로 임금이 신하를 최고로 대접하는 방편의 하나로 제정된 제도였으니 방촌선생의 영예는 극에 이르렀다. 동년에 기로소(耆老所)에 입사하게 되었으니 원로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 기로소란 국가가 설치한 원로의 양로당으로 기로소만은 임금도 신하와 같은 자격으로 입소하는 선례가 있어 태조, 숙종, 영조 등 세분의 임금이 기로소에서 원로들과 같이 생활을 하였다.

방촌선생은 유사 이래 우리나라 재상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상으로서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명성은 다시는 수정될 수 없을 것이다.

### 방촌선생의 중요한 치적

- (1)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을 발간하여 왕실의 가통을 정비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체통을 세웠으며 우리나라 족보(族譜)제도의 체계를 세웠다.
- (2)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하여 처음으로 정통국사를 제작 후대에 조선왕조실록을 완성시킨 공도 인정해야 한다.
- (3) 치평요람(治平要覽) 역대병요의주상정(歷代兵要儀注詳定)등을 행정과 국방의 기본이 되게 하였으니 정부의 체계를 잡았다 할 것이다.
- (4) 문교(文教)를 강화하고 각 군현에 훈도(訓導)를 두어 아동교육에 힘쓰으로써 처음으로 체계적 교육행정이 시작되었다.
- (5) 국방에 주력하여 평안도 약산(藥山)에 축성하고 영변(寧邊)에 병영(兵營)을 설치했으며 경원(慶源) 영북(寧北)에 이진(二鎭)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두만강 이남을 완전 수복하였다.
- (6) 예전(禮典)을 완성하고 악율(樂律)을 만들어 이악(雅樂)을 완성하여 처음으로 국악을 가지게 되었다.
- (7) 과다한 세금을 혁파하고 차별세제를 없애고 백성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
- (8) 형벌제도를 개선하고 전국의 애매한 수인들을 석방함으로써 형옥의 제도를 개선하였다.
- (9) 과거의 제도를 개선하여 공평한 등용의 길을 열어 주었다.
- (10)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천(道薦)의 제도를 활용하여 인재를 발탁하였다.

기타 방촌선생의 치적을 열거하려면 한정이 없음으로 이것으로 줄이겠다.

### 방촌선생의 문장과 시문

방촌선생께서는 영의정 재직 시 18회의 사직서를 올렸으나 윤택되지 않았으며 1440년(世宗 31年 己巳)에 처음으로 세종대왕이 받아들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 2품의 녹봉을 지급하고 입조(入朝)하지 않고서 사저(私邸)에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며 종신토록 국가의 정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영의정사임소(領議政辭任疏)가 많으나 다음 한장을 전재하여 선생의 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所欲必從 惟聖人之大度 不能者止 及微臣之至懷 敢陳惓惓<sup>20)</sup>之誠 仰瀆高明之鑑 伏念性質樸陋 學術荒疏 謬蒙太宗之簡知 獲與群賢而混進 未有涓埃之補 從功 夜之勤 福禍災生 事乘罪及 甘心數載 幸保全於窮村 壹意一朝 復收用於聖代 恭惟主上殿下 乾坤具量 父母之仁 特命舊物於衆謗之中 擢舉無狀於具瞻<sup>21)</sup>之長 縱至糜粉而難報 敢以盛滿而遽辭 因循<sup>22)</sup>態今 龜勉從仕 耳聾而眼亦暗 聽察惟難 腰痛而脚不進步 輒躓 蓋因元哀嫺 遂致百疾之侵凌 況臣初度之辰 已滿七旬之歲 老而致仕 國有常規 病而閑 情非虛飾 臣伏望憐臣年迫遲 諒臣誠出於深哀 漁發<sup>23)</sup> 俞音<sup>24)</sup> 許兕職位 臣謹優遊聖澤 少延生命於餘年 恒祝齡 庶答生成之洪造」

「하고자함을 반드시 좇음은 오직 성현의 큰 도량이요 능하지 않는 자 그침은 신의 생각으로서 마침내 징험한 바이니 간절한 정성으로서 감히 아뢰옵고 높고 밝은 보살핌을 우러러 흐리게 하오니 엎드려 생각해 보건데 신은 성질이 순박하고 비루하여 배움과 꾀가 거칠고 소홀하온데 그릇되게 태종대왕의 발탁하심을 힘입어 여럿 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섞이어 나아감으로 물방울이나 티끌같은 보필도 있지 아니하고 다만 조석으로 근무한 공박에 없으니 복이 과하면 재앙이 생기고 일이 어그러져 죄에 미침을 마음속으로 달게 생각하고 몇년내에 궁촌에서 생명을 보전하였더니 성조에 다시 거두어 쓰심을 어찌 뜻 하였으리오. 삼가 생각하오니 주상전하는 하늘과 땅 같은 도량이요 부모와 같이 어짐이니 늙은이가 여러 사람의 비방 속에 있음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형상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이 우러러 보는 높은 어른으로 뽑아 올리시니 비록 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보답하기 어려우니 감히 두려운 사실로서 가득하여 옛것을 버리지 않고 지금에 이르러 힘써 노력하고 쫓아 섬겨 귀가 먹고 눈이 역시 어두어 듣고 살피는데 오직 어려웁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나가지 않으니 제자리걸음이 되어 자주 쓰러지니 모두 원기가 쇠잔함으로 인하여 백가지 병이 침입한 것인 즉 항차 신은 회갑이 지났으며 칠순의 나이에 가득하였으니 늙으면 관직을 내놓고 물러

20) 惓惓 : 漢書에 發憤惓惓 憂國之心이라 하여 진실하고 정성러운 간절하게로 해석함

21) 具瞻 : 詩經 節南山에 赫赫尹 民具爾瞻이라 하여 여러사람이 우러러 보는 것

22) 因循 : 漢書에 因循守職 無所改作이라 하여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으로 해석함

23) 漁發 : 임금이 詔勅 또는 勅令을 천하에 알리는 것

24) 俞音 : 신하가 아뢰는 말에 임금이 대답하는 말씀

남이 상시 규칙이 있는 나라의 법이요 병들어서 한가함을 구함은 뜻이 허식에 있음이 아니니 신은 엎드려 비오니 신의 나이 노쇠하여짐에 임박하였음을 가련히 여기시고 신의 지성이 깊은 충성에서 나온 것을 생각하여 주시와 칙령을 천하에 내리시어 신하의 아뢰에 대답하여 주시어 직위를 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신은 삼가 성스러운 혜택을 입어 편하고 한가롭게 살아남은 나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고 항시 대왕이 오래 사실것을 빌어 성상의 큰 은혜에 모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상소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바와 같이 상공의 연세 69 세에 이 상소를 올렸으나 허용되지 않았으며 이 뒤에도 19년간을 영의정의 직책을 맡았었다. 장기집권을 안하려고 무척 노력하였으나 허사가 되었으니 다른 영의정과 같이 배척하는 상소장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음을 볼 때 얼마나 명망이 높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임진왜란을 수습한 대재상 서애 유성룡(柳成龍)선생 같은 인물도 첫번 영의정의 대명을 받았을 때 배척하는 상소문이 연달아 올라가 불과 3일만에 파직되었으며 재차 대명을 받은뒤 장기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다음은 상공께서 강원감사 재직 중 강릉 경포대에서 읊은 시(詩)이다.

「澄澄鏡浦涵秋月 落落寒松鏤碧烟 雲錦滿地臺滿竹 塵寰亦有海中仙」

「밝고 밝은 경포에 가을달이 젖었구나. 낙락하게 늘어진 외로운 소나무 푸른연기 감겨있네. 비단같은 구름 땅위에 가득하고 푸르른 대나무 돈대에 가득하다. 티끌 같이 더러운 세상에도 바다 속에 신선이 노니는구나.」

다음 글은 상공께서 81세 되는 1443년 설날 원일회연례(元日會宴禮)에서 지으신 시이며 어전에서 읊은 것이다.

(九九年來押百官 三元獻壽對天顏 日明堯殿春風裏 多少群臣各盡歡)

「81세가 오도록 백관을 거느리고 정월 초하루날 헌수하니 임금의 얼굴을 대했다. 봄바람 부는 여진 임금의 궁전속에 햇빛이 밝도다. 높고 낮은 군신들이 제각기 즐거움을 다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글과 시문이 많이 있으나 전부를 소개할 수 없어 이만 줄인다. 상공께서는 위 잇귀를 남기시고 9년만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다



복하고 고귀한 인생을 살다 가셨다 할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으나 얼마전만 해도 복(福)이 있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였으니 상공이야말로 여러가지 복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壽) 부(富) 귀(貴) 다남자(多男子) 강령(康寧) 등 많은 복을 갖추었다. 오직 한가지 부(富)만은 이설이 있을 수 있으나 63년간의 녹봉 생활도 부의 일종으로 본다면 하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상공께서는 아들을 네분을 두셨는데 치신(致身), 보신(保身), 수신(守身), 직신(直身)이라 하였다. 후손들이 모두 현달하였다. 방촌선생께서는 또 한가지 복이 있으니 자손현달(子孫顯達)이라 할 것이다.

### 선생 사후의 추존(追尊)

선생께서는 1452년(文宗 2年 壬申) 2월 8일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상공의 학수 90세가 되는 해였다. 문종대왕께서는 방촌상공을 세종묘에 배향할 것을 명령하시고 시호를 익성공(翼成公)이라 내리셨으니 사려심원(思慮深遠)하여 익(翼)이요, 위상극종(爲相克終)하니 성(成)이라는 뜻이니 선생의 평생 행적이 간단히 설명된 것과 같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다.

장수의 유림들이 창계서원(滄溪書院)을 세워 방촌선생을 주벽으로 모시게 된 것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서원과 향사에서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니 다음과 같다.

창계서원(滄溪書院) 장수(長水), 옥동서원(玉洞書院) 상주(尙州), 풍계서원(楓溪書院) 남원(南原), 용진서원(龍進書院) 완주(完州), 태악사(台嶽祠) 연기(燕岐), 소동사(召東祠) 삼척(三陟).

또한 선생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있는 영당은 다음과 같다.

파주영당(坡州影堂) 파주(坡州), 연백영당(延白影堂) 연백(延白), 화산사(華山祠) 진안(鎭安), 노안영당(老安影堂) 나주(羅州), 락하정(洛河亭) 파주(坡州).

선생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京畿道 坡州郡 炭縣面 金蠅里) 간좌(艮坐)원에 있으며 출생지인 장수에는 창계서원과 황씨부족국가의 유적 그리고 방촌선생 후손들의 묘소가 산재해 있을 뿐이며 역사상 가장 위

대하다는 방촌 황희선생을 기념할 만한 사업 하나가 없음을 죄송하고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수 문화원(원장 김진영)은 1993년부터 장수군과 황씨 전라북도 종친회의 협조를 얻어 방촌 황희선생 동상건립을 추진했으나 위치 선정 등 어려움이 많아서 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1996년에 군수 관사를 비롯 주변 부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함에 따라 장수군수 김상두와 황씨 전북 종친회(회장 황동규)의 많은 지원으로 공원내에 동상을 건립하고 1996년 10월 14일 제29회 군민의 날에 제막했다. 동상 옆에 와비를 세우고 행장을 기록했다. 다음은 비문이다.

「황희 선생은 청백리로서 이도(吏道)의 귀감이시고 중용의 도를 실천하신 명현상으로서 만인의 숭앙을 받는 어른이시다.

장수 황공(長水黃公)의 휘는 희(喜)요 자는 구부(懼夫)이며 방촌(邳村)은 아호요 시호는 익성(翼成)이다. 여조말에 강릉부사를 지낸 황공군서(黃公君瑞)의 둘째아들로 1363년 2월 10일 탄생하시어 송도에서 성장하셨다. 27세에 등과하여 성균관학관으로 입사한 이래 60여년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수범을 보이셨다. 평안감사 한성판윤 육조(六曹)의 판서를 모두 역임하셨고 양사(兩司)의 수장과 특히 삼공(三公)의 직에 40년간 봉공중 19년을 영의정으로 계시면서 정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세제, 역사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제도를 쇄신하여 국기를 다졌으며 세종조에 태평성대를 열으셨다.

공은 성품이 후덕 인자하셨으나 불의(不義)에는 대쪽같은 기상으로 구부러진 곳을 바로 잡으셨다. 태종이 적장세자(嫡長世子)를 폐하려 하자 적장세계를 직간하시다 향리인 장수로 귀양 오시어 적거수년(謫居數年)동안 앞서 유배오신 백장(白莊)선생과 교유하시며 이고장 문화창달의 초석이 되셨으며 향수는 90세를 누리셨다.」

#### 제4 절 왜구(倭寇)의 근본을 섬멸한 이종무(李從茂)장군<sup>25)</sup>

왜구(倭寇)하면 삼국의 후기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연안을 무대로 약탈행위를 일삼던 일본의 해적으로 고려 충정왕(忠定王) 때부터 격렬해지면서 조선조 초기에도 그 피해가 막심하였다.

조선조(朝鮮朝) 세종(世宗 1年 己亥) 즉 1419년 5월 14일 조정의 어전회

25) 韓國史 國史大辭典 李朝  
實錄世宗編 李從茂將軍  
묘갈명 長水李氏世譜 全  
北誌

의(御前會議)에서 때마침 충청도 서천현(舒川縣)의 비인(庇仁) 포구에 침입한 왜구가 선박을 불태우고 300여명의 백성을 학살하고 노략질 하였으며 다시 북쪽으로 이동하여 황해도와 평안도의 연안을 습격하여 백성을 살상하고 재물을 노략질 하였다는 장계가 연달아 올라와 그 대책을 수립하는 중이었다. 사건이 중대하여 왕위를 아들 세종에게 물려준 선왕(先王) 태종대왕이 상왕(上王)으로서 참석하여 국정을 논의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되어 있다.

상왕과 세종대왕께서는 영의정(領議政) 유정현(柳廷顯) 좌의정(左議政) 박은(朴訥) 우의정(右議政) 이원(李原) 예조판서(禮曹判書) 허주(許酒) 병조판서(兵曹判書) 조말생(趙未生)과 각조판서와 중신들이 모여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對馬島)의 왜적을 허를 찔러 정벌(征伐)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병조판서의 강경한 정벌론과 상왕의 「적을 소멸(消滅)하지 않으면 매양 침노를 당할 것이다.」라는 엄명이 있어, 대마도 정벌군을 편성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원정군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

중군절제사(中軍節制使) 우 박(禹 博)

동(同) 이숙무(季叔畝)

동(同) 황 상(黃 象)

좌군절제사(左軍節制使) 유 습(柳 濕)

동(同) 박 초(朴 礎)

동(同) 박 실(朴 實)

우군절제사(右軍節制使) 이지실(李之實)

동(同) 김을화(金乙和)

동(同) 이순몽(李順蒙)

위와 같은 부서를 정하고 경상, 전라, 충청 등 삼도 병선과 군병은 동년 6월 8일까지 견내량(見乃梁 巨濟郡 沙等面 德湖里 浦口)에 집합하게 하였다. 5월 21일 다시 정벌군의 부서가 보강되었으니 아래와 같다.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 유정현(柳廷顯)

삼군도절제사(三軍都節制使) 최윤덕(崔閔德)



종사관(從事官) 오선경(吳先敬)

동(同) 곽존중(郭存中)

진무(鎭撫) 정 간(丁 艮)

동(同) 김윤수(金允壽)

1419년 5월 21일부터 제장이 서울을 출발하여 25일에 모든 정벌군이 거제도로 집합하기 시작하였으니 신속한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5월 29일에는 삼군도체찰사 이종무장군의 친서가 대마도수(對馬島守)에게 전달되었으나 대마도수는 아무런 회답을 보내지 않았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와서 1419년 6월 19일 사시(巳時 오전 10시) 거제남면(巨濟南面) 주원방포(周原防浦 現 蜂岩面秋蜂里)에서 삼군도체찰사 이종무장군의 선단이 출항을 하여 대마도를 향하여 진군하였다.

당시 정벌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병선(兵船) 227 척 장사총계 1만7천2백85명 양식(糧食) 65일분이었다. 먼저 언급한바 대마도수 종정성(宗貞盛 소오사다모리)에게 효유서(曉諭書)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서가 없어 6월 20일 오시를 기하여 대마도에 상륙진군하여 다음과 같은 전과를 올렸다.

선박(船舶) 129 척 소각 해적가옥 1939호 소각 참수 114수포로 21명 중국인 피납자 구출 131인 전과를 올렸으나 우리측의 전사자도 100여명에 이르며 좌군절제사 박실장군이 전사하는 비극을 당했다.

동년 7월 3일 대마도정벌에 전승으로 성공한 개신장군 이종무장군이 삼군을 이끌고 거제도에 회항하였으니 조정에서는 승전연을 베풀고 이종무장군의 벼슬을 올려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 대마도 원정군의 삼군도체찰사 이종무장군은 누구인가 바로 우리 관향이 장수인 불세출의 장군으로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여 다시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노략질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이종무장군은 장수군에서 배출한 고려조의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의 벼슬에 오르고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에 봉군되어 초장을 하사받아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여생을 마치고 후손에게 봉토(封土)와 초장을 넘겨주신 이림간(李林幹)선생을 시조로 하여 증조에 휘 원만(元萬)이 충혜왕(忠惠王)조에 소부정승(少府政丞)으로 봉직하고 조부에 휘 을진(乙珍)은 공민왕(恭愍王)조에 문하시중 순충보조공신(純忠補佐功臣)에 봉해져 장천부원

군(長川府院君)을 습봉하였다.

아버지는 휘 길상(吉祥)으로 군기사윤(軍器寺尹)의 무직(武職)에 봉직한 유명한 무관이었다. 이분이 아들 두분을 두셨는데 형이 종화(從華)요, 아우가 종무(從茂)이니 1360년(高麗恭愍王 9年 元順帝 20年 庚子) 3월 25일 출생하여 부친 휘 길상공이 무관직을 봉직함에 따라 왕조의 서울인 개성에서 교육을 받아 훌륭한 무관으로의 자질을 키웠다.

장군께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이 왜구의 침입이 가장 격심하였던 시기이며, 심지어 고려조정에서는 삼도연안의 백성을 산간지방으로 집단이주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

강원도 강릉(江陵)지방에 왜구가 상륙하여 노략질이 심하자 장군의 부친 길상을 강원도 절제사(江原道 節制使)로 임명하여 왜구토벌을 명령하자 불과 나이 21세인 이종무(李從茂)는 자원으로 종군하여 강원도 동해안에 침입한 왜구를 섬멸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자 조정에서 공을 인정하여 정용호군(精勇護軍)에 임명하여 무관직에 출사하게 되었으며 직위가 올라 웅진만호(津萬戶)로 승진되었다. 고려왕조가 멸망하고, 조선이 창업하는 격동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1397년(朝鮮太祖 6年, 明太祖 30年 丁丑) 왜구가 대거 침입하여 웅진만호의 성을 포위하고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므로 장군께서는 왜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물리침으로 조정에서는 장군에게 첨절제사(僉節制使)에 승진시킴으로서 무관의 요직을 차지하였다.

1399년(定宗 1年 己卯) 내직인 상장군(上將軍)으로 승차되어 서울로 올라왔으며 때마침 일어난 왕자방간(王子芳幹)의 난을 당하여 왕자군을 무찔러 이것을 평정한 공로로서 1401년(太宗 1年 辛巳)에 추충분의익재좌명공신사등(推忠奮義翊戴佐命功臣四等)으로 훈록(勳錄)되어 장천부원군(長川府院君)으로 봉군되는 영예가 돌아갔다.

벼슬이 좌군총제를 거쳐 1408년(太宗 8年 戊子) 남양 수원등처 조전절제사(南陽 水原等處 助戰節制使)와 중군절제사(中軍節制使)를 역임하였다. 1409년에는 안주명마사(安州名馬使)를 1411년에 안주절제사(安州節制使)로 북방방어에 종사하시다 1412년(太宗 12年 壬辰) 별시위좌이변절제사(別時衛左二番節制使)의 신분으로 명나라 조정에 하정사(賀正使)로 가셔서 국교의 정상화에 노력하였고 1413년(太宗 13年 癸亥) 동북면도안무사(東北面 都安撫使)겸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거쳐 영길도 도안무사(永吉道 都安撫使)가 되었다. 1417년(太宗 17年 丁酉)에 내직으로 들어와 의정부 좌참찬

26) 世宗實錄 28, 7年 乙巳  
六月 丁未日條 同 乙卯  
日條

(議政府 左參贊)을 거쳐 우군도총제(右軍都總制) 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를 거치면서 무장으로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1419년 드디어 삼군도체찰사의 임명을 받아 대마도 정벌에 성공하여 왜구의 근원지를 없애면서 비로소 왜구의 살상과 노략질에서 벗어났다.

1421년(世宗 3年 辛丑)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명성을 얻고 돌아왔으나 과천에서 귀양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1423년에 풀려나 복관되었다.

1425년(世宗 7年 乙巳) 6월 9일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65세였다. 세종대왕은 내관을 시켜 조문하고 부조하며 3일간 조회(朝會)를 철폐하였다. 시호를 내려 양후(襄厚)라 하였으니 갑주(甲冑)로서 공로가 있음이 양(襄)이요 생 각함이 어둡지 않고 후덕하니 후(厚)이라 하였다.

다시 1425년 6월 17일 을묘(乙卯)에 세종대왕께서는 장천부원군 이종무장군을 제사 지내게 하고 교서(敎書)를 내려 장군의 국가와 민족에게 바친 공로를 찬양하였다.<sup>26)</sup>

별세하신 이종무장군의 유해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지리(京畿道 龍仁郡 水旨面 古地里) 산(山) 79번지에 안장되어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어 왔으나 경기도에서 지방기념물(地方記念物) 제25호로 지정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묘역정비와 진입로 정비를 끝냄으로서 생전의 장군의 국가에 공헌한 공로가 영원하게 포양되게 하였으니 영혼이라도 흐뭇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이며 후인들의 장군에 대한 보답과 보은도 되었을 것이다.

## 제5 절 단종 폐위에 항거한 송보산(宋寶山)

요순(堯舜)과 같은 임금인 다스리는 세상의 백성은 요순때와 같은 백성이 되나 요순때와 같은 백성이라도 겉주(桀紂)와 같은 임금인 다스리면 요순때와 같은 선량한 백성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세종대왕의 총애 밑에서 충성을 다하여 보필하였으나 성군 세종의 승화와 문종의 2년간의 짧은 집정에 이어 단종대왕의 축출로 인한 간사한 무리들의 득세는 한문의 정통을 체득한 선비로서는 차마 견뎌내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사육신(死六臣)은 생명을 버리면서 항거하였으나 생육신(生六臣)은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등졌다.



세조(世祖：光陵은 世祖의 陵)에 권세 있는 간사한 무리가 정권을 잡아 악독한 행동을 자행하여 세상의 일이 날마다 그릇됨을 보고 우울하여 고향의 집으로 돌아왔다.<sup>27)</sup>

27) 光陵朝 權奸秉政 恣行惡  
毒見時事日非 鬱歸鄉廬

이글은 박성양(朴性陽)선생이 지은 퇴휴재선생의 신도비 기문(記文)에서 옮겼다. 선생께서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의 등극에 반대하고 단종대왕(端宗大王)의 폐위에 항거하여 벼슬을 버리고 장수땅으로 돌아왔으니 비록 사절(死節)하지는 못하였으나 생육신의 행적에 비겨 부족함이 없다.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지조를 헌신짝 같이 버리고 권세에 아부하고 벼슬이나 돈에 팔려 아부하는 간사한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 퇴휴재 선생의 지조와 정신을 높이 우러러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선생의 휘는 보산(寶山)이며 자는 대인(大仁), 관향은 연안(延安)이며 퇴휴재(退休齋)는 아호(雅號)이다. 고려국 동덕 좌명공신(同德 佐命功臣) 연안부원군(延安府院君) 휘경(卿)의 고손(高孫)이며 이의판서(吏儀判書) 휘 훈(勛)의 증손이 되는데 문과에 등과하고 대사성(大司成)을 거쳐 원주목사(原州牧使)에 부임하여 홍건적(紅巾賊)과 싸우다가 순절한 휘 광언(光彦)은 조부가 되고 화령부윤(和寧府尹)의 벼슬에 있던 휘 흥도(興道)가 선생의 부친이다.

어머니는 청송심씨(靑松沈氏)였으며 1402년(太宗 2년 壬午) 2월 3일 출생하였는데 선생은 낳을 때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의용이 웅장하였다.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선생께서 사사하여 정통학문의 진수를 터득하였다. 선생은 특히 춘추의 제자백가의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달통하였으니 세상에 이 르기를 송춘추(宋春秋)라 하였다.

송춘추라 함은 춘추사기와 제자백가의 학문에 해박한 석학이라는 뜻으로 선생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는 별명인 것이나 점필재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선생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선생과 정이가 돈독하였으며 두 선생도 선생의 박식한 학문과 명확한 이론에 심히 경복하였다.

1428년(世宗 10年 戊申)에 진사시(進士試)에 장원의 영예를 차지하고 1429년에 문과별시(文科別試)에合格하여 성균관 전직(成均館 典籍)에 보직됨으로써 벼슬길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병조(兵曹) 예조(禮曹)의 정랑(正郎)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 헌납(獻納) 사간(司諫) 홍문관(弘文館)의 수

찬(修撰) 교리(校理) 등을 거쳤으며 1438년(世宗 20年 戊午)에 도승지(都承旨)에 올랐다가 1449년(世宗 31年 己巳)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발탁되었다. 1456년(丙子) 세조의 등극과 동시에 사표를 던지고 장수현 임남면 침령에 새터를 잡아 낙향하였으며 동조에서 이조판서의 벼슬에 있다가 먼저 장수에 돌아온 동서(同婿)인 손재(遜齋) 김남택(金南澤)과 한 마을에 살면서 시문과 풍류로 생을 즐겼다.

<꽃이 필 때나 단풍이 물드는 가을을 당할 때마다 두서넛 벗들과 같이 맑은 물 높은 산 사이를 노닐면서 산의 고요함과 물의 흐름의 인자함과 슬기로운 참다운 취미를 즐겼다.>(每值花辰楓秋 伴二三友朋 逍遙於泓淸之間 以樂山靜水動 仁智之真趣)하였으니 산수가 수려한 장수 땅에 들어온 두 판서는 진실로 요산요수(樂山樂水)의 즐거움을 만끽하였던 것이다.

두 판서는 모두가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 선생의 손녀서(孫女婿)로 판서를 지낸 백형옥(白荊玉)의 사위가 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백씨 부인들의 권유도 있었을 뿐 아니라 정신재 백장선생의 유덕을 흠모하는데 더 큰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선생이 교리(校理) 재직시 올린 상소문의 일부를 보면 선생의 치국제세(治國濟世)하던 경륜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以爲人心者 國家之元氣 教化 養之氣之具也 不任賢者則教化不行 不去苛斂則人心不安 失人心以而得天下 蔑教化而求治平 非臣文敢知也

「인심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원기요 교화는 원기를 기르는데 필요한 바이니 어진 재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교화를 행하지 못하고 조세를 혹독하게 거두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 인심이 불안하니 민심을 잃고서 천하를 얻음과 교화를 업수이 여기고 평안하게 다스려짐을 구하는 것은 신은 감히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그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호족들과 강한자를 물리치고(黜豪族) 혹독한 추렴을 없애고(除暴斂) 가르침을 밝게 하고(明教化) 규율과 법을 떨치고(振紀綱) 옥사와 송사를 공평히 하고(平獄訟)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開言路) 등등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를 덜어 주고 국가의 터전을 반석위에 세울 수 있는 수천마디의 주옥같은 경륜이 담겨져 있다.

天下之事 不進則退 國家之事 不治則亂 進退治亂 固有其數而其所以進退治亂者實由於人 故人君當審其治亂之機 勉其所以治 去其所以亂 期於必治而復己 不可安於小成局於常規 悠泛度日 任其成敗也)

「천하의 일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는 것과 같고 국가의 일은 다스리지 않은 즉 어지러우나 나아가고 물러나고 다스리고 어지러움이 진실로 그 헤아림에 있으므로 그 진퇴 치란하는 것이 실로 사람에게 연유하는 바라. 마땅히 그 치란이 기회를 살피 다스리는 바에 힘쓰고 그 어지러운 바를 없애어 반드시 다스린 후를 기다려 그치고 적은 것을 이룸에 안심하는 것은 불가하니 항시 쓰는 법에 굽히어 오랫동안 세월을 보내고 그 성패를 맡기는 것이니라.」

선생의 충성심과 백성들의 피해를 덜어 주려는 충정은 지극하였으며 세종대왕의 인정을 받아 예조판서에까지 등용되었으나 선생의 탁월한 경륜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았던 것이다.

세종대왕의 서거와 문종대왕의 단명은 선생으로 하여금 실의에 빠지게 하였으며 선생을 산수간에 은둔하게 하는 마음을 굳히게 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천하의 수재 뇌계 유희인(俞好仁)이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선생의 소개를 받아 점필재 선생의 문하로 옮겨 성리학과 문장(文章)에 대한 탐구에 전력을 다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선생은 장수에 들어와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도학과 춘추 백가의 학문을 전수시켰음으로 세상 선비의 추앙을 받았다. 장수 선비들의 발의로 월강사(月岡祠)에 모시게 되었으며 진안 유림의 추대에 의하여 진안군 마령면에 있는 구산사(龜山祠)에 위패를 모시게 되었다.

1484년(成宗 15年 甲辰) 10월 2일 장수군 임남면 침령에서 별세하셨다. 진안 구산사 근처에 신도비를 세우고 박성양(朴性陽)선생이 비명을 골랐으니 지금까지도 선생의 학문과 덕망 지조에 대하여 엄숙히 머리 숙여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 제6 절 세종 때 명관 김남택(金南澤)

「군자는 하늘의 뜻을 본 받고 어진 사람은 일의 기틀을 살핀다.(君子體天意 哲人察事機) 때때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만물이 스스로 빛이 생기게 하노라.(有如時雨 萬物自生輝)」

이 글은 방촌(龐村) 황희(黃喜) 상공께서 손재선생을 칭찬하는 글로써 선생의 가진바 덕과 안고 있는 도를 표현한 것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은 능히 하늘의 뜻을 알고 본받으며 슬기로운 사람은 천하의 만가지 일들의 기미를 살리는 것이다. 또 이러한 훌륭한 선생들이 베푸는 도덕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 만물에게 생명을 부지하게 하며 열매 맺어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니 선생이 펴내는 길은 바르고 베푸는 덕은 컸으며 고을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 옳은 길을 가며 체모를 알게 되고 예절에 바르고 의롭게 살게 되는 것이다. 방촌선생 같은 위인이 그와 같이 칭송하였으니 선생의 덕망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이다.

선생의 성은 김씨요 휘는 남택(南澤) 자는 성수(聖朱) 호는 손재(遜齋)요 관향은 함창(咸昌)이다.

옛날 가락(駕洛)국에 다섯 나라가 있었으니 그중 고령가야(古寧伽耶)국이 수도를 함창(咸昌)에 정하였던 바 이 왕실의 후예가 함창 김씨가 되었으니 선생의 선조이다. 고려조에 이르러 사세봉군(四世封君)과 삼대상서(三代尙書)의赫赫한 가문의 전통을 빛냈으니 면류관에 이어져 고관대작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몇대를 내려와 휘 택(澤)은 의정부 찬성(議政府 贊成)의 벼슬에 있었으며 호를 간재(簡齋)라 하였으니 유림의 종장(宗匠)으로서 향교(鄕校)에 열현(列賢)으로 배향되었으며 세상이 존경하는 바라 이분이 바로 선생의 고조(高祖)가 된다.

다시 휘 요(饒)는 함령군(咸寧君)에 책봉되었으며 아호는 강촌(江村)이니 문장과 덕행이 높아 세상에 그 명성을 떨친 분으로 증조(曾祖)가 되고 휘 창은 현감(縣監)의 벼슬에 있었으니 조부가 되며 휘 원비(元庇)는 대명과(大明科)에 급제하여 태중대부(太中大夫)의 직책에 있으면서 인군으로부터 금포(今袍)와 옥대를 하사 받은 분으로 선생의 부친이시다.

1370년(恭愍王 19年 庚戌) 3월 15일 장수현 임남면 침령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머물면서 목은(牧隱) 이색(李穡) 선생에게 사사하여 정통유학(正統儒學)을 전수 받았다.

1402년(太宗 2年 壬午) 문과(文科)에 급제함으로써 벼슬길에 올랐고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子) 성균관 박사(成均館 博士) 홍문관 수찬(修撰) 호조정랑(戶曹正郎) 사간원 사간(司諫院 司諫) 예조참의(禮曹參議)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쳐 1408년(戊子)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 大司憲)에 발탁되었다가 1425년(世宗 7年 乙巳) 이조판서(吏曹判書)에 보직되었다.

선생은 천성이 준엄하여 항시 의로운 것이면 굽힐 줄을 몰랐으며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국사에 대해서는 상소를 서슴치 않았으니 조야의 신망이 두터웠고 조정에서는 명관으로 사회에서는 학자로서의 지위를 굳혔다.

선생은 미구에 벼슬을 버리고 같은 조정에서 형조판서로 봉직했던 동생인 남중(南重)과 함께 경상도 하동(河東) 땅으로 은퇴하였다. 고향땅 장수의 수려한 산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태생지인 계남면 침령마을로 돌아왔다가 수년만인 1436년(世宗 18年 丙辰)에 세상을 떠났다. 장수의 유림들은 선생의 유덕을 추모하여 1828년(純祖 28年 戊子) 장수현 임현내면 월강평에 월강사(月岡祠)를 세우고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선생, 퇴휴재(退休齋) 송보산(宋寶山)선생 충의공(忠毅公) 일휴당(日休堂) 최경회(崔慶會) 장군에 선생을 합쳐 네 분을 같이 배향(配享) 하였으니 무려 4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생의 유덕은 민물되지 않았다.

세상에 공헌한 업적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반드시 선양되는 것이니 선생이 장수땅에 베푸신 은덕과 남기신 공적을 어찌 계승 선양하지 않을 것인가. 강재(岡齋) 송선생(宋先生)은 축문에서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建文世廟 淑我邦士 勤懇章奏 探求 義理 廟堂江湖 明哲是止 實一國之賢士 百世之師表」

「세종 조에 문하를 일으켜 우리나라 선비들을 맑게 하였고 근면하게 간절한 소장을 올려 의리를 구하여 찾았으니 조정과 강호에서 이것이 현철함이라 일렀다. 실로 일국의 어진 선비요 백세에 스승의 표상이다.」

〈일국지 현사요 백세의 사표다〉라고 한 송선생의 찬사가 손재 김선생에게 가장 적당한 문구가 된 것이다.

다음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정재(李鼎在)선생이 지은 손재 선생의 묘갈명은 다음과 같다.

「古寧后裔 牧隱淵源 德望冠世 孝友出天 必在邦國 名重湖堂 巍彼月岡 杖履遺墟土  
林景慕 高山仰止 先生之偉風碩德 千百世而求重矣」

「고령 가야국왕의 후예로 학문은 목은 선생의 연원을 이었다. 덕망은 세상을 덮었고 효행과 우애는 하늘에서 낳은 것이다. 마음으로 나라를 보존하고 성균관에 그 이름이 높더라. 높고 큰 저 월강은 지팡이와 발이 머물렀던 곳이라, 선비들이 경모하기를 높은 산을 우러러 보는 것 같이 하였다. 선생의 유풍과 큰 덕은 천백세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앞의 묘갈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식, 효성, 우애, 충성 등 모든 면에서 일세의 표준이었음이 명백하며 일시 황방촌선생에게 사사하였으니 선생이 장수로 낙향한 시기가 황방촌선생이 이 땅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와 합치되는 것으로 보아 적객(謫客)생활을 하는 방촌선생 곁으로 빨리 오고자 하는데도 그 뜻이 있었으리라.

고려수절신 백장선생의 손녀(孫女婿)인 선생은 만고의 충절 백장선생을 존경하였고 선생이 귀향한 시기는 백장선생도 생존하셨으며 방촌선생과 더불어 이웃마을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사시는 두선생을 모시고 국사를 논하고 시문을 논하면서 즐거운 전원생활을 했을 것이다.

방촌선생은 서울로 올라가시고 백장선생은 별세하셨으니 선생은 울울하여 몇년을 사시다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선생의 후손에는 영호(永浩) 영숙(永淑) 윤걸(允傑) 윤홍(倫弘) 등이 각기 사인(舍人) 홍문관 대계학(弘文館 大提學)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子) 등을 역임하여赫赫한 문벌을 이루었다.

선생은 호남좌동인맥(湖南左東人脈)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니 백장 황방촌 송보산 김남택 박수기 이경광선생으로 이어지는 인맥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이다.<sup>28)</sup>

28) 月岡祠誌 神道碑銘名字行狀  
長水誌 咸昌金氏世譜

## 제7절 문장 삼절로 이름 떨친 유호인(俞好仁)

1426년(世宗 8年 丙午) 세종대왕께서는 대계학(大提學) 변계량(卞季良)을 불러 젊고 유망한 선비를 골라 휴가를 주어 책을 읽게 하라(賜暇讀書)는 어명이 내려져 권채(權采) 남수문(南秀文) 신석조(辛碩祖)가 선발되었다. 이것이 바로 호당(湖堂) 설치의 시초가 되며 여기에 선발된 사람을 호당학사(湖



堂學士)라 일렀는데 당시의 선비들은 호당에 참여하는 것을 지상의 영광으로 여겼다. 조선의 명현들 치고 호당을 거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였으니 알만한 일이다.

박팽년(朴彭年)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池) 이개, 서거정(徐居正) 유성원(柳誠源) 최항(崔恒) 등 청사에 남긴 명인들이 다같이 호당 출신이었으니 세종대왕의 인재를 양성하는 탁월한 식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고장 장수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던 기라성 같은 수많은 명인 학자 중에서도 호당에 선발된 명사로써는 단 한분뿐이었으니 그분이 바로 뇌계 유희 인선생이다. 1470년(成宗 1年 庚寅) 대제학(大提學) 서거정(徐居正)에 의하여 선발된 채수(蔡壽) 허탐(許探) 신종호(申從護) 등 16명의 학자 중에 들어 호당학사가 되었으며 사가정(四佳亭) 서거정선생의 지도를 받았으니 세상 선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뇌계선생은 문장력이 당세에 뛰어나 성묘(成廟) 삼절(三絶)중의 한 사람으로 절찬의 대상이었다.

선생의 휘(諱)는 호인(好仁)이며 자(字)는 극기(克己)요 아호를 뇌계(溪溪)라 하였다.

관향(貫鄉)은 기계(杞溪)이며 신라 때 명재상이 많이 나서 명문가로 이름 높았다. 휘 의신(義臣)을 시조로 하여 신라에서 벼슬하여 가문을 이어 왔으나 고려왕조가 통일하자 고려에 신복하지 않고 고향 기계에 은거하여 신라의 수절신으로 남아 명성을 떨치던 가문이다.

증조부(曾祖父)의 휘 견백(堅白)은 군기소감(軍器小監)의 벼슬에 있었으며 조부의 휘는 신중(信中)으로 랑장(郎將)의 직위에 있었다. 아버지의 휘는 음(蔭)이니 백두로 은거하는 선비였다.

호남의 장수현 임남면 조곡(長水縣 任南面 鳥谷)마을에 세거(世居)하면서 유의지(俞義之) 유척(俞陟) 유경(俞璥)의 삼세진사(三世進士)를 배출하여 세칭 삼세상사(三世上舍)라 칭송받던 가문이며 마산(馬山)의 원씨가문의 삼세상사라 이르는 원자형(元自亨) 원개(元凱) 원대균(元大勻)의 삼대진사와 더불어 당시 장수쌍벽이라 칭송받는 가문이었다.

아버지 휘 음(蔭) 공이 함양군(咸陽郡)에 사는 장사랑(將仕郎)의 벼슬을 한 이절(李節)의 여식에게 장가들어 뇌계선생을 출생하시었으니 이 때가 1445년(世宗 27年 乙丑)이었다. 선생께서는 겨우 입학할 무렵부터 신동이란 소문이 자자하였다.

이조판서를 사퇴하고 낙향한 퇴휴재(退休齋) 송보산(宋寶山)선생께서 조

곡에서 가까운 방아재(砒嶺)마을에서 전원생활을 즐기시며 제자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찾아가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으나 미구에 외가댁이 있는 함양군의 군수로 부임하신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선생에게 사사하기 위해서 함양으로 갔다. 성리학(性理學)의 정수에 접하는 학문의 완성을 서둘렀고 동문학(同門學)으로 후세에 명성을 떨친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매계(梅溪) 조위(曹偉)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탁영(탁영) 김일손(金駟孫) 람계(藍溪) 표연말(表沿沫) 용헌(備軒) 이종준(李宗準) 등과 교제하면서 학문의 발전과 인격의 도야에 힘쓴 보람으로 1462년(世祖 8年 壬午) 사마시(司馬試) 생원(生員)에 참방하였으며 아울러 진사시(進士試)에도 합격하였다.

대과(大科)를 치르기 위하여 상경하여 성균관(成均館) 유생으로 학문을 다듬고 학문의 진수(真髓)를 파고들었으니 세칭 사림파학자(士林派學者)라 일컬었다.

선생의 유명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시문(詩文)의 능함과 풍류의 편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께서 대과에 응시하기 위해서 서울에 머물면서 구경 겸하여 서성거리다 어느 연못가에서 시상(詩想)에 잠겨 있을 때 16·7 세로 보이는 어린 선비 하나가 옆에 다가와 수인사를 마친 후에

「소생이 오늘 여기 와서 우연히 글 한 수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재주로는 대 구(對句)를 맞출 수 없으니 선비님이 대구를 지어 주셔서 후학이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읊었다.

일경서시비(一莖西施<sup>29)</sup>臂) 「연꽃의 한줄기가 서시의 팔뚝 같구나」

선생께서는 서슴치 않고 그거 별로 어렵지 않구려 하시며 다음 시를 읊었다.

칠규비간심(七竅比干<sup>30)</sup>心) 「일곱개 구멍이 비간의 마음속에 있느냐」

위의 시문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명시로서 현재까지도 문인들이 즐겨 읊어 내려 오고 있다. 당시 인군 성종대왕은 평소 혼자서 미행(微行)하여 세정을 살피기 좋아하였다. 그 어린 선비는 성종대왕이었으며 과거를 보러 와서 머물고 있는 뇌계선생이 어린왕의 용안을 알 까닭이 없었다.

29) 중국고대 월나라왕 구천(句踐)이 오나라왕 부차(夫差)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보낸 천하의 미인

30) 온나라의 명현으로 조카 주왕(紂王)의 음란함을 간하자 이것을 못 마땅히 여긴 주왕이 성현의 마음 속에는 일곱개 구멍이 있다니 조사해 보자며 숙부 비간을 죽임.

1474년(成宗 5年 甲午) 문과에 급제(及第)하고 궁전에 알현례를 드리러 성종대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왕은 「유호인 급제(俞好仁 及第)는 일정서 시비의 대구를 아는가」하고 하문하였으니 선생은 대답하여 「일찍이 칠규비 간심이라 아뢰었습니다。」하였으니 비로소 당시의 어린 선비가 성종대왕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때부터 군신은 백년지기가 되어 조정에 흐뭇한 일화를 남겼다.

성종대왕께서는 하루 글 한귀를 지었는데 그 대구를 지으려는데 좀체 적당한 문귀가 떠오르지 않았다. 대왕의 글은金玉불보양신보(金玉不寶良臣寶) 「금이나 옥이 보화가 아니고 어진 신하가 보화로다」대왕은 뇌계 유호인 학사를 불러 대구를 지으라 명하였다. 선생은 일월불명성주명(日月不明聖主明) 「해나 달이 밝은 것이 아니고 성스런 임금이 밝더라。」라고 읊었다.

임금은 어진 신하가 보화라 읊었고 신하는 해나 달보다 우리 임금이 더욱 밝더라고 칭송하였으니 그 임금에 신하가 있으면 나라는 자연 융창할 것이다.

#### 호당(湖堂) 학사의 영예를 차지하다.

문과에 급제한 후 호당학사 4년간의 수학은 선생으로 하여금 당대삼절(當代三絶)이란 칭송을 받는 문장력을 연마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며 조 선대의 문필가로 이름을 떨치게 하였다. 급제 후 관로에 발을 디디며 여러 가지 내직을 거쳐 의성현감(義城縣監)에 제수되어 문경새재를 넘으면서 지은 오운절구(五韻絶句)는 더욱 유명하다.

북망군신격(北望君臣隔) 북쪽을 바라보니 임금과 신하가 떨어지고  
남래모자동(南來母子同) 남쪽으로 오니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있도다.

누구나 해독할 수 있는 쉬운 글자 열자로 엮어 놓은 글이지만 무궁한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선생의 문장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그후 내직으로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로 발탁되었으며 충의와 효행이 남달리 투철하여 성종의 충애를 받았다. 선생은 경주에 가서 망부석(望夫石)과 박제상(朴提上)에 얹힌 설화에 감동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孤臣一死答君恩 萬里扶桑漢節尊 瑤述峯頭三丈石 愁雲猶帶望夫魂」



「외로운 신하 한번 죽어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만리 일본땅에서 큰 절의를 높였다. 치술산 봉우리 위의 삼장석에는 근심스런 구름이 떠가 되어 망부의 혼이 어렸구나.」

선생께서는 다시 합천군수(陝川郡守)에 제수되었다. 대학자(大學者)로서 학문에는 조예가 깊었고 세상의 추앙을 받았으나 행정수완은 민완하지 못하여 명관으로서의 치적은 남기지 못했다. 합천 임지에서 세상을 떠나 부음이 성종대왕에게 알려지자 호당학사에게 제복을 입게 명령하여 제사 지내게 하였으며 그 제문에서 유림종장 옥당거벽(儒林宗匠 玉堂巨擘)「유림의 으뜸가는 문장이오 옥당(홍문관의 별칭)의 엄지손가락이다」하였으니 선생의 학문과 덕망이 얼마나 존경 받았음인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호당의 동문학사요, 점필재선생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매계(梅溪) 조위(曹偉) 선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선생을 찬양하였다.

「효우충신(孝友忠信) 향당견추(鄉黨見推) 의행준절(懿行峻節) 사림함복(士林咸服)」  
「효도하고 우애하며, 충성하여 신망하니, 고향사람들이 추앙하고 몇몇한 행세와 높은 절개를 선비들이 모두 감복하더라.」

선생께서는 당시 사대학과(四大學派)라 불리던 훈구파(勳舊派)의 영수(領袖)인 서거정 대제학의 선발에 의하여 호당학사가 되었으나 훈구파에 포섭당하지 않고 끝까지 김종직선생의 제자들이 주축이된 사림파(士林派) 주장인 유교전통인 도의정치를 국정의 근본으로 삼아 훈구파의 세도정치에 반발하여 훈구파 중진들의 미움을 사서 출세하지 못했으며 그 벼슬이 교리(校理)에 그쳤다. 1494년(成宗 25年 甲寅) 선생의 연세 불과 50 세로 세상을 하직하였으나 별세한 4년 후인 1498년(燕山君 4年 戊午) 피비린내 나는 무오사화(戊午士禍)가 일어났으며 점필재, 김종직(金宗直) 선생이 부관참시(剖棺斬屍<sup>31)</sup>)의 사후형벌을 당했으며 제자들을 모두 죽이거나 유배시켜 청사에 오점을 남겼다. 뇌계선생도 생존해 계셨으면 사형 아니면, 유배되어 적지(謫地)에서 여생을 마쳤을 것이다. 뒤에 무오사화에 연루된 학자들이 모두 신원(伸冤)되었으나 무고한 고관이나 학자가 참변을 당하는 이변이 생겼다. 뇌계선생은 무오사화 이전에 작고하였으니 본인으로서는 적선과 덕망의 소치에 의한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31) 무범을 파헤치고 시체에 갈질하는 형벌

장수 유림들은 선생의 지조와 덕망을 높이 평가하여 황방촌 선생을 주벽으로 모시는 창계서원(滄溪書院)에 위패를 모시고 배향(配享)하여 유덕을 추모하고 있으며 아쉬운 것은 뇌계선생의 출생지인 계남면 조곡마을에 유허비(遺墟碑) 하나를 세우지 못함이 부끄러울 뿐이다.<sup>32)</sup>

32) 長水誌, 成宗實錄湖南儒賢錄, 國史大辭典 滄溪書院誌

## 제 8 절 유림의 사표(師表)였던 박수기(朴秀基)

권세와 영화를 버리고 산수간에 머물며 산에서 나물 캐고 물에서 낚시질 하며 유유자적 하는 선비의 행세는 말로는 쉬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려운 것이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아부하는 무리나 추세하는 도당들이 발호하여 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상례였다.

李朝史를 돌이켜 보면 光海君시대나 燕山君시대가 그 본보기라 할 것이다. 혼군이 전횡의 칼날을 번뜩일 때 예봉을 피해야 할 것이며 간신이 모함의 함정을 만들 때 그 길을 피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비가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도 君子는 危邦不入이요, 亂方不行이라 하였으니 헛되이 생명을 버리지 말 것이며 생명을 보존하였다가 장차 치국평천하 하는 유용한 제목으로 활용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후세 선비들의 귀감이 된 파은 박수기(波隱 朴秀基)선생이 이와 같았으니 장수사림(士林)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공의 휘는 수기(秀基), 관향은 충주(忠州)이며 파은은 아호이다.

그는 1429년(世宗 11年 己酉) 9월 13일 충청도 유성에서 고려 副正의 벼슬을 지낸 휘 영의 10 세손으로 태어났으며 主簿 軍器寺司正을 역임한 휘 忠誠의 아들이요 進士 사헌부감찰 등을 지낸 휘 진의 손자로서 고려와 조선을 통해서 고관대작을 고루 역임한 조상의赫赫한 혈통을 받고 태어났다.

장성한 후 그는 判書 金南澤의 증손녀며 舍人 金永浩의 손녀이며 김윤걸의 딸인 咸昌 金氏 가문의 규수에 장가들게 되었는데 짐작컨데, 이 혼인이 우리고장 장수명과 인연을 맺게 된 연유라 할 것이다.

일찍이 高麗 守節臣 白莊이 장수에 정착하고 그의 孫婿인 판서 송보산 판서 김남백이 이 고장에 이사 오게 되었다. 함창김씨 부인은 장수 산천의 수려함과 장수인심의 후덕함을 설명하였을 것이며 때마침 연산주의 폭정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부지하며 養子孫 할 수 있는 복된 땅을 선택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땅이라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는 유년기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명현과 학자를 찾아 수학에 힘썼으며 의리지학(義理之學)에 심취하여 이를 연구하였는데 학구의 틈을 타서 대자연에 파묻혀 산수간을 소요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 그의 풍부한 지식과 경륜은 野人으로써 학문에 열중하였던 유년기와 청년기에 완성에 이르렀으며 벼슬길에 이른 뒤에 처음 연마되었던 것이다.

### 30대 말기에 문과에 급제

그는 30세가 넘도록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부모와 형제간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음인지 30대 말기에 과거를 치러 文科에 급제함에 이르러 비로소 官路에 발을 던게 되었다.

그는 관직생활에서 청렴결백과 정직 무사한 봉사정신을 인정받아 내외직을 두루 거쳐 강원도 감사로 발탁됨으로써 더욱 名官의 명성이 드높아졌다.

그러나 1439년(甲寅) 12월 24일 名官 성종대왕이 승하하고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자 강원감사의 요직을 사직하고 낙향하게 되었으니 가히 통달한 사람의 선견지명이라 할 것이다.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3년후인 1497년 청사에 오점을 남긴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점필재, 김종직, 탁영, 김일손, 한원당, 김굉필 등 충직한 명현들이 죽거나 귀양을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공은 이러한 정변을 미리 예측하고서 한양에서 5백리를 격한 장수 땅으로 숨어들었으니 柳子光 이극돈 등의 간사한 무리들도 사직 은퇴한 파은공에게 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였던 것이다. 청장년 시절에 존경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황방촌 선생의 고향인 장수에 노후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 장수 산천의 수려함은 특히 공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며 방촌선생의 영향과 함창김씨 부인의 조언도 비중이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가권을 인솔하고 장수에 들어온 공은 장계면 삼봉리 노평마을 근처에 처음 안식처를 마련하고 영주할 계책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용신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한 공은 두릉의 서편 울리의 북쪽(杜陵之西 栗里之北) 석당이 위태롭고 첩석이 푸른물을 바친(石塘之高危 疊石攢碧)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현판을 걸어 自樂亭이라 하였다.



공은 자락정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큰 못이 앞에 있어 고기 보기 즐거웁고 송죽이 창가에 기대니 맑은 기품이 사랑스럽구나. 좋은 술 몇 잔에 취흥이 무르익는 도다. 달빛아래 금줄을 타며 태평함을 노래하고 단지 용신할만한 곳을 찾을 뿐 어찌 분수에 넘치는 영화를 바라랴. 이 역시 즐거웁도다. 이 어찌 감히 업수히 여기리오.」

「大澤當前觀魚是樂 松菊倚窓情標可愛 興方酣於盃酒綠蟻宜傾 歌太平於月下 琴瑟當張但求容膝 之安寧望分之榮是亦樂矣 孰敢悔也」

윗글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공은 청수한 선비로써 시종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으며 명관으로 이름 높은 思庵 朴淳 선생은 아래와 같이 공을 찬양하였다.

「천품이 남다르고 맑은 지조가 있어 명성과 절개가 높고 학문이 알차서 문장과 덕업의 성함이 해와 달과 같이 밝더라. 벼슬이 높고 책임이 무거워도 직분을 다하고 늦게 은퇴하여 강호에 머물며 다시 영리를 찾지 아니하여 명성이 높았다.」

「天資穎異 清介有志操 名節之高 學問之實暨 夫文章德業之盛 昭如日星 而官隆任重 修盡當職 晚幾遯肥 退跡于江湖之上 而不復求榮利之名」-自樂亭記-

본현 현감을 역임하고 우리 고장에서 여생을 마친 江臯 柳厚春은 시를 읊어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일찌기 경륜을 쌓아 만년에 이룩하니 정자 이름 불러 와서 지금까지 전하노라 그 옛적 즐거움이 무엇으로 인함인가 한 굽이 산과 물에 저녁연기 찼었구나.」

「早歲經綸 成晚年 遺來亭號至今傳 當時自樂因何物 一曲溪山帶暮烟」

본 군에서 태어나고 장수 현감을 거쳐 내직으로 들어가 고종조에 우의정을 지낸 낙파 류후조(洛坡 柳厚祚)는 글을 지어 아래와 같이 찬양하였다.

「공이 평일에 스스로 즐거워하였음이 과연 무엇일까 공명과 이익을 피하지 않고 소나무와 국화에 취미를 붙여 산에서 나물 캐고 물에서 낚시질 하여 맑은 물에 갇힌 썩고 탁한 물에 발 씻으며 마음대로 글 읊으니 이 어이 즐거움이 아니랴」

「公之平日所自樂 果何物 不計於功利之名 托意於松菊之間 採於山釣於水 清斯纓濁斯足 嘯咏自適此非所樂歟」

그 외에도 창원인 정옥현 함양인 오익신 관찰사 다산 박영철 등 여러 사람의 기문이 있다.

### 達人의 경지에 이른 학문

공의 학문은 달인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며 많은 시문과 저술을 남겨 놓았으나 병화(兵火)와 재변(災變)에 의해서 유실 되었으며 세상에 전하여 오는 몇 가지만을 추려본다.

「강호에 발 딛은지 20년이 되었으니 세상 소식 전하는 이 없어 적막 하구나. 푸른 물결소리에 세상 시끄러운 소리 막혔으니 분수밖에 공명은 저녁연기 같이 사라지누나」

「托跡江湖二十年 世間消息寂無傳 碧波聲裏塵囂隔 分外功名等暮烟」

공은 다시 족불족시(足不足詩)를 읊어 세상을 훈계하였으니 다음과 같다.

世間知足有幾人(세상에 만족함을 아는 이 몇 사람인가.)  
 舉世紛紛不知足(세상 모두가 족한 줄을 모르네)  
 君子之足長自足(군자의 만족함은 언제나 스스로 만족하고)  
 小人之足長不足(소인의 만족함은 언제나 부족함 뿐이네)  
 不足之足何以足(부족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나)  
 足及足矣常不足(족하고 족해도 언제나 모자라네)  
 高樓傑閣粉牆裏(높은 다락 큰집 화려함 속에서)  
 安居肆意猶不足(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오히려 부족하고)  
 黃金珠玉庫有餘(돈이나 패물이 창고에 넘쳐서)  
 用之猶云患不足(마음대로 쓰면서도 부족함을 근심하네)  
 金鞍駿馬珊瑚鞭(날랜 말에 금안장 없어 산호 채찍 휘두르며)  
 大道橫馳羞不足(큰길 달리면서도 부족할까 두렵고)  
 車馬僕從聲如雷(차마와 복종의 소리 우뢰소리 같고)  
 使令於前亦不足(사령이 길치워 인도해도 역시나 부족하다)

冬衣豹鼠夏絺綌(겨울에는 털옷이요, 여름에는 갈포 옷)  
 寒暑豐衣憂不足(절따라 옷 많아도 부족함을 근심한다)  
 大官名宦位益高(고관대작 지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富貴盈門恐不足(부귀가 넘쳐 흘러도 모자란가 두려웁다)  
 肉如丘兮酒如河(고기는 언덕 같고 술은 강물 같아)  
 厚味膾肥愁不足(맛있고 기름진 음식에도 부족한가 근심이라)  
 燕姬越女顏如玉(얼굴이 구슬 같은 여러나라 미녀들)  
 嬌語月態娛不足(고운 목소리 어여쁜 자태에도 즐거움이 부족하고)  
 繁華到處笙歌咽(젓대소리 노래소리 어디나 변화하고)  
 豪興滔滔哀不足(흥이 드높아도 부족함을 슬퍼한다)  
 足不足者何時足(족함이 모자란자 언제나 족해질까)  
 不厭之足難充足(싫증 없는 만족이란 채울 수 없는 것)  
 顏回陋巷一簞瓢(안회는 누추한 집에서 쪽박하나로도)  
 志在好學樂且足(배움에 뜻을 두어 즐겁고 족하였고)  
 曾子甕牖衣以褐(증자는 가난한 집에 험한 옷 입고도)  
 安貧樂道亦云足(안빈낙도하면서 족하다 여기더라)  
 鶉衣百結卜子夏(헤어진 옷 백번기워 입은 복자하도)  
 老而固窮安分足(늙어 곤궁해도 분수에 족하다 이르더라)  
 羊裘把鉤嚴子陵(양가죽 옷을 입고 고기 잡는 엄자능은)  
 晦跡桐灘肆志足(동탄에 자취를 감추고서 뜻에 맞다 족하고)  
 歸隱野服陶淵明(벼슬 버리고 고향에 돌아온 도연명은)  
 葛巾灑酒逍遙足(갈건으로 술 거르고 산책하며 만족하고)  
 羅浮洞隱葛稚川(나부동에 숨어사는 갈지천 선생은)  
 不貴八珍藜藿足(팔진미 귀하다 하지 않고 나물 먹고 만족했네)  
 足與不足皆如此(족함과 부족함이 모두 이와 같으니)  
 不足難足足者足(부족함은 채우기 어렵고 족한 자만 만족한다)  
 吾年五十能知足(내 나이 오십에 능히 족함을 알고)  
 人謂不足我云足(사람들이 부족하다 말하나 나는 족하다 이르네)  
 長溪窮谷有蔽廬(장계 골짜기에 조그만 집하나 있으니)  
 高枕安臥閑事足(높은 베개 편히 누워 한가함에 만족하니)  
 閉戶閑居全性命(문닫고 한가히 살면 생명을 보존하고)  
 滿壁圖書玩理足(방안에 가득한 책과 가까이 하면서 족하도다)



靜中觀物得天眞(조용한 중에 사물을 관조하여 하늘의 참뜻을 얻고)  
 老後讀書知樂足(늙어서도 책을 읽으니 즐거움을 알아 족하도다)  
 醉倒久斷塵間夢(술 취해 누워 속세의 꿈을 끊은 지 오래니)  
 詠詩長留閑中足(글이나 읊으며 한가로움에 족할 뿐이다)  
 春去春來任徜徉(봄이 가고 다시 봄이 올 제 마음대로 노니니)  
 淸風明月幽興足(맑은 바람 밝은 달빛에 깊은 흥취 족하더라)  
 我足既足何不足(나는 이미 족한데 무엇이 부족하리)  
 足且足兮 江波之亭兮(족하고 족함이어 강물 곁의 정자로다)  
 我獨樂兮 乾坤謂我分爾足(나홀로 즐거함이어 네분수에 만족하라고 천지가 나에게 이르더라)  
 何求於人(무엇을 남에게 구하며)  
 何待於外(무엇을 밖에서 기대하랴)

귀후재천천 박살



위의 시는 독특한 체로 시문학사상 최초기법이며 이런 시체를 파격시라고 한다. 시문의 내용으로 보면 오직 공의 정신과 사회를 경각시킨 필치에는 탄복을 금할 길이 없게 한다.

공은 장계면에서 전장을 마련하기가 불편하였던지 다시 계남면 기산에 새터를 잡아 이사하고 영주의 계책을 세우기에 이르렀으며 이 때부터 우매한 군민의 敎化를 서둘렀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이 자리를 잡고 안주하게 되자 공의 인격과 학식 덕망을 따라 배우고자 하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그는 수많은 후배들에게 참다운 선비 정신을 가르쳐 주었으며 벽계의 땅이 文鄉이라 칭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공은 장수땅에 이사온지 20년만인 82세 되는 1511년(庚午)에 유명을 달리했다. 천천면 박실 뒷산에 묘지를 마련하여 안장하였으며 박공의 묘소가 있다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朴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묘하에 歸厚齋란 재실을 세워 공을 제사 지내고 있으며 계남면 花山에 華山祠를 세워 공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며 장수 유림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33)</sup>

33) 忠州朴氏 世譜, 長水誌  
湖南道志

## 제 9 절 사림의 표장(表章) 정황(丁煥)

연산군(燕山君)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전 이조판서 성희안(成希顔) 전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박원종(朴元宗)등이 꺾기하여 폭군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성종대왕의 둘째아들 진성대군(晋城大君)을 왕위에 올리게 되니 이분이 중종(中宗)이다.

이 사건을 중종반정(中宗反正)이라 하며 이때부터 연산군 때에 화를 입은 군신들을 신원(伸寢)하여 주고 유교를 진작하고 사림의 선비들을 등용하여 사림의 의기를 북돋워 어느 정도 왕도정치가 실행되는 기미가 보였다.

신진사류(新進士類)로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선생을 영수로 하여 많은 학자들이 기용되었다. 정암선생은 일찍이 사림의 대표자라 일컫는 점필재 김종직(金宗直)선생의 문인이신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선생에게 사사하여 정통적인 사림교육을 받은 정주학(程朱學)의 대가로 도의정치(道義政治)를 실현하려는 개혁파 사류로서 당시 유림의 절대적인 추앙을 받아 온 인물이었다.

선생의 문하에서는 조광조(趙光祖)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이장곤(李長坤) 성세창(成世昌) 등 쟁쟁한 명현들이 배출되었다.

중종임금의 신임을 얻은 정암선생은 현량과(賢良科) 천제시(薦制試) 제도를 두어 김식(金湜) 안처근(安處謹) 박훈(朴薰) 김정(金淨) 박상(朴祥) 김구, 기준(奇遵) 등 무수한 학자들이 발탁되어 관리의 직에 임명되어 제반 행정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위가 흔들리는 훈구파 중신들인 심정(沈貞) 남곤(南袞) 홍경주(洪景舟)등의 참소로 너무나 도화적인 언행에 염증을 느낀 중종(中宗)임금은 조광조(趙光祖) 유인숙(柳仁淑) 박세희(朴世熹) 홍언필(洪彦弼) 김정(金淨)



만헌선생 신도비



이장곤(李長坤) 등 사림파 관원과 학자 183명을 죽이거나 귀양 보내는 참변이 벌어졌다.

정암 조광조선생의 문하에는 우리고장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에서 태어난 형제가 수학하고 있었으니 형이 회산(檜山) 정환(丁煥)선생과 동생인 유현(遊軒) 정황(丁煥)선생이다.

유현(遊軒) 정황(丁煥)선생의 관향(貫鄕)은 창원(昌原)이며 자(字)는 계희(季晦)호를 유현(遊軒)이라 하였으며 1512년(中宗 7年 壬申) 2월 11일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에서 출생하였다.

시조로서 신라(新羅) 때 대상(大相)의 벼슬에 있었던 휘 광순(光純)으로 7대조에 휘는 년방(衍邦)으로 고려시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로 영천군(寧川君)에 봉군되신 이릉간(李凌幹)의 여식에게 장가들어 영천군의 봉토를 이양 받아 이 고장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산서면 하월리에서 거주하면서 명문가로서 자리를 잡았다.

증조의 휘는 한우(旱雨)로 풍저창(豐儲倉) 부승(副承)의 관직에 있었으며 조부의 휘는 휘(暉)로 전성서(典性署) 주부(主簿)로 봉직하였고 아버지의 휘는 세명(世明)이며 사산감역(四山監役)으로 있었으니 어머니는 사의(司議) 수형(壽亨)의 여식으로 두 아들을 두었으니 맏이가 회산(檜山) 정환(丁煥)선생이고 둘째가 바로 유현(遊軒) 정황(丁煥) 선생이다.

두 아들을 일찍이 취학하여 학문에 열중하고 다소 성취한 뒤에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사림 정통의 정주학(程朱學)을 체득하고 특히 정암선생의 도의정치(道義政治)에 심취하여 사림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었다.

스승인 정암선생이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유배되어 사사(賜死)된 뒤인 1536년(中宗 31年 丙申) 8월 경회루(慶會樓)에서 중종임금이 친시(親試)로 발탁한 사인발(四人拔)로서 과거에 등과하여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성균관 박사(成均館 博士) 예조좌랑(禮曹佐郎) 형조정랑(刑曹正郎)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교서관교리(校書館校理) 등 관직을 거쳐 춘추관기주관(春秋



銘記注官)으로 승진하였다.

중종말년에 일어난 후계자 싸움은 치열해져 처음 중종의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는 즉위 직후에 폐위되었으며, 제2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는 왕자 고를 낳고서 바로 승하하였으니 이 분이 뒤에 인종 임금 되시며, 계비로 모신 이가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로 제2자 경원대군(慶原大君)환(桓)을 낳았으니 이분이 뒤에 명종(明宗) 임금이 되시는 분이며, 바로 윤원로(尹元老) 윤원형(尹元衡)의 생질이 되시는 분으로 이때부터 왕조에 피비린내 나는 사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니, 중종임금이 윤원형 윤원로 형제를 중용하기 시작한 때문이다.

1544년(中宗 39年 甲辰) 11월 15일 중종대왕이 승하하고 세자 인종(仁宗)이 왕위에 올랐으나 불과 7개월만에 승하하여 경원대군(慶原大君)이 왕위에 오른 것이니 이가 바로 명종(明宗)임금이시다.

인종임금은 출생한 직후 모후가 승하하여 어머니 없이 커서 궁중에 후원자가 없었으며 명종임금의 뒤에는 간교한 윤원형(尹元衡) 일파가 도사리고 앉아 온갖 계교를 부려 중종임금이 계실 때부터 세자를 폐하고 경원대군으로 세자를 삼으려는 계략을 써 왔었으니, 어린 임금 인종을 두고 보지 아니하고 윤원형 일파는 대윤이라 일컫는 윤임(尹任)을 귀양 보내어 죽게 만들고 다시 인종임금은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항설에 의하면 윤원형 일파는 약원제조(藥院提調)를 매수하여 인종임금에게 불리한 약을 주어서 죽게 하였다고 하니 사실여부는 모를 일이나 야사와 전설로는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다.

유헌 정황 선생은 윤원형 일파의 음모를 미리 알아차리고 약방제조에 가서 임금에게 올리는 약을 시음하여 소윤일파를 감시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소윤파의 기피인물이 되었다.

인종임금이 1545년 7월 1일 승하 하시자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으며 문정태후(文定太后)가 수렴청정을 하여 인종대왕의 국장을 익월로 거행하기를 명하였고 도의정치를 주장하는 유헌 정황 선생이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역대국상의 제도와 예법을 들어 그 불가함을 극간하였으니 조정의 중신들마저 윤원형일파의 세도가 무서워 입을 벌리지 않고 국장행사를 일개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인 유헌 정황 선생만이 상소하여 불가함을 논박하였으니 특기할 일이었다.

뒤에 성균관학사(成均館學士) 윤결(尹潔)이 계속 상소하여 가로되 「大行

之臣 惟丁爌一人而已」 「큰 행세를 하는 신하가 오직 정황 일인밖에 없나이다」 하였으니 당시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는 짐작할 수가 있다.

명종임금이 7월 1일에 등극하고 한 달쯤 지난 8월에 문정태후(文定太后)는 유관(柳權) 유인숙(柳仁淑) 윤임(尹任) 등을 죽이고 백인걸(白仁傑) 노수신(盧守愼) 정황(丁煥) 이언주 등 380여인을 유배시키고, 미구에 윤원형이 정승이 되어 선비로서 도의를 부르짖는 사람의 씨를 말리고 오직 아부하는 간신배만을 거느리고 20여년의 독재를 감행하였다. 유현 정황 선생은 처음 곤양(混陽) 땅으로 유배되었으나 다음해인 1547년(明宗 2年 丁未)에 양재역 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을 조작하여 나머지 사림과 학자 관료를 일소하는 정미사화(丁未士禍)를 만들어서 다시 1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때 유현 정황 선생도 육지에 두어서는 안된다 하여 거제도(巨濟島)에 유배지를 옮기게 되었다.

선생은 여기서 학문에 정진하면서 저작(著作)에 힘써 부환록(負暄錄) 장행통고(壯行通考) 유현집(游軒集) 등 수많은 명저를 남겼다.

사림의 씨를 말려버린 윤원형은 윤씨가 문의 윤춘년(尹春年)과 별도의 심복을 거제도에 보내서 유현선생에게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를 보장하며 유혹하였으나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적소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고행을 참았으나 기력이 쇠하여 1560년(明宗 15年 庚申) 7월 6일 유명을 달리하였다.

선조대왕 초 율곡 이이(李珥) 선생의 상소에 의하여 유현 정황 선생의 관작이 복원되는 신원이 이루어졌고 1619년(光海 11年 廣午) 유림들의 상소에 의하여 영천서원(寧川書院)에 배향되었으며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에 증직되었다. 인조조의 명정승 이정구(李廷龜)의 제청으로 유현 정황 선생에게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증직되었으며 충간공(忠簡公)이란 시호(諡號)가 내려졌다.

유해는 유림들에 의하여 운구되어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원당곡(元堂谷)에 안장되었다. 묘갈명(墓碣銘)은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지었으며 다시 산소에서 멀지 않은 길가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으니 당대의 문장가 권상하(權尙夏) 선생이 글을 지었다.

을사사화 같은 참변에 의해서 우리고장의 대인물이 경륜도 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후세에 훌륭한 인물로만 추앙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선비를 죽이고 곧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의 씨를 말린 뒤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새삼 경계할 일이다.<sup>34)</sup>

34) 遊軒集 遊軒先生神道碑銘 人物誌 忠簡公墓謁銘 合浦家史 國史辭典 龍城誌

## 제 10 절 임진란(壬辰亂)의 의병장 정염(丁焰)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발생하여 만 5년이 지난 1597년 들어 왜적들은 남해안에 둔진하여 침략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던 중 일본으로 철수했던 왜적의 지휘관들이 다시 800척의 함정을 거느리고 부산항에 상륙하여 임진란 중 발을 붙이지 못한 전라도에 침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라도의 관문인 남원성을 공략하는데, 그 병력의 대부분을 동원시켰으니 이 때부터를 일러 정유재란(丁酉再亂)이라 이른다.

명(明)나라 신종(神宗)황제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된 심유경(沈惟敬)과 일본관백 풍신수길(豐臣秀吉)간의 평화협상이 결렬되자 풍신수길은 소서행장(小西行長) 가등청정(加藤清正) 흑전장정(黑田長政) 소조천용경(小早川隆景) 등 장수에게 15만 대군을 다시 주어 남해안 두전군 7, 8만명을 합쳐 조선전국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여 8백여척의 선단으로 현해탄을 덮으며 부산항에 입항하였고, 2월달부터 병력을 서부 경상도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팔월 들어서 남원성 쪽으로 적극적인 침공이 시작되었다.

군량미 확보 전략차원의 일환으로 곡창지 전라도 침공을 위해 장수땅에 들어온 왜적들은 우선 계남면 수열마을을 지나면서 양사순(梁思舜)의 집에 침입하여 마침내 아침밥을 지으려는 부인 해주오씨(海州吳氏)의 젓가슴을 만지자 부인이 더러운 손이 닿았다 하여 식칼로 자기의 가슴을 베어 왜적에게 던지고 자결하여 조정으로부터 사서(賜書)가 내려진 수열비(榑烈碑)의 내력이 생겼고, 장수향교(長水鄉校)를 지킨 정경손(丁敬孫)공의 충절이 포상된 것도 이때의 일화이며 산서면 백운리에 세워진 절부 원주원씨(原州元氏)의 정려도 이때 왜적들의 횡포로 일어난 비극의 하나이니, 당시 왜적의 박해나 약탈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조정에서는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전라병사(全羅兵使) 이복남(李福男)을 파견하고 명(明)의 도독부(都督府)에 요청하여 장군 양원(楊元)이 인솔하는 3천명의 지원군을 얻어 남원성을 지켰다.

이 때 왜적의 대장은 소서행장(小西行長) 우희다수가(宇喜多秀家) 도진희홍(島津喜弘)등 삼장군에 10 만명을 헤아리는 병력을 동원하여 남원성을 에워쌌다. 고성(孤城)을 지키는 이복남장군은 도원수 권율장군과 각도의 병사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파발을 띄웠으나 어디서도 원군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드디어 일대의 원군이 성밖의 왜적을 무찌르며 동에 번쩍 서에 번



찍하면서 왜적의 진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의 장기(將旗)에는 의병대장 정염(義兵大將 丁焰)이란 기폭이 나부끼고 있었다.

불과 1천여명의 병력이지만 그 활동상황은 수만명의 군대에 미치지 못 할 바 없으니 성중에서는 환호성을 지르며 성원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의병의 숫자는 날마다 줄어들기만 하였다. 전세는 날마다 불리해지자 명나라 구원장(救援將) 양원(楊元)이 동요하기 시작하여 이복남 전라병사의 극진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루밤 야음을 틈타 명군을 인솔하고 남원성을 탈출하였음으로 남은 군사의 사기가 떨어져 1597년(宣祖 30年 丁酉) 8월 16일 남원성이 함락함으로 성안에 있던 1만명의 조선백성은 창이나 칼이 없으면 하다못해 쇠스랑이나 팽이를 들고라도 왜적과 싸우다 모두다 순절하고 말았다.

이때 나라를 위해 죽은 의사(義士)들을 장사지낸 곳이 지금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萬人義塚)이다.

남원성 외곽에서 구원활동을 하던 의병장 정염 장군은 잔여의병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후도 전라도에 침입한 왜적을 상대로 유격전을 펼쳐 많은 공로를 세웠다.

선생의 휘는焰(焰)이며 자(字)는 군晦(君晦)요 아호(雅號)를 만현(晩軒)이라 썼다. 관향은 창원(昌原)이며 상대의 조상으로는 신라때 대상(大相)으로 회 광순(光純)을 시조로 하여 고려조에서 상호군 연방(衍邦)으로 이어졌으며 휘 연방(衍邦)이 친려조의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의 벼슬에 있으면서 공훈을 세워 남원의 진전(眞田) 영천(寧川) 근처에 봉토(封土) 5백묘를 받았으나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불편한 지역이라 사위인 연방(衍邦)에게 이를 주었으므로 정씨가문(丁氏家門)이 여기 이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 여기 정착하였다. 이 분이 선생의 6대조가 되며 5대조를 휘 사유(斯裕)는 판사(判事)의 벼슬이며 고조에 휘 명의(明義) 우군사정(友軍司正)의 관직에 있었다. 증조의 휘는 한우(旱雨)로 천거에 의하여 풍저창부승(豐儲倉副丞)으로 있었다. 조부의 휘는 요(曜)로 진사시에 참방하였다. 부친의 휘는 종석(終碩)으로 후에 호조참의(戶曹參議)로 증직되었다. 모친은 영광주씨(靈光周氏) 가문의 만귀(萬貴)의 딸로 선생을 낳으셨다. 그 때가 1524년(中宗 19年 明世宗嘉靖 3年) 9월 29일이었다.

선생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질이 남다르고 어려서 놀이를 하는 것도 범상하지 않았다. 배우고 쓰는 것이 번거롭지 않았으며 스스로 알아서 근면하였으니 가문이나 세상의 칭찬이 자자하였다.

겨우 취학할 나이에 어른의 도량을 가져 재종형인 도사(都事) 환(煥) 공과 사인(舍人) 황(璜)공이 무척 사랑하고 귀여워하였다.

때마침 환공과 황공이 부친상을 당하여 원당산(元堂山)에서 시묘살이를 하고 있어 두 분이 선생을 여사(廬舍)로 불러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시묘 3년간 크게 성취하였다.

이때부터 두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경학의 진수를 배우는데 힘썼으니 학문이 대진하였다. 이 시기에 전라도 관찰사(全羅道 觀察使)로 계시는 규암(圭庵) 송린수(宋麟壽)선생과 무장현감(茂長縣監)으로 계시는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선생께서 도내의 총명한 소년을 추천받아 학당을 차리고 미암선생이 직접 교편을 잡고 후진양성에 종사하였으므로 환(煥)공과 황(璜)공의 추천으로 미암(眉庵) 유희춘(柳希春)선생에게 사사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히 선생은 그 학당의 수령(首領)으로서 사회의 부러움을 샀다.

이때 만헌선생의 가정이 너무 빈곤하여 과거에 참여하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으니 한심한 일이었다.

1549년(明宗 4年 己酉) 봄 향시(鄕試)에서 장원으로 뽑혀 실력을 과시했으며 가을 진사시(進士試)에 응시 제3위에 합격하여 경향에 명성을 떨치었다. 이시기에 재종형인 유현(遊軒) 정황(丁煥)선생께서 거제도(巨濟島)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었으니 만헌선생께서는 남해안의 고도에 유배된 재종형을 위문도 하고 자신의 학문도 완성하기 위하여 책을 짚어지고 거제도 로 유현선생을 찾아갔다.

유현선생은 재종제인 만헌선생을 성심성의로 가르쳤으며 여기서 학문이 크게 성취되어 1560년(明宗 13年 庚申) 문과별시을과(文科別試乙科)에 합격하여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로 임명되었다.

때에 퇴계(退溪)선생께서 교서제조(校書提調)로 재직시여서 자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소학(小學)에 대한 질의를 하며 만헌선생의 의견을 진술하였든바 퇴계선생께서는 만헌선생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선비로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1565년(明宗 20年 乙丑) 어머니 상을 당하여 사직하고 귀향하여 여묘(廬墓)살이 3년을 지내며 돌아가신 모친의 명복을 빌었다. 상기가 끝난 다음 성균관박사(成均館博士)에 임명되고 미구에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로 전직되어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승진되었다.

1569년(宣祖 2年 己巳) 능성현감(綾城縣監)으로 보직되어 처음으로 외직

(外職)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1571년(宣祖 4年 辛未) 다시 내직으로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으로 봉직하던 중 노환 중이던 아버님이 별세하여 다시 귀향 여막(廬幕)살이가 시작되었으니 만헌선생의 효성은 하늘이 낳으신 천성이었다.

3년이 지나 1580년(宣祖 13年 庚辰) 예조정랑(禮曹正郎)을 거쳐 영광군수(靈光郡守)로 보직되었으며 영광에는 임라지송(林羅之訟)이란 유명한 송사가 있었는데 전관들이 모두 라씨측의 승소로 처리되었으나 만헌선생은 라씨는 부당하고 임씨가 정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급기야 임씨측에서 선조대왕에게 상소하여 속결하라는 어명이 있어 만헌 정염 영광군수의 명판결이 내려져 세상의 찬송을 받았다. 1582년(宣祖 13年 壬午)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거쳐 안성군수(安城郡守)로 임명되었으며 형조정랑(刑曹正郎)으로 있으며 함경도 재상 경차관(咸鏡道災傷 敬差官)을 역임하고 평안도찰방(平安道察訪)으로 부임하였다.

이때 안성의 백성이 상경 입궐하여 만헌 정염선생을 재차 안성군수로 임명하여 달라는 상소를 하여 관로에 유명하였다. 미구에 광주목사(光州牧使)에 전직되었으며 1588년(宣祖 22年 戊子) 고부군수(古阜郡守)에 부임하였으며 이때 정여립(鄭汝立)의 문전을 매양 지나다녔으나 한번도 면대하지 않았으며 김산중(金山重)등 몇명이 요사스러운 중 의연(義衍)이 모역(謀逆)의 징후가 있다 고변해 와서 이 정황을 전라감사에게 보고하여 역도를 일망타진하여 1590년(宣祖 23年 庚寅)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평정하는데 공헌하였다 하여 추충분의병기협책평난공신일등훈(推忠奮義兩幾協策平難功臣一等勳)이 내려졌으나 공이 없는 사람에게 공신훈이 내려짐은 부당하다 상소하여 이것을 사양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한 선비로 나라를 구할 책임이 있다 하여 군량미를 수집하고 각 고을에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모집하고 남원에 의병청을 설치하여 조련을 하였다. 의병들은 만헌 정염선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으나 남원출신 참봉(參奉) 변사정(卞士貞)의 장재가 뛰어나 변사정 선생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만헌선생은 참모로서 의병전을 획책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만헌선생이 추대한 의병장 변사정장군이 경상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의병을 모집해서 남원성 구원에 나섰으나 중과부적으로 남원성이 함락하자 각처에서 유격전을 벌이다 왜적의 철수와 화평협상의 타결로 의병을 해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온 선생께서는 후배며 대학자인 활계(活溪) 이대유(李大猷) 선생과 함께 학당을 세우고 두분이 직접 교편을 잡아 후세교육에 몸소 노래의 정열을 불태우고 86세 되는 1609년(光海君 1年 己酉) 4월 9일 손수 의관을 정제, 정좌하여 세상을 떠나셨다. 만헌선생의 묘소는 장수군 산서면 하월리 원당상록 갑좌경향(甲坐庚向)의 언덕에 모셨다. 만헌선생의 유고(遺稿)로 만헌집(晩軒集)이 있다.

남원 장수 임실의 유림들은 만헌선생의 유덕을 숭모하기 위하여 영천서원(寧川 書院)을 세워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우리들의 사표로 모시고 있다.<sup>39</sup>

35) 晩軒集 合浦 家史略, 前卷, 晩軒先生墓誌 典故 大方 南原誌 義兵將錄 昌原丁氏世譜

### 제 11 절 조선말 정승에 오른 류후조(柳厚祖)

조선시대의 가장 높은 관직을 삼공(三公)이라 하였으며 이는 삼정승(三政丞)을 가리킴이다. 영의정을 영상(領相) 좌의정을 좌상(左相) 우의정을 우상(右相)이라는 존칭을 붙여 불렀으며 삼정승을 다같이 상공(相公)이라 약칭하는 습관이 있었다. 상공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옛날부터 어느 문중에서나 정승 한 사람이 생겨야 파벽(破壁)한 문중이라 하였으니 벽성(僻姓)을 면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어느 고을에서나 정승이 된 분이 있어야 파벽한 고을이라 하였으니 벽촌을 면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우리 장수 고을에서는 방촌 황상공을 낳은지 무려 500년만에 비로소 낙파(洛坡) 류상공(柳相公)을 낳았으니 실로 정승자리에 오르기란 무척 어려운 모양이다.

조선시대의 어느 유명한 지사(地師)는 장수의 산세를 둘러보고 「종주산(宗主山)이 장안산(長安山)과 팔공산(八公山) 둘이 있어 정승 두분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더니 그 선견지명에 감복할 뿐이다. 또 어느 지사는 「장안산의 정기가 너무 커서 방촌 황상공이 24년간을 정승자리에 있었는데 또 어찌 이땅에서 정승이 태어 날 것인가」라고 했었는데 그분의 평에도 일리가 있어, 정승 하나가 더 탄생되는데 무려 500년이 걸렸던 것이다.

조선 말기의 왕인 고종(高宗)조 3년(1866年 丙寅)에 낙파(洛坡) 류후조(柳厚祖)선생은 오랜 관직생활을 통하여 덕망 높은 명관으로 정평이 나서 우의정(右議政)으로 발탁 돼 처음으로 정승의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해인 1867년(高宗4年 丁卯)에 좌의정(左議政)으로 승차하여 국정의 제2인자가 되었다. 낙파상공께서는 방촌상공과 함께 우리고장 장수출신으로 장수 고을을 파벽고을로 만들어 준 위대한 인물들이며 장수고을의 자랑이요 긍지라 할 것이다.

상공의 휘는 후조(厚祚) 자는 재가(載可)이며 관향은 풍산(豐山)이고 낙파(洛坡) 또는 매산(梅山)이란 두가지 아호(雅號)를 사용하셨다. 선생의 가문을 살펴보면 고려조에서 급제(及第)하신 휘 백(伯)을 시조로 하여 조선에 와서 공조판서(工曹判書)의 벼슬에 있던 휘 종혜(從惠)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에 있던 휘 중영으로 이어지며 다음이 상공의 8세조가 되는 휘 성룡(成龍)으로 영의정의 권좌에 올랐다.

시호를 문충공(文忠公)이라 하고 서애라는 아호를 썼으니 임진왜란을 수습한 명재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7세조 휘 진이며 지평(持平) 벼슬에 있었고 이분이 경상도 상주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여 6세조 휘 천지(千之)로 장령(掌令)의 벼슬에 있어 5세조에 휘 경하(經河)로 익능참봉(翼陵參奉)에 있었다.

고조의 휘 후겸(後謙) 증조의 휘 성로(聖魯)로 증이판(贈吏判)이며 조부의 휘 광수(光洙) 부친의 휘 심춘(尋春)으로 호는 강고(江皐)라 하여 내외직을 거쳐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에 올랐다.

순조(純祖)가 세자때 익찬(翼贊)으로 근무하고 익종(翼宗)〈즉 순조의 세자로 대리청정(代理聽政)까지 하였으나 즉위하지 못하고 죽었음〉의 세자때 좌익찬(左翼贊)에 있었고 헌종(憲宗)을 세손으로 책봉하였을 때 시강원좌장사(侍講院左長史)에 제수되어 3대세자의 강관(講官)이 되어 세칭 삼세계방(三世桂坊)이라 칭송받았다. 낙파상공께서는 어머니를 두 분을 모셨으니 통덕랑의 벼슬에 있던 이의수(李宜秀)의 딸 고성씨(固城李氏)와 사인(士人) 김정엽(金鼎暉)의 딸인 상산김씨(商山金氏)였으니 상공께서는 이씨부인 소생이며 1798년(正祖 22年 戊午) 12월 15일 호남의 장수현 장수읍(長水縣 長水邑) 내아(內衙 조선시대 현감의 관사, 현 장수군민회관자리)에서 출생하였다. 상공의 출생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음으로 강고(江皐) 류심춘(柳尋春)선생의 묘갈명(墓갈銘) 일부를 전재하여 고증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丙辰二月 入對便殿 上曰爾是嶺南望士家 且自別爲此召見 特除假注書 尋移孝陵參奉 引見命書入所懷 先生上疏 陳君德民弊 累千百言 十二月特教曰 柳尋春 極是佳士

況是誰之孫陞村副司果 丁巳出宰長水 損俸養老 興學補弊 縣人立碑頌之」

「병진년 2월 공전에 들어가 임금을 대하니 정조대왕(正祖大王)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영남의 신망하는 선비의 집안이니 스스로 분별하여 여기 불러보는 것이다> 하시며 특별히 가주서(假注書)에 제수하였고 이어서 효능참봉(孝陵參奉)에 옮기며 다시 인견하시고 생각한 바를 써서 드리라는 명령이 있어 인군이 덕을 베풀고 백성의 폐해에 관하여 수천백의 말을 상소하였다. 12월에 특별히 교지를 내리시니 유심춘은 옳고 좋은 선비이니라 향차 이것은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일까 하시고 부사과(副司果)의 직에 승진시켰다. 정사년(1797년 正祖 21年)에 나아가 장수(長水)를 다스리니 녹봉을 양노하는데 썼으며 배우는 것을 일으키고 민폐가 없도록 도와 주었으니 현내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칭송하더라.」

상기와 같이 낙파상공의 부친되시는 강고 류심춘 선생의 묘갈명을 전제하는 것은 우연히도 비명에 낙파상공의 출생지가 장수땅이란 증명서가 있기 때문이다.

정사출재장수(丁巳出宰長水)라는 불과 6자의 문구는 낙파상공이 장수에서 출생하였다는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 표기된 정사년은 1797년 정조 21년이며 낙파상공이 출생하신 1798년(正祖 22年 戊午) 12월 15일은 강고선생이 장수현감으로 부임하신 다음해이며 부임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낙파상공을 출생하였으니 삼척동자 보고 물어봐도 뜻을 이해 할 것이다.

### 장수에서 쌍둥이의 형으로 태어나

이와 같이 강고 유심춘 선생의 묘갈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97년 장수현감으로 부임하고 다음해인 1898년에 아들 쌍둥이를 출생하였으니 기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같은 날 한 배속에서 먼저 태어난 낙파상공께서는 정승이 되었으나 뒤에 태어난 동생 휘 효조(孝祚)는 통덕랑(通德郎)이란 말단 관직에 머물러 출세하지 못했으니 사주팔자의 신비함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상공의 모친 고성이씨는 후세에 까지 전해지는 여걸(女傑)이었다 하며 수다한 일화가 전하여 온다. 부인의 친절은 서울이었으며 부군 강고선생의 본저는 상주에 있었으니 시집가는 부인의 신행길은 문경새재를 넘어야 했는데 가마 속에서 시달리는 7백리 길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리라.



문정새재 정상에서 쉬어가는 참에 고성이씨 부인은 시종들에게 “서울에는 세치 달린 총각 놈도 없었던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 시키는구나”라고 하셨다니 신행길의 신부로서는 얼마나 당당한 말씀이었던가.

장수현감 부인으로 체통은 남달리 지키면서도 내아는 항시 여염집과 같이 개방되어 고을의 부녀자들이 무상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니 포용력과 교제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어느 부인이 “부인께서는 욕심도 많으시지. 어떻게 쌍둥이도령님을 낳으셨습니까.”하고 물으니 이씨부인께서는 “내가 장수 땅에 오래 살 수도 없으니 명산 장안산과 팔공산의 정기를 한꺼번에 받아가기 위해서 쌍둥이도령을 낳았으니 욕심 많다고 책망하지 마시오.”라고 하셨다는 것으로 이 또한 명담으로 부인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부인께서는 아들 낙파상공께서 장수현감이 되기전 관직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정들었던 장수땅으로 와서 양노하고 계시는 강고선생과 같이 장수땅에 계셔서 낙파선생께서 부모 효양을 목적으로 장수현감을 자원해 부임하였을 것이며 고성이씨 부인이 함께 장수현의 내아에 들렀을 때 장수땅 아낙네들이 몰려와서 경하하는 부녀들에게 “장수땅에 정도 들었지만 낭군따라 장수에 오고 다시 자식 따라 장수땅을 밟았으니 바로 이것이 삼종지례(三從之禮)가 아니고 무엇이요”하시며 구정을 새롭게 하시며 장수 부녀자들의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상공께서는 아버지 강고선생의 장수현감 재직기간 3년간을 이땅에서 자라고 내직으로 들어간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비교적 늦은 나이인 39세에 태학(太學)인 성균관 학사(成均館 學士)가 되었으며 동년 12월 후릉참봉(厚陵參奉)이 되고 다음해에 선공감부봉사(繕工監副奉事) 다시 다음해에 상서원부직장(尙書院副直長)에서 직장(直長)으로 승진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郎)으로 전직되어 정랑(正郎)으로 승차하고 1842년(憲宗 8年 壬寅) 8월에 장수현감을 자원해 부임하였으니 강고선생이 다시 장수에 거주하면서 양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전히 효도를 하기 위한 낙파선생의 거룩한 뜻이었으리라.

낙파선생은 장수 내아에서 낳은 후 44년만에 자기가 출생한 장수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으며 부자가 한 고을을 다스리는 드문 일이 생겨났다. 상공의 부자분과 장수고을의 인연은 대단한 것이라고 일러왔다.

1845년(憲宗 11年 乙巳) 6월 4년간의 장수 현감직을 마치고 내직인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의 자리로 옮겼고 장흥부사(長興府使) 장악원주부(掌樂

院主簿) 강릉부사(江陵府使)를 거쳐 1858년(哲宗 9年 戊午)에 문과정시(文科庭試)에 합격하였으니 이때 상공의 연세가 61 세였다.

동년 부호군(副護軍) 공조참의(工曹參議) 승정원부승지(承政院副承旨) 등을 거쳤으며 1862년(哲宗 13年 壬戌)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에 승진되고 형조참판(刑曹參判) 한성좌윤(漢城左尹) 1865년(高宗 2年 乙丑)에 공조판서(工曹判書)의 중직에 등용되었고 경연 춘추관 경연관(經筵 春秋館 經筵官)이 되어 고종 폐하(高宗 陛下)를 지근에서 모시는 중신으로 자리를 굳혔다. 1866년(高宗 3年 丙寅) 정월에 드디어 의정부 우의정(議政府 右議政)에 올라 삼공(三公)의 권좌에 앉았으며 천하에 호령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당시의 사회제도를 개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는 반상이 뚜렷이 구분되는 세대여서 등록된 양반만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그의 등록은 국학인 각 고을 향교에서만 향안(鄉案)이라 하여 조선 초기 국교를 유교로 정하면서 시행하던 제도로 과거에 응시하려면 각 고을 향교에서 향안의 사본을 떼어주어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양반선비 가문의 불가결한 제도요 중대한 임무였다.

그러면 낙파 류후조상공께서는 어느 고을 선비로서 과거에 응시하였는가 근래에 확인한 장수향교의 향안 중에서 류후조상공의 향안 조목이 발견되어 낙파상공의 출생지 내지 장수와의 관계가 자명하여질 것이다.

당시 종주국(宗主國)인 청(淸)나라 예속하에 있어 각가지 명목으로 사절을 청나라에 파견하였으며 역대 중국 왕조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몹시 괴롭게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학식과 덕망 경학과 사문 등에 능하며 더욱 풍모를 뛰어나게 갖춘 사신을 보내야만 무사했기에 항시 정사 선발에는 책임자가 없어 고심하였다. 1866년(高宗 3年 丙寅) 3월에 가례주청사(嘉禮奏請使)를 선발하였으나 낙파상공이 아니고는 갈 사람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 정사(正使)의 임무를 짊어지고 연경(燕京)에 가셨으니 청나라 조정에서는 낙파상공의 학식과 인품에 감복하여 지극히 환대 하였으며 중국의 명문장가들과 겨룬 시문들은 중국조야의 절찬을 받았다 한다.

### 고종 3년 정승이 됨

1867년 5월에 좌의정으로 옮겼으며 1872년(高宗 9年 壬申) 2월에 상소를 올려 윤허를 받아 사직하고 고향인 상주로 돌아갔다.

## 제8 편 인물(人物)

36) 奉朝賀는 조선시대에 전  
진관원 정2품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종신토  
록 재직당시의 녹봉을  
주었으며 국가의 의식이  
있을 때만 조복을 입고  
참여하는 원로의 직종

1875년 2월 25일 경상도 상주군 중동면 우천리(慶尙道 尙州郡 中東面 愚川里) 본저에서 돌아가시니 당년 78세였다. 조정에서는 봉조하(奉朝賀)<sup>36)</sup>의 교지를 내리시고 탁지부(度支部 지금의 재무부)에 명을 내려 상장(喪葬)등의 절차를 거행하게 하였으니 지금의 국민장에 해당하는 장의를 치렀다.

낙파상공께서는 안동김씨 60년 세도정치의 말기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전단정치의 초기에 정부의 중직에 계시면서 쇄국주의와 개화주의의 갈등 속에서 상공의 탁월한 식견과 훌륭한 지도력으로 조화시켜 소용돌이치는 정국을 이끌었으며 안동김씨의 세도에 흥선대원군의 전단에도 동요되지 않음은 강직한 신념과 중후한 인품의 소치라 할 것이다.

낙파선생의 묘갈명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 흥미하기로 한다.

「敎友敦睦之行 施於家勤儉廉勤之德 著於世 世之人無論賢愚貴賤 咸服其義而 慕其德 立朝四十年 嘗不聞有一言毀譽及於公 求近世明哲善保 如相公者幾希矣」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며 친척 간에 돈독하게 화목하는 행세로 부지런하고 검약하고 깨끗하고 근엄한 덕을 가정에 베풀고 세상에 알렸으니, 세상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그 의로움에 감복하여 그 덕을 따르더라. 조정에 벼슬한지 40년 상공의 명예를 헐뜯는 한마디의 말도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노라. 근세에 밝고 어질고 선하고 보전하는 사람을 구할 때 상공과 같은 사람 얼마나 드물 것인가.」

이글은 상공의 생전의 덕을 묘사한 기문인데 장수땅의 정기를 타고 태어나신 낙파상공의 평소 소행이 방촌 황상공과 흡사한데가 많아 세상에서는 장수땅에서는 호호야(好好爺)만 출생한다고 비웃었으나 인격이 도야되고 덕망을 쌓아 남의 모범이 되는 명현들의 행동이 어찌 법인과 같을 것인가.

인심고박(人心古朴) 태고순풍(太古淳風)이란 장수의 상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어오니 장수땅에서는 황방촌 유낙파 두 상공과 같은 인물이 헤일 수 없게 출생할 것이다.

박파상공의 아버지 강고(江皐) 류심춘(柳尋春)선생은 장수유림의 발의로 1847년(憲宗 13年 丁未) 장수현 장계면 송천리(長水縣 長溪面 松泉里) 서변 마을에 도암사(道岩祠)를 세워 위패를 모시고 배향하였다.

강고선생의 유덕과 낙파선생의 영향은 항만년을 장수땅에서 꽃피울 것이며 두 분의 덕망은 길이 만물되지 않을 것이니 오직 장수군민의 자랑이며 긍



지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sup>37)</sup>

37) 江阜 柳尋春先生 墓碣銘  
洛坡 柳厚祚 墓碣銘 同行  
狀 典故大方 洛坡相公 頌  
德碑 國史大辭典 長水誌

## 제 12 절 대동의병장(大東義兵將) 전기홍(全基泓)

장군의 휘(諱)는 기홍(基泓), 자(字)는 수용이고 관향(貫鄉)은 天安이며 해산(海山)은 호(號)다.

해산은 천안전씨 시조 휘 락(樂)의 25세손이며 단종(端宗)이 영월에서 화를 당할 때 청냉포(淸令浦)에서 순절한 휘 자온(自溫) 자양(自讓)의 후손 극례(克禮)해산의 14 대조가 진안으로 낙향하니 고조의 휘는 성행(聖行)이요 증조의 휘는 경백(慶伯)이며 조의 휘는 만업(萬業)이요 아버지의 휘는 병국(炳國)으로 어머니 경주김씨에게서 1879년(高宗 16年 己卯) 11월 24일 임실군 둔남면 국평리(任實郡 屯南面 菊平里)에서 태어났다.

1885년 아버지 병국이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원촌마을로 이사 오게 됨으로써 장수와 인연을 맺었으며 생장, 교육, 거의(舉義)는 물론 순절후의 유택(幽宅)까지도 장수땅에 있으니 장군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장수의 자량이라 할 것이다.

장군이 어려서 천자 동몽선습(童蒙先習)등을 학습할 때 비범한 재예가 있음을 본 아버지 병국공(炳國公)은 장차 유용한 제목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기특히 여겨 당천 이한용(唐川 李漢龍)선생에게 유학시켜 제세경국(濟世經國)의 지혜를 배우게 하였으니 넉넉지 못한 가산을 기울일 정도에 이르렀다.

관직을 사임하고 임피 낙영당(樂英堂)에서 강의를 베풀던 한국의 석학 연제(淵齋) 송병선선생에게 달려가 경륜을 쌓았으며 애국충정에 심취하였다. 이 강회에서 상봉한 임실 출신의 학자이며 애국지사인 정재 이석용 선생과의 교유는 더욱 장군으로 하여금 우국충정에 불타게 하였던 것이다. 정재 선생과 해산장군은 지기상합(志氣相合)하여 평생을 같이 하였던 형제간보다도 더욱 친근해졌으며, 결의형제의 정의를 다져 정재선생을 형으로 해산장군을 아우로 하여 형제는 합심하여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로잡을 것을 맹서함에 이르렀다.

이 때의 나라의 정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어 우리의 국권이 일본에게 약탈당하니 이듬해(1906) 4월에는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 선생이 전라도에 내려와 순창에서 창의했으나 관군에 패하고 면암은 끝내 대마도에

이송되어 왜놈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자결하였다.

정재선생과 해산장군은 최면암 선생의 순창 의려(義旅)에 참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의병을 초모(招募)하여 거의할 뜻을 세우고 격문을 방방곡곡에 돌렸던 바 3백여명이 모여드니 이들을 훈련하여 유격전으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지에서 수백명의 왜병과 헌병 보조원을 포살하였으며 따라서 호남의병대장 이석용과 막료인 해산 전기홍(海山 全基泓)의 명성은 팔도에 떨치게 되었다.

최면암 선생의 의거는 비록 이기지는 못하였으나 천하에 의기를 떨쳤으니, 성제 기삼연(省齋 寄參衍)선생이 장성(長城)에서 암천 고광순(庵川 高光璠)선생이 담양(潭陽)에서 오성술(吳聖述) 김영엽(金永燁) 박도경(朴道京) 문태서(文泰瑞)등이 각처에서 봉기하여 대한 남아의 기개를 떨쳤다.

그러나 충성과 의기에 탁월한 성재 기선생과 녹천 고선생은 전투나 병법에 능하지 못하였으며 왜군의 신병기(新兵器)에 연패하여 두 선생이 이어 순절하고 말았으나, 라주(羅州)출신 참봉 김준(參奉 金準)의병장만이 연전연승하여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전라북도 일원에서 유격전을 전개 중이던 정재선생과 해산장군은 전라남도 장성땅에 들어가니 김준의병장이 왜적에게 패하고 순절하였음을 듣고 광주 나주 등지를 배회하면서 동지들의 소식을 탐문하던 중 의병장 오성술(吳聖述)의 대열을 만나 합류하고 나주 道林洞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 김장군의 선봉장 조경환(先鋒將 曹戰煥)이 이끄는 일지군과 패잔졸이 모여 들었다. 특히 을사늑약(乙巳勒約)의 체결을 배척하다 무안군 智島에 유배되었다가 전라도 의병 봉기의 소식을 듣고 적소(謫所)를 탈출한 근위군 참위(近衛軍 參尉)정원집은 20명의 근위군 유배자를 인솔하고 합류하여 더욱 의려의 성세를 높였다.

### 의병대장 맞아 왜적과 싸워

1908년(純宗 2年 戊申) 7월 25일 양암정에 모인 여러 장졸들은 해산 전기홍을 대동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게 되었으며, 장군은 제장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어 지휘권을 잡아 체통을 갖추고 부서를 정하여 왜적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니 당시의 부서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동의병장 전기홍(大東義兵將 全基泓) 선봉장 정원집(先鋒將 鄭元執) 중

군장 김원범(中軍將 金元範) 후군장 윤동수(後軍將 尹東洙) 호군장 박영근(護軍將 朴永根) 도포장 이절진(都炮將 李節鎭) 처후장 임장택(斥後將 林長澤) 도통장 김성채(都統將 金性采) 참모장 이봉래(參謀將 李鳳來) 참모 이영준(參謀 李永燾) 김돈(金澍) 김공삼(金公三) 김원국(金元局) 이성화(李聖化)

부서를 정비한 대동의병단은 나주 석문동 오씨제실(吳氏齋室)에 둔진하여서 병기를 조달하고 사졸을 훈련하였으며 근처에서 항일의거를 빙자하여 양민의 재산을 노략질하던 비적들을 체포하여 장살하였으므로 민간의 원성이 풀렸으니, 의병들에게 엄명하여 무고한 백성들에게서 약탈을 금함으로 군율이 확립되고 인근 주민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이 때 의병장 金永燁이 합류하여 의병의 수효 4백여명에 이르렀으니 일본 관헌이 이를 탐지하여 사방으로 석문동을 포위하여 석문동대전이 전개되었으며 수백명의 왜병을 살상시키고 적을 아군의 매복 장소로 유인, 요격하여 더욱 많은 사상자를 냄으로써 왜군을 격퇴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 때 호남 각지에는 대동의병대장 전기홍 장군의 격문이 나붙었으니 그 서두는 다음과 같다.

「嗚呼 天下之大義 有三關一則人不人國不國矣 何謂大義有三 祖宗土地一寸不可與人 祖宗人民一箇 不可爲夷 祖宗道學一日不可或墜 道學或墜 君不君 臣不臣 父不父子不子 而人道絕矣 故土地人民可無 而道學不可一日無矣」

「오호라 천하의 대의에 세 가지 문이 있으니, 첫째에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고 나라를 나라라 하지 않으며 어찌 대의에 세 가지가 있다 할 것인가. 조종에서 물려받은 토지는 한 치라도 남에게 줄 수 없고, 조종으로부터 이어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게 할 수 없으며, 도학이 땅에 떨어지면 임금은 임금이 아니며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요 자식은 자식이 아님으로 하여 사람의 도리가 끊어지나니, 때문에 토지와 백성은 없어도 되나 도학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 격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산 장군은 나라의 땅을 단 한 치라도 왜적에게 줄 수 없고 뺏길 수 없다는 결의가 굳어 있으며 국민 한 사람도 왜적이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각오가 확고하다.

장군은 병법에 능하여 항시 적후병의 정보, 지리적인 요건 등을 이용하여 아군의 피해는 최소한도로 줄이고 적에게는 큰 타격을 줌으로써 명장의 성가를 높였다. 광산(光山) 대치(大峙)작전 순창(淳昌) 내동(內洞)작전, 정읍(井



邑) 입암산(笠巖山)작전 순창 화개산(華蓋山) 작전을 대승리로 장식하고 장성(長城) 자은곡(自隱谷) 함평(咸平) 고막원(古幕院) 등 치열한 전투를 치렀으며 고막원에서는 선봉장 정원집을 잃고 무척 슬퍼하였으며 1909년 정월 영광 선치작전을 필두로 무장, 고창, 변산 등지에서 치열한 작전을 펴 많은 왜병을 주살하고 다시 영광으로 돌아와 오동촌(梧棟村)에 포진하고 있을 때 연전연패한 왜군은 구원병을 동원하고 포위하여 격전이 전개되어 피아간에 많은 사상자를 낸으로써 막을 내렸다.

많은 부하 의병을 잃은 장군은 좋은 계책이 생길 때까지 의려를 해산하기로 제장들과 상의하고 해산격문을 돌렸다. 한편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 11진의 각 진 병력과 대장은 다음과 같다.

- 대동의병대장 전기홍 산하 500 명
- 제1 진의병장 심남일 산하 500 명
- 제2 진의병장 박도경 산하 300 명
- 제3 진의병장 김영엽 산하 200 명
- 제4 진의병장 조대천 산하 300 명
- 제5 진의병장 신화산 산하 200 명
- 제6 진의병장 이순신 산하 100 명
- 제7 진의병장 이기손 산하 100 명
- 제8 진의병장 오성술 산하 70 명
- 제9 진의병장 권 택 산하 50 명
- 제10 진의병장 안덕봉 산하 100 명

해산장군은 크고 작은 전투 71 회를 치렀었다. 그는 다시 대구 복심법원에 이송되어 재판 받던 중 해산 장군은 <내 눈을 빼서 동해상에 걸어 놓으면 미구에 일본이 망하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했으니 장군의 예언은 불과 35년 후에 실현되고 말았던 것이다.

#### 왜경에 체포돼 31세로 사형

1910년(純祖 4年 庚戌) 7월 19일 당대의 영웅 해산 전기홍 장군과 의병장 박영근 장군이 사형이 집행되어 불과 31년간의 짧은 인생을 마쳤다. 장군의 부모님은 체포되어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한 나머지 식음을 전폐



변암면 노단리 전해산 추모제

하고 신음을 계속하다가 세상을 뜨셨으니, 장군의 부인 김해김씨가 정성어린 치상으로 장사지냈으며 부인 혼자서 가정을 지키고 있던 중 동년 9월 8일 동지들과 친척이 대구에서 유해를 운구하여 본택으로 돌아왔다. 김해김씨 부인은 남편의 시체가 든 관을 어루만지며 방성대곡하고 그날 밤 남편을 따라 자결하여 동네사람들은 이충신과 열녀의 쌍 상여를 만들어 운구하여 장수군 변암면 대론리 원촌마을 앞 양지바른 골짜기에 쌍분을 만들었다. 과연 남편에 그 부인이었으니 남편은 충성에 죽고 부인은 절의에 죽었다. 뒤에 사람들은 장군을 추모하여 금성인 오동수(錦城人 吳東洙)가 행장(行狀)을 쓰고 오준선(吳駿善) 기동준(奇東準) 기우만(奇宇萬) 이석용(李錫庸) 임철규(林哲圭) 제현이 제문(祭文)을 지어 제사 지냈다.

장수 유림들은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에 전해산 의병대장 추모비를 세워 장군의 정신을 추모하였고, 정부에서는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광화장(光化章)을 수여하여 장군의 공적을 찬양하였으니 우리 후세사람들은 장군의 정신을 흠모하며 장군의 은덕에 감사할 따름이다. 장군이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보낸 격문은 삼일독립선언문(三一獨立宣言文)에 버금가는 명문장이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등박문에 보내는 격문 발표

「대동의병장 호남의 전기홍은 글을 이등박문(伊藤博文) 통감(統監)에게 보내어 말하노라. 무릇 천하의 백성이 각기 그 나라가 있고 천하의 나라가 각기 경계가 있으니 강하여 삼키지 않고, 약하여 없어지지 않으며, 나라에 그 백성이 있음으로써 그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이 나라가 있음으로써 그 백성을 보호하느니 우리는 국조 단군(國祖 檀君)이 계심으로 나라를 세워 지금까지 4천여년이라. 진(秦)나라



한(韓)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 경계를 침범하였으나 종내 우리 민족은 멀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은 살아있다.

귀국은 국조(國祖) 신무(神武)가 나라를 세워 지금까지 3천여년 여러 차례 우리 경계를 침범하였으나 필경 나라의 힘을 허비하는데 겨우 그쳤으니 이것은 바로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각기 그 나라를 정하고 빼앗기지 않고 멀하지 않는 이치가 있나니, 우리나라 백성은 농사와 누에 키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전쟁을 아니 하고 학문을 닦았다.

요순 때와 같은 백성으로서 요순과 같은 임금에게 보답하고 임금이 요순과 같은 임금으로서 요순 때와 같은 백성을 다스리므로 태평을 이룩하고 전쟁을 모르고 산지 몇백년에 이르러 동학(東學)의 난리가 있었으니, 귀국은 이 기회를 타고 들어와 필경 우리 국모를 사살하고 궁궐을 범한 죄가 있으며, 우리 신민을 협박하고 우리 인군을 피어 우리 정권을 빼앗아 한국을 삼키고 만주를 병합하여 백성을 옮기고 민족을 바꾸고자 하는 뜻이 있으며,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여 보고자 함이로다. 달은 차면은 기울고 물은 가득하면 넘치는 법이니라.

귀국 군대는 러시아 군대를 해상에서 격파하고 청국군을 육상에서 패해 돌아가게 하였으니 양국에 원한을 쌓았으며, 우리 국민들도 역시 쟁 위에 누워 쓸개를 밟는 괴로움이 있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임으로 어찌 능히 용이하게 여러 나라를 삼킬 수 있을 것이라. 귀국의 백성은 불과 기천만이요 대륙제국의 백성은 기억만이지 모르고 귀국의 재산은 불과 기천만인데 제국의 재산은 기천 억만인지 모르니, 한정이 있는 국재로서 한번 이겼다는 교만으로 감히 대륙을 침범하여 민족을 바꾸려는 뜻은 하늘의 도리를 어기는 것이며 역량을 모르는 것이니라. 우리들의 의거는 비유하면 호랑이에게 죽은 사람을 호랑이 굴에서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호랑이에게 죽으면 세상 사람이 반드시 칼과 창을 들고 모여서 사냥을 한즉 호랑이는 마침내 사람에게 반드시 죽느니라. 나의 의거가 역시 어찌 이와 다르랴. 이것이 바로 천하의 사냥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라. 귀국은 우리 형제를 피어 우리의 정권을 빼앗았으나 그러나 오직 전 한국민은 칼날 밑에서 죽을지언정 맹세코 귀국의 밑에서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삼호(三戶)가 남아서라도 귀국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한국일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입술이 망하면 이가 차가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로 고하노니 반드시 널리 살피기 바라며, 일본의 황제에 회보하여 제 조약을 없애고 불태워서 이웃이 서로 사귀고 각기 그 나라를 보호하여 역행하는 것을 돌이킴이 옳다. 금년에 우리 의병군을 죽이고 우리 한



국을 병합하고 또 명년에 만주를 삼키니 나라를 기울인 힘을 다하여 한국과 만주에서 ‘민족을 바꾸니 한국 만주의 백성이 날로 더 봉기하여 맹세코 원한을 쌓은 나라와 같이 서지 않으려 할 것이며, 서구의 군대가 같이 일어나 바다로부터 달려들어 이부자리를 거두고자 할 것인즉 한국은 비록 삼호(三戶)가 되어서라도 다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이나 일본은 천만가지 반드시 망할일이 있으며 재생의 기회가 없어 민족이 남김없이 없어짐이 불과 몇 년만일 것이니, 밝게 살핌으로써 그 백성을 보호하고 그 나라를 보호함이니라. 어찌 힘을 가늠하지 못하고 하늘이 정한 명을 거역하는고.’ 62년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됐다.<sup>38)</sup>」

38) 海山 倡義錄 行狀 祭文

### 제 13 절 호남의병장(湖南義兵將) 문태서(文泰瑞)

1910년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창의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때 우리 고장 출신으로 유격전의 병법(兵法)을 익혀 일본군의 신식 무기에 대항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의병대장이 있었으니 바로 문태서(文泰瑞) 장군이다.

장군의 휘는 태서(泰瑞)이며 관향(貫鄉)은 단성(丹城)으로 고려조 우문제학(右文提學)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강성군(江城君) 부민후(富民侯) 忠宣公 문익점(文益漸)의 후예로, 강성군의 23세손 휘 고옥(固郁)의 손자며, 휘 병현(炳鉉)의 아들로 1880년(高宗 17年) 3월 16일 경상도 안의현 서상면 장구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병현공은 후사가 없음을 걱정하여 부인 밀양박씨와 같이 지성으로 산신제를 지내고 태몽을 꾸어 옥동자를 얻었으니 기상이 비범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재질이 출중하여 11세에 사서삼경을 능독할 정도로 天文地理에 능통했다.

1897년(高宗 34年 丁酉) 공의 연세 18세에 아버지 병현공이 가권을 인술하고 장수군 계북면 당저 마을로 이사하였으나 미구에 계북면 을곡마을로 정주하였다. 2년후에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에 거주하는 김경여(咸昌金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신흠생활을 시작했다.

공의 나이 15세에 전북 고부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주장이 제폭구민, 척왜척양이므로 부모의 만류로 동학에 직접가담은 못했으나 민족과 조국을 위해 한목숨 바친다는 일념과 평소에 충무공을 숭배했는데 사형이

감면된 후 백의종군했던 충무공의 인격에 감명되어 구국의 길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고 결심하고 1904년(高宗 41年 甲辰) 25세 되던 2월에 안의현 서상면에 사는 李齊杜의 紹介를 받아 금강산에 은거수도하고 있다는 용병술(用兵術)과 총포술(銃砲術)에 능한 박처사(朴處士)를 찾아서 금강산에 들어갔다.

박처사로부터 兵法을 열심히 수련 중(修練中) 1905년(高宗 42年 乙巳) 11월 16일 을사늑약이 조인되어 국권이 왜놈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공은 가늠할 길 없는 울분을 느끼며 박처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한양으로 가서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을 만나서 의거(義舉) 할 것을 밀의(密議)하고, 1906년(高宗 43年 丙午) 5월 하순경 지형을 잘 아는 덕유산(德裕山)을 거점(據點)으로 義兵활동을 하기 위해 덕유산 근처에 있는 집으로 왔다.

#### 덕유산 근거지로 의병 모아 전투

장수땅에 돌아온 선생은 뜻이 맞는 청년들을 초모(招募)하는데 열중하였고 덕유산 근방에서 수렵에 종사하는 포수 20여명을 설득하여 의병에 참가시켰는데 본거지를 토옥동 입구 양악에 설치하여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각처에 격문을 돌려 한일 독립투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제일 먼저 장수군 계북면 백암리 출신 박춘실(朴春實)이 수하의병 50여명을 이끌고 참가하고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 출신 박수문(朴守文)이 10여명의 장정과 함께 참전하였고 무주군 안성면 오동리 출신 전성보(全誠輔)가 일지군을 인솔하고 참여하게 되자 의병대열을 편성하는데 손색이 없었다.

때마침 전라남북도에서 명성을 떨치던 본고장 출신인 대동의병대장 해산 전기홍장군은 전남 장성 함평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전북의 서남부지역에서는 이석용장군이 의병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북의 동북부지역 즉 덕유산을 거점으로 함양 거창지역까지 의병활동을 하던 문태서장군은 호남의병단(湖南義兵團)을 조직하고 중의에 의해서 대장이 되었다.

당시의 부서와 명칭은 아래와 같다.

- 호남의병대장 문태서(文泰瑞), 비서(秘書) 박수문(朴守文)
- 선봉장(先鋒將) 박춘실(朴春實)
- 중군장(中軍將) 김성보(金誠輔)

## · 후군장(後軍將) 신탁광(申託光)

문장군은 덕유산의 은밀한 곳에 수십개의 비밀 막사를 설치하고 유격전을 전개 하여 일본군을 현혹하게 하였고 기습작전으로 대전과를 올리면서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문장군의 전투의 실례를 소개하자면, 덕유산 원통사 계곡에 적을 유인하여 섬멸한 원통사작전, 계북면 농소리, 문성리에 적을 유인하여 일본 군대를 괴멸시킨 농소리작전 등은 실로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의병대는 또한 일본군의 무장을 노획하여 의병에게 완전 무장을 시키는 중요한 전투가 되었으며 일본군은 수백명의 살상사가 발생하게 되자 연대병력을 투입하여 덕유산을 포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무주군 적상면 삼류리 유감역(柳監役)이란 부자집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일본군을 오인케 하여 유도하고 부남면 고창곡(高昌谷)으로 유도하여 적의 일개 부대를 섬멸한 고창곡 작전은 더욱 유명하다.

덕유산을 완전 포위하여 총공세를 취한 일본군은 구천동계곡을 장악하려는 속셈으로 대부대를 진입시켰으나 분산된 의병을 집합시켜 각처 요지에 매복시킴으로써 계곡속에 들어온 왜군을 독안의 쥐 잡듯이 섬멸한 구천동작전으로 문장군의 명성은 천하에 떨쳤으며 멀리 강원도에서 까지도 전파되어 이병열(李秉烈)이 참전하기도 했다.

계속 경향 각지에서 몰려온 의병의 수효는 300 여명에 이르러 유격전에 필요한 인원으로서는 과다하므로 부대를 재편성하였는데 본부인 토옥동(土玉洞)에는 박수문(朴守文)을 대장으로 하여 본부대를 두고 덕유산 남쪽 거창지역에 박춘실 부대를 주둔시키고 구천동에 전성보부대, 안성면 칠연곡에 신탁광부대를 유진케 하는 4개대를 조직 편성하고 각기 작전함으로써 문장군의 의병은 신출귀몰하여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질 정도였다.

문장군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경성(京城)으로 쳐들어가 조선총독부를 습격 하여 한국 통치의 본산을 없애 버리려는 작전을 수립하여 결사대를 조직하고 1대에 20명씩 3대를 편성, 순차로 출발케 하였다.

마침 일본은 경부철도를 부설하고 조선침략의 지름길을 만들었으니 한국의 중요 물자가 철도편에 의하여 일본으로 수송되어 갔다. 의병들은 이 광경을 보고 분개하여 이원역(伊院驛)을 습격, 경비병과 왜인들을 죽이고 방화



소각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이원역 습격사건이다.

일본군은 연도 경비를 강화하자 의병 결사대의 상경길이 막혔고 수십차례의 전투를 벌이면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

### 결국은 동족에게, 가슴 아픈 최후

만일 이원역 습격을 하지 않고 상경하였으면 조선총독부 습격도 가능하였으리라는 것이 후세의 평이며,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건의 추진이 중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문장군은 장수, 무주, 거창, 함양, 진안 등지에서 대소 접전 5백여회에 최소한 일본군 1천명 이상을 사살하였다는 것이 전해 오고 있다.

1911년 11월 3일 장수읍의 일본 헌병 수비대에서는 명치천황(明治天皇)의 탄생일 기념행사가 끝나고 축하연이 베풀어지고 있었으며 하사주(下賜酒)라는 명목의 술이 배급되어 거나하게 취한 일병들의 노래 소리는 흥취가 도도했다. 이 때 난데없는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쳐들어온 의병들에게 일본군은 전멸하고 말았다.

일본 수비대를 습격하여 완승을 거둔 문장군 휘하의 장병들은 의기양양하게 싸리재를 넘어 계남면과 장계면의 경계인 계남면 갈평마을의 뒷길로 하여 장계면 남산마을로 넘어서는 작은 고갯길을 가고 있었는데 박춘실이 이끄는 선봉부대가 통과하고 후속 본부대가 통과하기 직전 천지를 흔드는 총소리와 함께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연출되었다.

진안, 무주 근방에서 급파된 일본군이 매복한 것을 모르고 통과하려던 문장군 휘하와 의병들은 전멸상태가 되면서 장계쪽으로 후퇴하였으나 장계리 남쪽 갈평 입구에 포진한 장계 수비대의 일격에 또다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패전을 모르던 문장군은 대승리 후의 잠깐의 부주의로 대부분의 부하 의병을 잃고 불과 몇명의 수하를 데리고 후퇴하였으나 일군에게 밀려 덕유산 본거지마저도 발붙일 곳이 없었다.

장군은 의병 대열을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으며 의병 모집차 함양군 서상면 장구동에 1912년 8월 17일에 들어가 평소 안면이 있는 임종두(林鍾斗) 조한기(曹漢基) 등을 만나 주점에서 접대하는 술 몇잔을 마시던 중 이들이 감춰두고 온 쇠망치로 무릎을 얻어맞고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끝내 포박 당하는 비극이 빚어졌다. 동행한 박수문도 같이

포박되어 안의(安義), 대구(大邱), 경성(京城) 감옥으로 이송, 모진 고문을 받은 끝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1913년 癸丑 2월 4일 피를 토하면서 옥사하였다. 당년 장군의 연세 불과 34세였으며 청춘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불세출의 의병장은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문장군은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는 영광이 있었으며 장수군민은 장수오의(長水五義)의 한분으로 추대하여 장수삼절(長水三節)과 같이 유덕을 존경하면서 추앙하고 있다.

무주구천동에 의병장 문태서 전승 기념비가 세워졌고 안의(安義)에 의병장 문태서기념비가 있어 조국광복과 함께 문태서 장군의 항일투쟁의 위대한 정신이 발현되었으니 우리 고장이 낳은 불세출의 인물이라 할 것이다. 62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이 추서됐다.

1997년 봄에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입구에 장수군수 김상두의 협조로 군비지원을 받아 장수오선열(五義) 현양사업회<sup>39)</sup>에서 “義兵大將文公泰瑞 朴公春實戰蹟碑”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덕유산은 거점으로 구국의 횃불을 높이는義士들이 계시니 의병대장 문공태서와 박공춘실을 비롯 많은 의병들이시다. 丹城文公泰瑞는 忠宣公 益漸의 24세손이며 文公炳鉉의 장자로 1880년 3월 16일 함양군 서상면 장구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智, 仁, 勇을 두루 갖추었다. 18세에 장수군 계북면 당저로 이사해서 김경여의 딸과 결혼했다.

25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박처사로부터 용병술과 총포술을 배우고 을사년에 최익현과 창의를 모의한 뒤 덕유산에서 포수 수십인과 창의하니 먼저 50여인을 이끌고 온 박춘실장군과 다음에 온 朴守文, 全誠輔, 申託光, 李炳烈 부대를 양악에서 맞아 호남의병단을 결성했다. 총참모장에 문태서, 선봉장에 박춘실, 중군장에 전성보, 후군장에 신탁광, 비서에 박수문으로 정하고 의병 삼백여 인으로 團편성을 마쳤다. 문공은 신출귀몰하는 전법으로 농소, 문성, 토옥동, 원통사, 고창곡, 구천동 전투와 장수주둔 수비대 이원역 습격작전 등 연전연승으로 적을 놀라게 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합방 이후 왜군의 강세에 물려 재기를 도모코자 귀향 중인 1912년 8월 17일 왜군에 체포되어 대구를 거쳐 경성(서울)으로 이감 모진 고문에도 위풍당당했으나 1913년 2월 4일 박춘실과 동지들을 부르면서 지하에서도 조국을 수호하리라는 절규를 끝으로 향년 34세에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密陽朴公春實은 朴公蘭溪 휘 연(堧)의 16세손이며 朴公尙淳의 장자로 1875년 10

39) 長水五先烈(五義)顯揚事業會〈會長 金鎮泳〉

월 13일 진안군 안천면 와정리에서 태어나 장수군 계북면 백암리에서 성장하였다.

장성하면서 뛰어난 용력과 기백으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31세에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동지를 규합 구봉산작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고 덕유산으로 이동하여 선봉장으로서 무·진·장, 안의, 거창 등지를 종횡무진 유격전을 펼쳐 접전 수백회에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특히 적상산전투에서는 적이 호랑이로 부를 만큼 용맹을 떨쳤다. 문장군이 체포된 뒤 총 지휘장이 되어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1913년 11월 수천의 왜군과 토옥동에서 접전 필사적으로 항쟁했건만 장군은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대구로 이송 후 감옥을 부수고 동지 백여 명을 탈옥시켜 재 투쟁케 하는 등 끝까지 굴하지 않다가 1914년 6월 3일 향년 40세에 옥중에서 벽에 머리를 찡고 자결하였다. 또한 아울러 무명 의병들의 전공을 기리고 명복을 빈다.

#### 제14 절 호남의병(湖南義兵) 선봉장(先鋒將) 박춘실(朴春實)

일제침략이 노골화되고 을사늑약이 조인되자 31세 선생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구출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주장하면서 뜻이 맞는 동지를 규합하여 항일투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인근 진안, 무주와 본고장 장수의 서민 청장년을 설득하여 의병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서민출신으로 명망도 없고 학식도 부족한 장군과 같이 의병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좀처럼 없었다. 1906년 4월에 충신이며 당대 석학인 최익현선생이 순창에서 거의한다는 격문을 보고서 달려가 참전하였으나 맨주먹으로 싸우는 의병의 대열은 관군의 일격으로 패하고 말았다.

최익현선생의 11명의 유생들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자 의병은 해산되고 장군은 고향인 장수군 계북면 백암리로 돌아왔다. 장군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과 이길 수 있는 무장을 갖추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동지 몇 사람을 규합하여 실천에 옮겼다.

이것이 항일구국 투쟁을 시작하는 동기가 되고 끝까지 신명을 바쳐가며 투쟁한 장군의 위대한 애국정신의 소치인 것이다.

#### 박씨문중의 12대 장사

장군의 姓은 密陽 朴氏요, 휘는 東植이고 字는 春實이니 大提學 吏曹判書



号蘭溪 諱換 后 16世孫이며 武科先達 諱 尙淳의 長子로 1975년(高宗 12年 乙亥) 10월 13일 鎭安郡 顔川面 臥亭里 중구실에서 탄생 직후 長水郡 溪北面 白岩里에 이거 성장하였다.

어렸을 때는 가세가 빈곤하여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농사와 산간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을 채취하여 생업을 삼았으나 가문의 전통을 잃지 않기 위하여 가정교육만은 철저하였다.

특히 이 가문은 선조 대대로 신체가 우람하고 체격이 장대하여 8척 장신 이었고 고을 안에서는 힘을 겨뤄볼 상대가 없을 정도로 장사 집안이었다. 장군이 출생하여 자라면서 부조의 체격과 골격을 이어받았고 더욱 민첩하고 영리하여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하였다.

장성하면서 더욱 민첩하고 산에 오르는 것이 비호(飛虎)와 같았고 웬만한 나무는 뛰어 넘자 세상 사람들이 박씨 문중의 12대 장사라고 평하였다. 동네 친구들의 권고로 초가집을 뛰어 넘었다는 소식을 듣자 장군의 부친은 몹시 꾸짖으며「용력(勇力)을 함부로 쓰거나 보여 주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것이며 그러한 용력과 민첩함은 더욱 연마하고 아꼈다가 유용할 때 발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서 유용한 제목이 될 것을 생각하라」고 말 씀하였다.

나이 32세가 되던 1906년에 최익현 선생의 순창 거의에 참전하였다가 돌아온 장군은 동지 몇 사람을 규합하여 일본군 헌병이나 헌병 보조원의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는 방법이 의병무장의 가장 좋은 계책임을 설명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일본 헌병이 순찰하는 것을 습격하여 무난히 총기를 입수하는데 성공하였고 다시 무장한 총기를 이용하여 일본군을 습격하여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였다.

박장군의 용력과 애국정신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원근에서 모여들은 의병의 수효는 점점 많아졌고 50여명의 막강한 대오를 편성하고 본격적인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자 바람같이 숨어들었다가 적을 섬멸하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전법을 쓰자 장수, 무주, 용담, 진안 등지의 일본 헌병들은 전전긍긍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1907년경 장수군 계북면 을곡마을 출신 문태서 장군이 토옥동을 근거지로 거의하여 격문을 돌리는 것을 받아보고 찾아간 장군은 계북면 양악리에서 문장군을 만나 백년지기와 같이 서로 반기고 지기상합(志氣相合)하여 조국광복이 될 때까지 협력하여 투쟁할 것을 맹서했다. 즉시 본부를 토옥동으로 옮긴

장군은 호남의병단(湖南義兵團)을 조직하고 연소하지만 학식과 덕망, 병법까지 겸비한 문태서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선봉대장이 되었다.

문태서장군의 휘하 장병을 무장하는데 무려 3년여가 걸렸으며 대부분 일본군과 싸워서 노획한 박장군의 무기였으며 이것으로 용기를 얻은 의병들은 영웅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장군의 투쟁기록은 문태서 장군의 투쟁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며 문태서장군의 본부대가 참변을 당하고 문장군마저 체포되자, 박장군이 총지휘장이 되어 남은 의병들의 대오를 정비,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1913년 11월 수천의 왜군과 토옥동에서 접전, 필사적으로 항쟁했지만 중과부적으로 장군은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서 감옥을 부수고 동지 백여명을 탈옥시켜 재투쟁케 하는 등 끝까지 굴하지 않다가 1914년 6월 3일 향년 40세에 벽에 머리를 찧고 자결하였다.

#### 적상산성 작전에서 용맹 떨쳐

1912년 무주 적상산성 작전과 계북 백암작전에서 용맹을 떨쳤다. 1913년 무주구천동 작전에서는 무수한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며 동년 장계 현병분견대 습격, 치열한 전투 끝에 큰 전과를 올리기도 했다. 계북면 어전문성 작전에서는 며칠간을 피아의 총소리가 진동하였다는 촌로들의 증언으로 보아도 얼마나 당시의 전투가 치열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덕유산을 근거로 하는 박장군은 유격전을 전개하여 오늘은 장수, 내일은 함양, 모래는 거창으로 출격하여 일본군이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자 수비하는 일본군으로서는 커다란 걱정거리였다.

1913년 일본군은 소위 덕유산 소탕작전을 개시, 정예부대를 투입하고 박장군부대를 압박, 계북면 토옥동 계곡으로 포위망을 좁혀가며 격전이 전개될 때 무수한 일본군을 사살하였으나 장기간 싸우던 의병들은 탄환의 보급이 불가능하여 육탄전까지 벌이다가 대부분이 전사하였으며 박장군도 부상을 입고 일본군에 체포되었다.

장계를 거쳐 전주형무소에 압송된 박장군은 재판관을 받던 중 형무소 옥창을 격파하고 탈옥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으며 초심에서 사형이 언도된 후 복심법원이 있는 대구로 압송되어 수감 중 재차 탈옥을 시도하였다. 1914년 6월 3일 밤 옥벽을 부수고 독립투사 1백여명을 탈옥시키는데까지는 성공하였으나 박장군 자신은 옥창과 옥벽을 파괴하는데 기진하여 행동하

기 곤란함을 알고 벽돌담에 머리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순절하였다.

박장군은 우리 고장이 낳은 최후의 의병장이며 또한 가장 용감하게 왜적과 싸운 불세출의 의병장이었다.

장군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하여 반장되어 계북면 백암리에 안장되었으나 현재는 대전국립묘지 선열묘역으로 안장했다 장수군민의 추천에 의하여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이 추서되었다.

장수군민들은 백용성(白龍城) 전해산(全海山), 문태서(文泰瑞), 박춘실(朴春實), 정인승(鄭寅承) 이 다섯 분을 장수오의(長水五義)로 추앙하며 장수삼절과 같이 장수의 상징으로 삼고 그의 위대한 공적과 유덕을 추모하고 있다.

## 제 15 절 석가여래부촉법제육십팔세(釋迦如來付囑法第六十八世) 용성 진종 조사(龍城震鍾祖師)



개화기(開化期) 한국불교의 지도자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용성조사(龍城祖師)는 일찍이 불문(佛門)에 들어가 불교대중화를 위해 경전 번역사업을 실천하였으며 화과원(華果園)을 세워서 승려가 농사를 지으며 수도하는 불교개혁에도 앞장섰다.

또한 일제침략에 맞서 3·1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옥고를 치르면서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과 민중의 계몽에 정열을 쏟았던 근세 우리나라 대표적인 명승(名僧)으로

서 조선말엽과 일제치하를 통하여 불교계의 개혁자로, 독립운동의 선구자로 존경받아 마땅할 것이다.

조사의 관향은 수원(水原)이며 속성은 백(白)씨이다. 고려조에서 광정대부(匡靖大夫 吏部典書) 보문각대제학(寶文閣 大提學)의 벼슬을 지내고, 조선(朝鮮)의 역성혁명에 불만을 품고 원주의 치악산에 숨어들었으나 이 태조(李太祖)와 태종(太宗)의 부름에 거역, 장수에 유배된 후 적사(謫死)한 고려의 수절신(守節臣) 정신재(靜愼齋) 백장(白莊)선생의 후예이다.

부친의 휘는 남현(南賢)이요, 모친은 밀양손씨(密陽孫氏)이다. 손씨부인이

용성 조사 영정



꿈에 법의(法衣)를 입은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기가 있어 1864년(高宗 1年 甲子) 5월 8일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에서 출생하였다. 법명을 진종(震鍾)이라 하고 자(字)를 상규(相奎), 법호(法號)를 용성(龍城)이라 하였다. 불교법통으로 석가(釋迦)의 제자 칠불(七佛)중에서 여섯번째 부처님 가섭(迦葉)으로부터 38대 법손인 임제선사(臨濟禪師)로 법통을 계승하여 태고보우(太古普愚 58代 1301~1376) 제37대 환성지안(喚猩志安) 대사로 이어져 지안대사의 후예가 되는데 석가여래부촉법제육십팔세 법손이 되며 우리나라 법통으로는 임제선사를 선종(禪宗)의 기원(起源)으로 한다면 제36대 법손이 지안선사(志安禪師)이니 제37대 법손이 용성선사(龍城禪師)가 되는 것이다. 조사가 태어난 죽림촌(竹林村)은 섬진강(蟾津江) 상류인 요천(蓼川)이 두 갈래로 흘러오다 합류하는 곳으로 명산 장안산(長安山)의 일맥이 서쪽으로 달리다가 중간에서 멈춰 머리를 남쪽으로 돌려 뺏어나다가 갑자기 멈추면서 자그마한 봉우리를 만들고 양수합곡(兩水合谷)하는 언덕위에 산을 등지며 물을 안대로 하는 아담하고 양지바른 마을을 이루었다.

옛부터 지리풍수학(地理風水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대인(大人)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럴싸한 큰 인물이 태어나지 않았으나 여기서 태어난 백상규 어린이가 장차 세상에 명성을 떨칠 명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선사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인자한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천성적이라 할 것이다.

죽림정사 백응성 조사  
탄생성지



죽림마을은 요천수가 두 갈래로 흐르는 합곡에 있어 예나 지금이나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선사의 아버지 남현(南賢)공은 취미 삼아 자주 요천수에 낚시를 드리웠다. 장자로 얻은 상규소년에게 다래끼를 주며 열심히 낚아 건네주었으나 다래끼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다. 의아하게 생각한 아버지 남현공은 다시 낚은 물고기를 아들에게 건네주고 동정을 살폈더니 몰래 물속에다 방생(放生)해 주는 것이었다.

남현공이 아들 상규소년에게 물었다. 상규소년은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불쌍해서 방생하였습니다.」

어린 상규소년은 미물인 물고기마저 죽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비심이 움터 있었던 것이다.

선사의 어머니 밀양손씨는 이유 없이 양식고리 속의 양식이 죽나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했다. 상규소년이 양식을 퍼가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뒤따라갔다. 가난한 집에서 우환마저 들어 끼니를 잊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집에 다 가져다주며 구휼의 손을 뻗히고 있었다.

어려서부터의 자비심, 이것이 바로 그가 불문으로 들어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남현공께서는 아들 상규소년을 마을에 있는 서당에 입학시켜 한문을 배우게 하였다. 9세가 되는 여름 훈도선생은 합죽선(合竹扇)을 시제(詩題)로 글을 지으라 하였다. 상규소년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대요합죽선(大僥合竹扇) 차래동정풍(借來洞庭風)

(합죽선을 크게 흔드니 동정호의 시원한 바람을 빌려 오더라.)

아홉살 어린 소년의 글로는 공교로울 정도로 우수한 글이다. 한번은 어린 소녀들이 꽃을 꺾어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글을 읊어 「적화수리동춘심(摘花手裏動春心)」(꽃을 꺾어든 손속에서 봄마음 발동하는구나)이란 기묘한 글을 엮어내는 기발한 시재를 보였다.

상규 소년이 14세 되던 해 어느 날 밤 꿈에 부처님을 보았다. 절과 부처님의 형태가 며칠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무엇인가에 이끌려가듯이 당도한 곳이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蛟龍山城)속에 자리 잡은 덕밀암(德密庵)이었다.

여기에서 더욱 놀란 것은 얼마 전 꿈에서 본 절과 부처님이 바로 덕밀암이

요, 여기에 모셔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이었다. 아버지 남현공과 손씨부인은 수소문 끝에 아들 상규 소년이 덕밀암에 있는 것을 알고 겨우 설득하여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때부터 부모님에게 출가(出家)할 뜻을 밝히고 집요하게 부모님을 설득하였다. 부모는 당초에는 거절하였으나 조사의 굽힐 줄 모르는 집념에 하는 수 없이 동조하였으므로 마침내 16세가 되던 1879년(高宗 16年 己卯) 가야산 해인사(伽倻山 海印寺)에 들어가 극락암(極樂庵)에서 화월화상(華月和尚)에게 귀의, 삭발하고 불제자가 되었으며 다시 혜조율사(慧造律師)에게 사미계(沙彌戒)를 받아 비로소 중이 되었다.

얼마가 지나 주력(呪力)을 행하여 불망염지(不忘念智)를 얻었다는 큰 스님 수월장노(水月長老)를 의성(義城)의 고운사(孤雲寺)로 찾아 생사대사(生死大事)와 견성(見性)에 대하여 물었다. 수월장노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법(修行法)을 배운 대로 지극정성을 다하여 천수주(千手呪), 육자주(六字呪)를 전수 받았다. 다시 양주(楊州) 보광사(普光寺) 도솔암(兜率庵)에서 6일 동안의 참구로 이제까지의 의심이 확 풀려 버렸다.

조사께서는 용성선사어록(龍城禪師語錄)에 아래와 같이 술회하였다.

「一念者如桶底脫似不可口議心想思」

(한번 생각함이 나무통 밑바닥이 빠져 버린 것 같이 뚫려 입으로 의논하고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무통의 밑바닥을 뚫어 놓으면 흰하게 보일 것이니 의심나는 것이 흰히 드러나 보일 것이다.

그 뒤 자리를 옮겨 금강산 표훈사(金剛山 表訓寺)로 들어가 무용선사(無融禪師)에게 사사하여 무자어두(無字語頭)를 참구하였다. 다시 양주 보광사 두솔암으로 가서 참구하자 무자(無字)의 의심이 풀렸고, 23세에 신라불교 초전 법륜 성지 선산 도개동 모례샘 근처에서 오도(悟道)하셨다.

조사께서는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우리나라 불보종찰(佛寶宗刹)인 통도사(通度寺)로 향하여 여기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선곡율사(禪谷律師)로부터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아울러 대계(大戒)(比丘尼가 지키는 250 계)를 전수 받음으로써 선승(禪僧)으로의 계맥(系脈)을 이어가게 되었는데 근대 율종(律宗)의 중흥선사(中興禪師)인 대은율사(大隱律師)의 전통을 계승하는 초의(草



衣), 범해(梵海), 선곡(禪谷), 용성(龍城)의 계통을 확립하였다.

이로부터 용성조사께서는 더욱 정진과 구도(求道)에 힘써 서북지방의 선원에서 12년간의 수도생활을 하였으며 조계산(曹溪山) 송광사(松廣寺)의 삼일암(三一庵)에서 하안거(夏安居) 수도중 전등록(傳燈錄) 황벽법어(黃蘗法語)를 열람하였으며 득도에 여념이 없었다.

다음해 1894년(高宗 31年 甲午)은 전라도에서 동학군의 봉기로 전라감영이 점령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정은 어지럽고 사망이 소란하자 풍운이 몰아닥치는 전조가보였다. 용성조사는 지리산(智異山) 금강대(金剛臺)에 올라 동안거(冬安居)를 시작하여 국가의 태평과 국민의 안녕을 빌었다.

1900년(庚子)에는 상주(尙州) 금룡사(金龍寺)에서 제1회 계회(戒會)를 열어 설법(說法)하였으며 1902년(壬寅)에는 화엄사(華嚴寺) 탑전(塔殿)에서 동안거를 하였고 1903년에는 순천(順天) 선암사(仙巖寺)에서 제2회 계회를 열어 설법하였고 1904년 철원군(鐵原郡) 보개산(寶蓋山) 심원사(深原寺)에서 제3회 계회를 열어 고승으로서의 기반을 다듬었다.

1906년(丙午) 해인사 중수(重修)공사를 착수하고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장정하는 대역사를 완료하였다. 다시 덕유산(德裕山) 호국사(護國寺)의 불상개금(佛像改金)과 불탱화를 봉안하였고 1907년(丁未) 덕유산에 법천암(法泉庵)을 창건하였다.

국내의 불사를 일단 중지하고 외유의 뜻을 펴서 같은 해 겨울 만주를 거쳐 중국에 유학하게 되었고 대찰과 명승을 찾아서 불법을 논의하였으며 수많은 경전을 열람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명산대찰을 돌면서 통주(通州) 화엄사(華嚴寺)에 이르렀다. 중국의 선사(禪師)가 용성조사가 조선에서 온 것을 알고서 중국 사람들이 자고로 조선 사람들을 알아보는 풍습이 있었으니 이 선사도 조선 불교를 경시하여 물었다.

“계(戒)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용성조사가 대답하여 “통도사(通度寺) 금강계단(金剛戒壇)에서 받았다.”

중국 선승은 다시 물었다.

“우리 중국에서 정계(淨戒)가 언제 조선에 들어갔는가. 내가 듣기로는 당신나라 조선에는 사미계(沙彌戒)뿐이지 대계(大戒)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고 조선불교는 전통불교가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말을 서

습치 않았다. 용성조사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공중의 일월(日月)이 그대 나라 중국 것이 아닌 것처럼 불법도 이와 같아 천하의 공도(公道)인데 어찌 그대의 나라 중국 것이라고만 하는가. 나라는 대국(大國)인데 사람들은 소인(小人)들이로다.”

하시면서 조선의 전통을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니 중국의 선사들이 모두 굴복하였다. 선사께서는 1911년(辛亥)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선사는 중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조선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1910년 경술(庚戌)년이니 경술국치(庚戌國恥)라 불리 우는 소위 일제강점조약이 8월 22일에 체결되고 8월 29일 발표됨으로써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 백성이 왜놈들의 종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애국심이 철저한 용성선사는 중국땅에서 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하여 서울 거리를 돌아보던 용성선사는 때마침 개화의 물결을 타고 몰려온 외세(外勢)와 같이 다시 상륙한 천주교(天主教)가 명동에 세운 건물을 보고서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불교에서도 불교인이 집합하여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교당(敎堂)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불교가 심산불교(深山佛敎)로 산속 깊은 곳에서 수도하는 전통을 깨는 중대한 변화로서, 신도가 있고, 포교대상이 있는 도회지로 절과 스님들이 옮겨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이었다.

1912년 드디어 서울 한복판 견지동(堅志洞)에 대각사(大覺寺)(선종교당 禪宗敎堂)를 건립하고 1주일마다 한번씩 설법하는 불교의식의 개혁이 이뤄졌으니 수년간의 포교 끝에 신도가 3,000명을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교의 포교방법으로는 일대 발전이요, 혁신이었다. 용성조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간도성(間島省)에 들어가 교당을 건립하고 일제의 압박 하에서 살지 못하고 유랑한 교포를 상대로 포교를 시작하여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주면서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사실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활동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용성선사는 중들도 스스로 농사짓고 노동해서 먹고사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의 불교지(佛敎誌) 제93호에 「선농일치(禪農一致)에 대한 소신(所信)」을 발표하여 아래와 같이 썼다.

「오인(吾人)의 자신(自身)이 노농(勞農)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석일(昔日)에도 황벽임제(黃蘗臨濟)와 백장회해(百丈懷海) 위산양산(僞山仰山)이 다 전중(田中)에서 보청(普請)하사 친(親)히 경작(耕作)하시었다.」

불교사에서 설명한 것을 보면 선종(禪宗)이 한 종파로서 발전한 것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제자 백장회해(百丈懷海)선사의 백장청규(百丈淸規)라고 할 수 있다. 백장청규가 나오으로써 선농(禪農)의 확립을 보았고 지계생활(持戒生活)의 근본을 「一日不作 一日不食」(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하라) 한다는 철저한 선농(禪農) 사상이었다.

용성선사는 선농일치사상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실천에 옮겨 경남 함양군 백전면에 화과원(華果園)을 설립하고, 만주 간도성에 연길농장(延吉農場)을 만들어 스님들이 직접 농사일을 하면서 수도하는 모범을 보였다.

경남 함양군 백전면의 화과원은 백운산(白雲山) 남쪽 임야와 황무지 30여 정보를 개간하여 밤나무와 감나무를 심어서 수입으로 승려들의 식생활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인데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6·25사변으로 황폐화 되어 지금은 그 폐허만 남아있을 뿐이다.

연길농원은 농토를 장만하여 자력 자족하면서 포교활동에 힘썼으나 현재는 중공치하에 들어가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도시에 공장을 세우는 것만은 시도하지 못했으나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신념을 실천하여 대단한 성과를 올렸음이 확인되었다.

자고로 이름 높은 선사(禪師)나 율사(律師)가 심산유곡에 안주하면서 승려들의 정상에 군림하여 포교나 역경(譯經)등의 사소한 일을 외면하고 체통이나 위신만을 지키는 것이 상례였으나 용성조사는 정통계맥을 계승한 율사이며 득도하여 눈 밝은 선사로서 자존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직접 포교활동에 종사하면서 한국불교의 방향을 제시하던 뛰어난 조사임에 틀림이 없다.

용성조사는 당시의 세정으로 보아 오해하기 쉽고 중상 받기 안성맞춤인 도회지 포교활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여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 선종교당(禪宗敎堂)을 세우고 대각교(大覺敎)를 설립하여 직접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포교활동을 하였으니 바로 선각자(先覺者)요, 개혁자(改革者)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는 한문경전을 중생들이 읽을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들에게 퍼지지 않음을 안타까이 여겨 경전 번역사업을 평생의



사업으로 설정하고 당시의 경성부 봉익동 2번지 대각사(大覺寺)에 삼장역회(三藏譯會)를 두고 화엄경(華嚴經) 원각경(圓覺經) 능엄경(楞嚴經) 금강경(金剛經) 기신론(起信論) 등 기타 경전을 번역 발간하여 무식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하였다.

### 교파를 초월한 애국운동

1919년(己未) 정월 일본에 유학하고 돌아온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스님이 세배차 용성조사를 찾아와서 평양에서 내려와 경성에 유숙하고 있는 남강(南岡) 이승훈(李昇薰) 선생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의 남강 선생은 오산학교(五山學校)를 설립하고 105인 사건으로 검거되어 4년간의 옥고를 치른 후 가출옥으로 출감한 후 기독교에 귀의하여 세례를 받고 동경에 유학, 목사(牧師)가 되어 귀국한 기독교계의 지도자였다. 아무리 개화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목사와 선종불교의 선사와 대좌하기란 당시 사정으로는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용성조사는 흔쾌히 승낙하고 일시, 장소를 약속하고 만해 선생을 돌려보냈다.

약속당일이 되어 역사적인 회담이 되었는데 불교계의 지도자와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모여 나라일을 걱정하고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출하고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각계각층의 대표자를 접촉하였다.

천도교의 손병희(孫秉熙) 유교계의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최린(崔麟) 선생을 순차적으로 만나 3·1 독립선언(獨立宣言)의 민족대표 33인을 선정하고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경성부 인사동(京城府 仁寺洞) 명월관(明月館) 지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 일본왕과 만국평화회의에 선언서를 발송함으로써 일본경찰에게 체포되는 비운을 당하는 등 애국애족하는 위대한 정신은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민족대표 33인중에는 불교대표로 용성조사와 만해 한용운스님 두 분이 들어 있으며 용성조사는 재판을 통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옥하였다. 다음은 3·1운동(運動) 비사(秘史)에 나온 용성조사의 재판기록을 발췌한 것이다.

문) 피고는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하겠는가.

답)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하겠다.

문) 선언서를 발표하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다고 생각하는가.

답) 선언서는 일본정부에 대해서 독립을 달라는 것이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 무엇 때문에 운동에 참가했는가.

답) 독립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이다. 그래서 참가했다. 반드시 독립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문답이 있음을 보아 용성조사는 확고한 신념과 과감한 실천력이 있는 위대한 인격자요, 지도자였다.

용성조사가 61세 되던 1924년 4월 28일 경전을 탐독하던 중 문득 어금니에서 거북한 물건이 빠져 나오는 것을 느끼고, 꺼내보니 자금색의 팔알만한 사리(舍利)였다. 승려의 이빨에서 사리가 나온 것은 전대미문의 희귀한 사실이다. 그러나 며칠 후 사리를 구경하고자 찾아간 교도들에게 “그것은 쓰레기장에 버렸으니 보여줄 수가 없구나”하며 태연하게 경전을 읽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쓰레기장에서 이상한 불빛이 발생하자 상좌중들이 살펴보니 용성선사의 이빨에서 나온 사리여서 법당에 모시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법당에 불이 났다고 법석이 일어나 물통에 물을 길어 법당으로 뛰어든 중들은 두번 놀랐다. 불이 난 것이 아니라 모셔 놓은 사리에서 불이 났다고 의심할 정도의 큰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도 1925년 4월 18일 동년 12월 28일 1937년 2월 8일의 세번에 걸쳐 전과 같은 발광현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1926년 5월 선사는 조선총독부에 범계생활금지건백서(犯戒生活禁止建白書)를 제출하여 일제의 종교말살정책에 항거하였으며 이 항거운동은 독립운동의 연속이 되는 것이며 불교 정화운동으로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3·1운동 후 일본은 허울 좋은 문화정치를 표방하여 조선 사람의 환심을 사려하였으나 내용은 종교말살정책의 하나로서 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고, 일본불교를 진출시켜서 대처승도 승적에 올릴 수 있게 하는 등 불교계에 혼란을 일으켜 고유의 전통을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불교의 계율에는 승려의 독신생활은 필수적인 것이며 수도의 근본이 되

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대치승을 동원하여 부부동반으로 포교활동을 하게하고 그들에게 불교종단의 주도권까지 위임하여 조선불교의 지계(持戒)생활에 그 가치관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불교는 조선(朝鮮) 초기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용성조사는 이에 과감하게 반항하여 일어서면서 전국에서 127 명의 고명한 불교지도자를 일당에 모이게 하고 건백서를 만들어 조선총독에게 보냈는데 그 건백서의 발췌된 취지는 다음과 같은 글이다.

「우리들은 정통불교의 계맥을 전승한 종교로서 유구한 역사 속에 발전해 왔다. 일본에서 들어온 소위 남방불교란 파계(破戒)의 불교로서 결혼한 승려가 발호하고 심지어 승적에 까지 오름은 매우 부당한 처사다. 이것은 쌀에서 나온 쌀벌레가 쌀을 먹고, 사자의 몸에서 생겨난 벌레가 종내는 사자를 죽이는 것이니 불교계율을 위반한 승려를 인정하고 방관함은 정통불교의 지계의 존엄성과 선종의 전통을 흐르게 하여 불교를 파멸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치승을 승적에서 제명하고 승려의 결혼함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깨끗한 전통을 이어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전달하도록 하게 하라.」

조사는 일본에서 온 남방불교의 대치승의 불교 침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으며 심지어는 일본 대치승이 주장하는 조선불교 종단을 떠나 대각교종(大覺敎宗)을 창설하여 정통선종의 오염되는 것을 막는데 정성을 쏟았다.

용성조사는 저작(著作)에도 심혈을 기울여 귀원정종(歸源正宗) 심조만유론(心造萬有論) 수심정로(修心正路) 팔상록,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 각해일륜(覺海日輪), 정공원일(晴空圓日) 수심론(修心論), 석가사(釋迦史), 임종역(臨終譯), 오도의 진리(吾道の眞理), 오도의 각(吾道の覺) 등이 있고 제자들이 집대성하여 출판한 용성대선사어록(龍城大禪師語錄)이 있어 평생에 집필의 열성이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사는 역경사업에 평생을 바쳐 역서에 대하여는 전부 거론할 수조차 없어 언급을 삼가 하겠다.

1940년(庚辰) 2월 24일 목욕한 후 법복을 갈아입고 제자들을 모아 놓았다. “나는 이제 부처님을 따라 가겠다. 내가 간 뒤에 절대로 거애(擧哀)하지 말고 괘효(掛孝)하지 말라. 단지 무상주(無上呪)를 외어주는 것으로 족하다.”



고 말씀하고 평소와 같이 제자들과 환담하고 있었음으로 제자들은 건강하신 조사가 입적(入寂)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대선사인 자신이 스스로 입적할 것을 예언한 것을 믿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제자들은 용성선사에게 물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며 지향할 곳은 어디이며, 갈 곳은 어디입니까.” 선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읊어 주었다.

「匏花穿籬出 閑臥麻田上」

(박꽃이 울타리를 뚫고 나갔으니 삼밭 위에서 한가롭게 누웠구나.)

자고로 대선사들의 법어는 심오한 것으로 범인들이 쉽게 해득할 수 없는 것이며 몇년 또는 몇십년 후에야 그 참뜻을 해득할 수 있었으므로 선사의 법어(法語)도 해득될 때도 있을 것이다.

용성조사는 다음날 즉 1940년(庚辰) 2월 24일 여명에 웃으시면서 입적(入寂)하였다. 세수는 77 세였으며 법랍(法臘)은 61 세였다.

선사의 불신에서는 무수한 사리가 나와 1941년 제자들에 의하여 해인사(海印寺) 서편 골짜기에 사리탑을 세우고 이름 하여 용성대선사 사리탑(龍城大禪師 舍利塔)과 비(碑)를 세웠다. 비문은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선생이 짓고 위창(韋滄) 오세창(吳世昌)선생이 전자(篆子)를 새겼으며 일재(一齋) 최중환(崔宗澣)선생이 글씨를 썼다.

사리탑과 비가 서있는 바로 옆에 용성대선사 사립탑선원(龍城大禪師 舍利塔禪院)을 신축하여 용성대선사의 선사로서의 유덕을 길이 전승하고 있음이 특기할 사업이라 할 것이다.

용성조사의 제자는 조계종 종정(曹溪宗 宗正)을 역임한 하동산(河東山)스님과 윤고암(尹古庵)스님이 있으며 현불교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법자(法子)와 법손(法孫)이 배출되었다. 1995년에 조사의 법손 대각사주지 도문스님은 해인사 입구에 조사의 법공을 기리는 불탑을 세웠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공로훈장(建國功勞勳章) 복장(復章)이 수여되었으며 고향인 장수에서는 장수군 출신으로서 일제에 항거하여 투쟁한 백용성(白龍城)조사를 위시하여 대동의병대장(大東義兵大將) 전해산(全海山)장군, 호남의병대장(湖南義兵大將) 문태서(文泰瑞)장군, 호남의병대장 박춘실(朴春實)장군, 건재 정인승선생 등 다섯 분이 모두다 건국공로훈장 복장

을 수여 받았음으로 다섯분의 선각자를 추존하여 장수오의(長水五義)라 하여 장수의 정신적인 상징으로 삼고 유덕을 흠모하고 있는 것이다.

(三一運動秘史 韓國佛教史 龍城大禪師舍利塔碑銘 龍城禪師語錄 韓國人物大系 龍城禪師研究「韓普光著」)



용성 조사 유허비

1997 년 봄에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 조사의 생가지 입구에 장수군수 김상두의 협조로 군비지원을 받아 장수 오선열(五義) 현양사업회(회장 김진영)에서 “석가여래부촉법제육십팔세(釋迦如來付囑法第六十八世)” 백용성진종 조사 유허비(龍城震鍾 祖師 遺墟碑)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조사(祖師)의 속성(俗姓)은 수원백씨(水原白氏) 속명(俗名)은 상규(相圭) 법명(法名)은 진종(震鍾) 용성(龍城)은 법호(法號)이다. 1864 년 5월 8일 장수군 변암면 죽림리에서 남현공(南賢公)의 아들로 태어나시니 보문각 대제학 정신재백공장(白公莊)의 후예이다. 14세에 출가 남원 교룡산성 덕밀암에서 수행하고, 16세에 재출가하여 해인사에서 득도하였으며, 23세에 신라불교 초전 법륜 성지 천산 도개동 모례샘 근처에서 오도(悟道)하셨고, 40세에 묘향산 상비로암에서 수선회를 최초로 개설하고 조실(祖室)이 되셨으며, 서울 봉익동에 대각사(大覺寺)(선종포교당)를 짓고 포교에 힘쓰셨다. 기미 3·1운동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활약하시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년 6월 옥고를 치르셨다.

출옥 후에는 겨레의 가슴에 독립정신과 전통불교를 심어주기 위해 대각교(大覺敎)를 창설하여 북간도까지 포교하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하고 화엄경 등 여러 경전을 번역하는 동시 귀원정종(歸源正宗), 각해일륜(覺海日輪), 수심론(修心論), 청공원일(淸空圓日), 어록(語錄) 등을 저술 국내 포교에 열중하셨고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일으켜 자력생활의 새 국면을 열었으며 함양에 화과원(華果園)을 만들어 일일불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의 백장청규(百丈淸規)를 실천하셨고 독립자금 조달의 지하본부로 삼았다.

1940년 2월 24일 대각사에서 석가여래부촉법 제68세 용성조사는 유허 십사무(十事目)을 남기시고 세수 77세로 열반하셨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을 받으셨다.

## 제 16 절 우리말, 얼, 글을 지킨 정인승(鄭寅承)선생

덕유산(德裕山)은 호남과 영남의 진산(鎭山)이요, 여기서 뻗어난 산맥은 영호남을 통하여 분지를 만들고 평야를 만들어 우리나라 남부의 국토를 형성하였다. 북덕유산(北德裕山)의 준령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가는 소백산맥(小白山脈)이 형성되고 서쪽으로 흐르는 작은 산맥이 있는데 장수군과 무주군을 경계하여 수려한 산세를 이루며 계곡과 분지를 만들고 여기에 태고 때부터 인간이 살기 좋은 형세의 땅을 만들었고 석기시대의 인류가 살았다는 유물 고인돌(支石墓)이 지금도 남아 있다.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는 지금 장수군 변방의 보잘 것 없는 한촌에 불과하나 백제때 이 마을에는 장수군과 무주군의 일부를 통치하는 백이현(伯伊縣)의 도읍(都邑)터가 있는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행정관청이 설치되었으며 산간지대의 마을로서는 가장 빨리 발전되고 개화된 마을이 될 것이다.

시냇물과 접해있는 원촌(院村)마을에는 신라통일시대(新羅統一時代)에 완경원(觀景院)이 설치되어 공공운수(公共運輸)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역사를 장식한 곳이다.

계북면 양악리 마을앞을 흐르는 계곡수가 덕유산에서 기원하며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토옥동(土玉洞) 계곡이다. 토옥동 계곡은 우리 선열(先烈)들이 일제침략(日帝侵略)에 항거하여 싸우던 근거지이다. 호남의병대장(湖南義兵大將) 문태서(文泰瑞), 박춘실(朴春實)장군이 천험의 요새인 덕유산 토옥동을 근거지로 싸운 투쟁은 눈물겨운 항쟁사(抗爭史)라 할 것이다.

이 토옥동 입구에 자리잡은 양악리는 덕유산의 정기(精氣)와 남쪽에 호응하는 문성봉(文星峰) 정기가 교차(交叉)하는 지점이다. 여기 장수군(長水郡) 계북면(溪北面) 양악리(陽岳里) 138번지에는 동래군(東萊君) 휘(諱) 난종(蘭宗)의 15 세손(世孫) 정상조(鄭相朝)씨가 살고 있었다. 일찍 연안송씨(延安宋氏) 가문의 송성녀(宋姓女) 규수에게 장가들어 2년전에 득남하여 인영(寅永)이라 명명하여 생육하던 중 재차 잉태, 산월이 되어 남아를 순산하였다.

이날이 1897년(조선조 高宗 34年 丁酉 大韓帝國 光武1年) 음 5월 19일이다.

정상조씨는 항열에 따라 이름을 인승(寅承)이라 하였다. 인승소년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의리에 강하며 예절 바른 행동으로 원근에서 신동(神童)이 태어났다고 소문이 자자하였다.



정인승 선생



선생이 아홉살이 되던 1905년 11월말의 어느 날 선생의 아버지 정상조(鄭相朝)씨가 거처하는 사랑에서 갑작스런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인승소년은 아버지의 사랑방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아버지 상조씨는 어디서 구했는지 서울에서 당시 발간되던 황성신문(皇城新聞)을 앞에 놓고 방성대곡을 하고 있었다. 의아스런 소년은 아버지에게 연유를 물어 보았다. 아버지는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保護國)으로 만들기 위해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조선에 파견,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가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하여 소위 을사늑약(乙巳勒約)을 체결하게 강요하였으며 박제순(朴齊純), 이지용(李止鎔), 이근택(李根澤), 이완용(李完用), 권중현(權重顯) 등 친일대신 5명의 협조로 조약이 체결되어 국권(國權)을 완전히 일본에게 넘겨 주어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그러니 나라없는 백성이 되었으니 어찌 통곡하지 않을 것이냐.” 하시며 황성신문의 사설에 게재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장지연(張志淵) 선생의 글을 해석하여 들려주었다.

정상조씨의 방성대곡은 아들 인승소년의 가슴에 더욱 처량하고 비참하게 계속 되었으며 어린소년의 가슴에 망국한(亡國恨)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무렵 향리의 대학자 한응수(韓應洙)선생의 문하에 입학하여 한문수학을 시작하였는데 천성적으로 영민한 인승소년은 일취월장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다.

이때 일본의 침략은 더욱 구체화 되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韓日合邦條約)이 체결,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됨으로써 국권을 상실하였다. 그때부터 일본의 무단정치가 감행되었으며 새로 만든 속국 조선의 민족혼과 문화 역사를 개조하려는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지정책(植民地政策)이 시작되었다.

이때 신교육 정책에 의하여 지방의 중소도시에 보통학교(普通學校)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인승소년은 한학자 한응수선생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배우고서 노도와 같이 밀어 닦치는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전북 진안군 용담면에 설치된 용담공립보통학교(龍潭公立普通學校) 2학년에 편입하였는데 때가 1915년 9월이었다.

1917년 3월 25일까지 위 학교를 졸업하고 본제에 돌아와 한문수학과 함께 일본의 와세다(早稻田) 대학의 강의록을 구하여 독학을 하였다.

그러는 동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 어떻게 독립국이 무엇이며, 식민지가 무엇인가 등등 생각이 새롭게 싹트고 움트기 시작하였다.

인승청년의 나이 23세되던 1919년 봄 고종황제(高宗皇帝)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국장(國葬)인 인산(因山) 견학을 위하여 상경하였다가 때마침 일어난 3·1 독립만세운동을 목격, 군중속에 뛰어들어 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아다녔다. 낮에는 독립만세를 부르고 밤에는 한방의 친구들과 주머니 돈을 털어 조그만 등사기를 구입, 등사판 독립신문을 만들어 첫 새벽부터 골목골목 헤매며 배포하였다. 그러던 과정에서 개천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몇 달을 치료하며 고생하였다.

1920년 11월 서울 내자동에 있던 종교예배당(宗教 禮拜堂)에서 개강한 영어 강습소에서 영어교육을 받았다.

1921년 4월 1일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 문과에 입학하여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학습에 열중하였다.

재학한 4년동안 삼년 선배인 김윤경(金允經)과 사귀면서 그의 옛 스승인 주시경(周時經)선생의 창의적인 국어문법학설을 체계적으로 습득한 것을 위주로 영문법 교수인 백남석(白南奭)선생의 영어 구문론(構文論) 해설을 논리적으로 체득한 것과 국문학자 정인보(鄭寅普) 교수의 수사학(修辭學) 강의는 정인승 학생에게 커다란 감명을 주었다.

생애에 길이 영향을 남겨준 김윤경 선배와 정인보 교수 두 분이였다고 건재 정인승 선생은 말년에 쓴 「나의 국어생활을 돌아봄」이란 글에서 술회하고 있다.

1925년 3월 3일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였으나 3·1운동 때부터 갈망하던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인이 우리 국민에게 시행하는 우민정책(愚民政策)을 깊이 인식한 건재 정인승선생은 민족혼과 독립정신을 북돋아 일으키는 계몽사업(啓蒙事業)에 몸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교육에 종사하기로 결심하였다.

때마침 전북 고창군에서는 군민이 각자 성금을 거출하여 사립 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한 양태승(梁泰承)선생이 서울의 연희 전문학교로 교사를 초빙하기 위하여 올라와 건재 정인승선생을 지목, 고창고보의 영어선생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건재 선생은 영어보다는 국어교육을 맡겨주면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총독

부의 규정에 따라 조선어교사로는 정식인가가 되지 않아 영어교사로 인가를 받고 학교 내규로서 얼마든지 조선어 교육을 맡아 달라는 약속으로 고창고보의 교사로 부임하였다.

고창고보에서는 정규의 영어교육보다도 과외를 통하여 조선어교육에 성력을 기울이고 국어애(國語愛) 정신이 투철하여 학교의 기풍이 쇄신되었다.

몇해동안 고창고보는 그 존재가 널리 알려져 정주(定州)의 오산고보(五山高普)와 같이 학풍과 학생의 질이 좋기로 전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다.

이때 광주학생사건이 발생하여 각지 고보에서 소위 사상불온이란 이름아래 퇴학당한 학생을 전국의 고보에서 편입시켜 주지 않았으나 애국사상이 투철한 교장 양태승선생은 이 학생들을 편입시켜 무사히 졸업시키자 고창고보의 명성은 더욱 높아만 갔다.

1935년 조선총독부는 말썽 많은 사립학교를 없애고 주무르기 쉬운 공립학교로 개편하면서 조선어 교육마저 폐지하는 폭정을 서슴지 않았다.

고창고보에서 11년을 근무한 건재 정인승선생은 공립고보에서 근무할 수 없고 더욱 조선어 교육이 없는 학교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사직서를 쓰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때 서울에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우리말 우리글의 학술적 연구와 실용적 보급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으며 불우한 동지, 학자들을 조심스럽게 찾아서 규합하고 있었다.

이 연구회는 1926년 처음으로 한글날을 제정하였고 1927년부터 순국문월간 「한글」이란 제목의 학술지를 발간하였고, 1929년에는 우리말 사전(辭典)을 만들기 위한 사전편찬회를 조직하였다.

이 조직은 한글날 기념식에 모인 각계각층의 108명의 인사가 발기하였고 그 산하에 ① 한글 맞춤법 제정위원회 ② 조선어 표준말 사정위원회 ③ 외래어 표기법 제정위원회 등을 각기 분담 연구 작성하게 하였다.

각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맞춤법은 1933년, 한글날 완성발표 표준말은 1936년 한글날에 종합발표 되었으며 외래어 표기법은 많은 세월이 지난 1940년에 완성 발표되었다.

대체적 윤곽이 잡힌 연구회는 사전편찬에 착수하려던 때에 연구회에 호의를 가진 독지가 이우식, 김양수, 장현식, 김도연, 이인, 서민호, 신윤국, 김종철, 민영옥, 임혁규, 정세권선생 등이 현금 일만원과 사무소용 건물 한채를 기증함으로 1936년 봄부터 사전편찬위원 6인을 선정, 집필 실무를 개시하



였다. 그 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극로, 이윤배, 최현배, 정인승, 이중하, 한징, 뒤에 이윤재, 최현배가 휴직함으로 후임으로 권승옥, 정대진으로 증원되어 편찬의 집필 실무에 종사하였다.

1936년 4월 1일 조선어연구회는 발전적 해산을 하고 조선어학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재 정인승선생은 맞춤법 통일안 수정과 기초위원으로 활약하면서 학회기관지 「한글」의 편집과 발행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선생은 지령 제49호부터 제93호까지 발행하였다. 1937년 10월부터 「한글」에 연재된 (물음과 대답)란의 대답을 전담 집필하였는데 동지 49호부터 108호에 이르는 기간이다.

1942년 10월 소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자 어마어마한 탄압이 시작되었으며 총독부에서는 얼토당토 않는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굴레를 씌워 편찬위원과 직원 11명, 학회관계자를 합쳐 33명을 검거하여 홍원(洪原) 함경남도 경찰서로 납치, 형언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고문 악형을 자행하였다.

소위 총독부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이란 곧 조선독립으로 일본의 국체를 변혁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을 조선어학회가 하였다고 자백하라는 것이며 사실상 조선어와 조선문화를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을 우민화(愚民化)하여 일본이 말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을 만들려는 음모의 소치였다.

사건은 장기간 지속되어 1943년 9월에야 몇사람을 기소유예로 내보내고 함흥지방법원에 넘겼으며 예심중 이윤재, 한징 두 학자는 고문과 영양부족으로 감옥에서 불귀의 객이 되기도 했다.

남은 12명은 재판을 거쳐 4년 집행유예 6명, 2년 징역 1명, 무죄 1명이며 나머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네 사람은 3년에서 6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약 1년이 지난 1945년 8월 13일에야 항소기각의 결정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일본인들의 야만성은 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8·15광복을 맞아 일본인이 물러간 뒤 국내 감옥의 문은 일제히 개방되었는데 함흥감옥의 4개 감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울고법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였으나 1945년 8월 17일 저녁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조선인 간수장이 감옥문을 열어주어 네사람이 석방되어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

1945년 9월 25일 조선어학회는 한글학회로 명칭이 바뀌고 건재 정인승 선생은 그 학술이사(學術理事)에 취임하였으며 개학을 위하여 초·중·고 각급학교의 교재작성과 국어 교육자의 강습 등으로 여념이 없었다.

한글학회는 백방으로 총독부에 압수된 한글 큰사전 편찬원고를 찾았으나 발견되지 않던중 우연하게도 서울역 창고에서 그 대부분이 발견되어 다시 편찬사업이 활발해졌다. 일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원고가 완성되어 예상했던 전질 6권의 사전중에서 제1권이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해서 을유문화사(乙酉文化社)에서 간행되었는데 실로 조선어 연구회를 창설한 후 21년만의 성사였다.

그리고 1957년 한글날에야 총어휘 164,125 낱말을 수용한 4×6배판 총 3,600쪽의 면모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완간까지는 무려 28개 성상이 흘렀으며 여기에 건재 정인승선생의 땀과 피가 서려 있을 것이다.

1945년 11월 1일 연희대학교 강사로 임명되어 봉직하고 1948년 7월 16일부터 한글학회 운영 세종중등교원 양성소에서 교편을 잡았고, 1949년 7월 5일 문교부 문법용어제정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한글체계화 활동을 하였다. 1951년 전북대학교에서 전시연합대학 강사로 출강, 1952년 4월 1일 전북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동대학 총장대리 집무, 동년 중앙대학교 이리분교 교수도 역임하였다. 1953년 문교부 국어심의회 의원, 연세대학, 건국대학 강사, 한글학회 중사전 편찬의원 등을 역임했다.

1961년 9월 30일 정년으로 전북대학교 총장직을 퇴임하면서 오랜 교편생활을 마무리 하였다.

1962년 10월 11일 중앙대학교로 부터 명예 문학박사(文學博士) 학위를 받았으며 1964년 3월 9일부터 다시 건국대학교 교수로 출강하여 1971년 12월 31일까지 봉직하였다. 1975년 9월 22일 연세대학교로 부터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 3월 15일부터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추대되어 1981년 4월 18일 학술원 원로회원으로 추대되며 종신회원의 영예를 누렸다. 1985년 8월 10일 한글학회 고문으로 추대되어 학술원이나 한글학회 등 일선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였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출생할때 부터 학문을 위해서 태어났고 특히 한글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국가의 공로자라 할 것이다. 장수땅에서 낳은 석학으로 장수의 자랑이며 장수사람의 긍지를 심어준 위대한 학자라 할 것이다.

건재 정인승선생은 1986년 양력 7월 7일 오전 11시 40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선생에게 내려진 상훈포상은 다음과 같다.

1. 1957년 10월 9일 큰사전 편찬 공로상(문교부장관)
2. 1957년 10월 9일 국어운동 특별공로상(문교부장관)
3. 대한민국 학술원상(학술원회장)
4. 교육공로 표창장(문교부장관)
5.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대통령)
6. 조국근대화 공로훈장 모란장(대통령)
7. 외솔상(외솔회)
8. 노산문학상(노산문학회)

건재 정인승선생께서는 많은 저서를 남겼으나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 한글독본(1946년 3월 1일 정음사간)
- 표준중등말본(1949년 9월 15일 어문 각간)
- 한글문답(1950년 1월 30일 현대문화사간)
- 표준옛글(1955년 3월 20일 신구문화사간)
- 표준중등말본(1956년 3월 15일 신구문화사간)
- 표준고등말본(1956년 3월 15일 신구문화사간)
- 의문해설한글강좌(1960년 7월 5일 신구문화사간)
- 표준문법(1968년 2월 2일 계몽사간)

일제 36년의 질곡 속에서 끝까지 지조를 굽히지 않고 조선사람의 민족혼을 일깨우고 사라져 가는 우리의 한글을 체계화하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선생은 돌아가신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마석면 모란공원묘원에 안장되어 조국의 장래와 민족문화 특히 한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고이 잠들고 있다.

우리 후학들이 할 일은 건재 정인승선생의 출생지인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 유허비(遺墟碑)라도 세워 선생의 은덕을 추모해야 할 것이다.<sup>40)</sup>

1997년 봄에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선생의 생가지 앞에 장수군수 김상두

40) 한글새소식, 나의 국어생활을 돌아봄, 한글, 한글학회 증언 국사대사전 독립운동사



의 협조로 군비 지원을 받아 장수 오선열(五義) 현양사업회(회장 김진영)에서 “建齋 鄭寅承先生遺壙碑”를 세웠다. 비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얼, 말, 글을 일제로부터 지키고 가꾸기 위하여 일생을 불사르신 정인승선생은 1857년 5월 19일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서 상조공(相朝公)과 송성녀(宋姓女)여사의 둘째아들로 태어나시니 동래군(東萊君) 휘 난종(機宗)의 16세손이 되시며 동지중추부사 휘 존성(存聖)의 현손과 중추원의관 휘 기섭(基燮)의 손이 되신다.

1925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시고 11년간 고창고등보통학교 교사로 계시는 동안 일제의 강압 속에서도 국어교육을 고집하시다 끝내 교단을 물러난 뒤에 한글학회로 가시어 국어사전편찬과 한글학회지 “한글” 편집과 발행 업무를 주관하셨다.

1942년 10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루시다 광복으로 출감하셨다.

1945년 9월부터 우리말 큰사전이 나올 때까지 편집 책임을 맡으셨고 31년에 걸쳐 한글학회 이사로 계시면서 문교부(교육부) 문법용어제정 위원 중 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중앙대와 연세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다.

학술원 원로회원인신 선생은 전북대학교 총장에서 정년퇴임하신 뒤에도 문교부 한글전용심의회 전문위원을 맡으시는 등 평생을 우리글 가꾸시는 일을 하시다 1986년 7월 7일 향년 90세로 거룩하신 생애를 마치셨다.

건국공로훈장을 비롯 많은 포상과 한글독본 외 많은 저서를 남기셨다.

정인승 선생 생가

